

연구보고서 2022-42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45~64세 집단의 사회적 불안

이현주

곽윤경·이아영·변금선·전지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전지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22-42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45~64세 집단의 사회적 불안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ISBN 978-89-6827-906-5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2.42>

발|간|사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일의 방식이 변화하면서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도, 일자리를 잃고 당장 소득중단에 대응할 보족한 방안이 없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첨예해진 경쟁 속에서 과로로 버거운 일상을 꾸리면서도 미래에 대한 준비가 막연한 사람도 있다. 가난한 일부 사람들만이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회의 구성원 중 다수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

개인의 정서적 불안이 사회경제적 환경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불안은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으로 다수의 사람이 경험하는 불안으로, 심리·정서적 불안과 다른 면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불안을 ‘사회적 불안’ 또는 ‘사회적 불안 인식’ 또는 ‘사회적 불안 인지’로 명명한다. 관련 연구자들과 국제기구는 보고서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불안 인식이 심화되면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과 사회적 현상에 대응하는 제반 행동이 왜곡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과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회적 불안의 수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적 불안의 수준과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사회적 불안의 원인을 탐색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이 수준과 내용 면에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 그리고 연령별로 어떠한 상이성을 보이는지 규명한다. 2020년에 청년과 중년(초기), 2021년에 노인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22년에는 45~64세(후기 중년)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사회적 불안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계량적 분석을 주로 하여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불안의 수준과 내용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 심리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의 관계, 사회적 불안에 대

한 대처기제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사회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사회정책은 사회구성원의 삶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한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영향을 받는 사회적 불안 인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향후 사회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보고서가 사회정책을 연구하는 분들과 사회정책을 구상, 운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이현주 선임연구위원의 주관 하에 서울연구원의 변금선 부연구위원, 그리고 원내의 곽윤경 부연구위원, 이아영 부연구위원, 전지현 전문연구위원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참 많은 분들이 사회적 불안에 관해 진지하게, 그리고 성심으로 함께 고민해주셨다. 면담에 참여하여 주신 분들과 자문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을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겸허하게 소망한다.

202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제2절 연구의 구성과 주요 내용	12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기대효과	15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와 조사의 설계	19
제1절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1
제2절 조사표의 개발과 조사의 개요	43
제3장 사회적 불안에 대한 기초분석	59
제1절 응답자의 특성	61
제2절 사회적 불안 인식 측정의 신뢰도와 영역 구분	63
제3절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적 불안의 수준	67
제4절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영향 인식	77
제4장 개인 심리·불안과 사회적 불안	85
제1절 분석 목적과 방법	87
제2절 개인 심리·불안과 사회적 불안 분석 결과	101
제3절 소결	121

제5장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격차	125
제1절 세대 특성과 사회적 불안	127
제2절 분석방법	132
제3절 사회적 불안의 격차	134
제4절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애 경험의 누적 효과	155
제5절 소결	167
제6장 사회적 불안과 대처기제	169
제1절 분석의 목적과 방법	171
제2절 대처방식별 불안 비교	176
제3절 사회참여 및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불안	181
제4절 사회적 불안에 대한 사회관계의 영향 분석	188
제5절 소결	207
제7장 결론	211
제1절 주요 결과와 시사점	213
제2절 정책 과제	220
참고문헌	233
부록	243
[부록 1] 면담 가이드	243
[부록 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설문지	247
[부록 3] 문항 16번, 24번 제거 시 신뢰도 분석 결과	261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본론의 장별 분석 주제와 분석 내용 소개	14
〈표 2-1〉 불안장애 인구사회학적 분포(1년 유병률)	35
〈표 2-2〉 자녀 양육책임의 범위 변화 추이(2003~2018년)	38
〈표 2-3〉 후기 중년층1)의 가족 특성별 부양집단 분포(2018)	39
〈표 3-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62
〈표 3-2〉 신뢰도 분석 결과	64
〈표 3-3〉 요인분석 결과	66
〈표 3-4〉 사회적 불안의 수준	68
〈표 3-5〉 문항별 사회적 불안 수준	69
〈표 3-6〉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불안	72
〈표 3-7〉 응답자의 가구 구성 특성과 사회적 불안	74
〈표 3-8〉 가구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불안	75
〈표 3-9〉 경제활동 참여 상태별 불안 수준	76
〈표 3-10〉 사회적 불안/하위 영역/개인 불안의 상관관계	77
〈표 3-11〉 사회 발전에 대한 영향 인지별 불안 수준	79
〈표 3-12〉 사회적 불안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에 따른 집단별 구성	82
〈표 3-13〉 사회적 불안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에 따른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징 비교	83
〈표 3-14〉 사회적 불안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에 따른 집단별 경제적 특징 비교	84
〈표 4-1〉 분석 틀 설명	91
〈표 4-2〉 Latent and Observed variables	92
〈표 4-3〉 사회 불안, 개인 심리·불안 변수 설명	95
〈표 4-4〉 사회적 불안 척도 변수	96
〈표 4-5〉 개인 심리·불안 변수	97
〈표 4-6〉 사회 불안, 개인 심리·불안의 설명 요인 변수	99
〈표 4-7〉 사회 불안, 개인 심리·불안의 삶에 미치는 영향 변수	100
〈표 4-8〉 잠재계층의 개수에 따른 모형적합도	102
〈표 4-9〉 개인 심리·불안에 대한 잠재계층 특성	104

〈표 4-10〉 사회적 불안에 대한 잠재계층 특성	106
〈표 4-11〉 개인 심리·불안 유형별 사회적 불안 인식 점수	109
〈표 4-12〉 개인 심리·불안 유형별 사회적 불안 수준	110
〈표 4-13〉 개인 심리·불안 잠재계층과 예측변인의 관련성-사회적 불안 인식 점수	114
〈표 4-14〉 개인 심리·불안 잠재계층과 예측변인-사회적 불안 영역	117
〈표 4-15〉 개인 심리·불안 잠재계층별 개인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변수 간 관계	120
〈표 4-16〉 개인 심리·불안/사회 불안과 개인 삶/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 변수 간 관계	120
〈표 5-1〉 출생 코호트별 사회경제적 사건을 경험한 연령	130
〈표 5-2〉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 분석방법	134
〈표 5-3〉 분석대상 일반적 특성	136
〈표 5-4〉 귀속지위에 따른 돌봄 어려움, 은퇴 경험, 노후준비 현황	139
〈표 5-5〉 획득지위에 따른 돌봄 어려움, 은퇴 경험, 노후준비 현황	140
〈표 5-6〉 귀속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143
〈표 5-7〉 획득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144
〈표 5-8〉 귀속지위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	146
〈표 5-9〉 획득지위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	147
〈표 5-10〉 이종과업 유형화	149
〈표 5-11〉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종과업 유형 분포	150
〈표 5-12〉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종과업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경험률	152
〈표 5-13〉 사회경제적 지위, 이종과업, 사회적 불안의 관계(Linear probability model)	154
〈표 5-14〉 귀속지위에 따른 생애사건 경험	156
〈표 5-15〉 귀속지위에 따른 박탈 경험 비율	157
〈표 5-16〉 귀속지위와 주요 사건 경험의 관계(Linear probability model)	158
〈표 5-17〉 귀속지위와 박탈 경험의 관계(Linear probability model)	158
〈표 5-18〉 생애 경험 누적 횟수에 따른 이종과업 유형 분포	159
〈표 5-19〉 생애 경험과 돌봄 부담 및 노후준비 여부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161
〈표 5-20〉 생애 경험과 이종과업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162



〈표 5-21〉 귀속지위와 사회경제적 사건 경험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164
〈표 5-22〉 귀속지위와 박탈 경험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165
〈표 5-23〉 사회경제적 지위, 주요 사건·박탈 중복경험과 사회적 불안(Linear probability model)	166
〈표 6-1〉 사회참여와 사회관계망 활용 변수	174
〈표 6-2〉 매개변수	175
〈표 6-3〉 후기 중년의 불안 대처방식(중복응답)	176
〈표 6-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불안 대처방식	178
〈표 6-5〉 불안 대처방식별 사회적 불안 수준	179
〈표 6-6〉 불안 대처방식별 사회적 불안 상중하 수준	180
〈표 6-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후기 중년의 단체·모임활동	182
〈표 6-8〉 단체·모임활동에 참여한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	183
〈표 6-9〉 단체·모임활동에 참여한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 상중하 수준	184
〈표 6-1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관계망	186
〈표 6-11〉 사회관계망 유무별 불안 수준	187
〈표 6-12〉 사회관계망이 있는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 상중하 수준	188
〈표 6-13〉 기초통계	189
〈표 6-14〉 후기 중년의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191
〈표 6-15〉 45~54세 집단의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194
〈표 6-16〉 55~64세 집단의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197
〈표 6-17〉 사회참여와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인식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199
〈표 6-18〉 소벨 테스트를 통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199
〈표 6-19〉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 인식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200
〈표 6-20〉 소벨 테스트를 통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201
〈표 6-21〉 후기 중년의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 간의 사회관계 조절효과: 사회관계(망) 유무	203
〈표 6-22〉 후기 중년의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 간의 사회관계 조절효과: 사회관계 크기	206
〈표 7-1〉 사회적 불안 완화의 주요 주체에 대한 인식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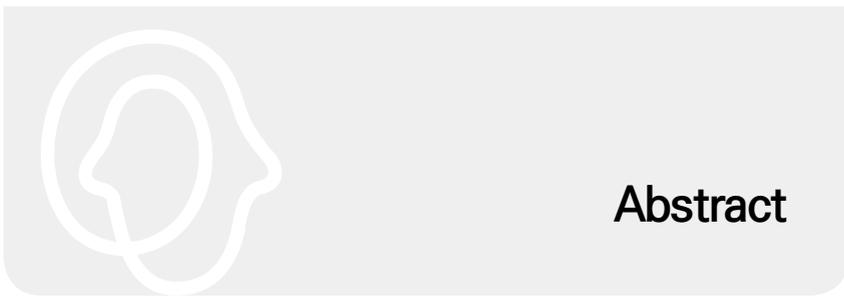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2
[그림 2-1] 사회적 불안 관련 개념의 초점 단위 비교	22
[그림 2-2] 연령집단의 구분과 조사대상의 구분	31
[그림 2-3] 후기 중년 연령집단의 비율변화	33
[그림 3-1] 불안 수준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	78
[그림 3-2]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의 영향에 대한 분석	80
[그림 3-3] 개인 불안과 불안의 삶에 대한 영향 인식	81
[그림 4-1] 연구모형	90
[그림 4-2] 개인 심리·불안 잠재계층 수 증가에 따른 AIC, BIC 변화	102
[그림 4-3] 사회 불안의 잠재계층 수 증가에 따른 AIC, BIC 변화	103
[그림 4-4] 개인 심리·불안에 대해 분류된 잠재계층의 특성	104
[그림 4-5] 전체 평균 대비 개인 심리·불안 잠재계층 유형별 반응패턴	105
[그림 4-6] 사회적 불안에 대해 분류된 잠재계층의 특성	106
[그림 4-7] 전체 평균 대비 사회적 불안 잠재계층 유형별 반응패턴	107
[그림 4-8] 불안이 개인 삶,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 문항	119
[그림 5-1] 생애과정 관점에서 중년층의 위치	128
[그림 5-2] 2022년 현재 후기 중년이 경험한 사회경제적 사건(1958~2022년)	130
[그림 5-3]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 돌봄과 노후준비, 사회적 불안의 관계	132
[그림 5-4] 귀속지위와 획득지위의 관계: 20세 이전 시점 소득계층별 분포	138
[그림 5-5] 20세 이전 소득계층에 따른 돌봄 부담, 은퇴, 노후준비 현황	139
[그림 5-6] 현시점 소득계층에 따른 돌봄 어려움, 은퇴, 노후준비 현황	141
[그림 5-7] 귀속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143
[그림 5-8] 획득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145
[그림 5-9] 귀속지위에 따른 영역별 불안 수준	146
[그림 5-10] 획득지위에 따른 영역별 불안 수준	148
[그림 5-11]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종과업 유형	149
[그림 5-12]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종과업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151



[그림 5-13] 생애 경험 누적 횟수에 따른 이중과업 유형 분포	160
[그림 5-14] 생애 경험과 이중과업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163
[그림 6-1] 후기 중년 연령별 불안 대처방식	176
[그림 6-2] 단체·모임활동 참여 유무별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	183
[그림 6-3] 사회관계망 유무별 불안 수준	187





Abstract

The Social Insecurity Perceptions and the Implications for Social Policies

Project Head: Lee, Hyon J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vel, contents and related factors of social insecurity perception. As the fourth year research of five-year studies on “Korea’s Social Insecurity Perception and the Implications for Social Policy,” this study was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the aged 45 to 64 and quantitative analyses with the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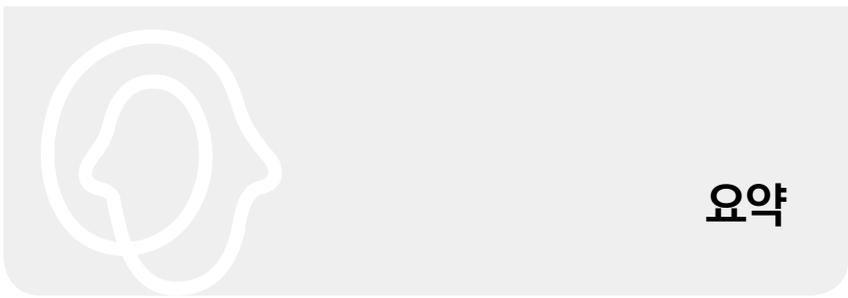
The questions were highly reliable to measure the social insecurity perception, areas of social insecurity perception are ‘unfairness and distrust of the government’, ‘competition’, and ‘social incident/accident’.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social insecurity is, the more likely it is to be perceived of a negative impact on social development

As a result of a combination analysis of individual psychological anxiety and social insecurity perceptions, it was found that a person with a high level of psychological anxiety is less likely to be a stable group in the perceived social insecurity. But a high level of social insecurity perception is relatively combined with high level of psychological anxiety.

2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45~64세 집단의 사회적 불안

Social insecurity perception are influenced by high level of burden of caring and preparing for retirement,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nd economic difficulties. As the coping mechanisms, the level of social participation and the size of social support network are effective on the social insecurity perception.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the group aged 45-64 has a higher rate of using professional services such as psychological counseling. In closing, implications for social policy are summarized and research planning for fifth year study are introduced.

Keyword : social insecurity perception, middle age, anxiety, social policy



요약

사회적 불안 인식은 단순히 개인의 경험이나 문제로 치환되기 어려운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사회적 불안 인식을 초래하는 요인들이 다분히 사회경제적인 것이고, 사회적 불안 인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고조될 때 사회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과 요인을 규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5년간 수행된 연구 중 4차 연도 연구인 2022년 연구에서는 45~64세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을 조사하고 계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조사 자료의 분석에 앞서 사회적 불안 인식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해당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였으며, 사례 면담,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 회의, 예비조사 등의 내용을 기초로 조사표의 개발과정을 소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45~64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이 높았다. 척도화된 불안 인지의 수준은 평균 3.8점으로 '불안하다'에 가까웠다. 추상적인 질문,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단문에 대한 답은 평균 4점이 넘었다. 그리고 '불안하다'는 4점 이상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38.2%였다. 연령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45~54세 집단의 불안 인식 수준이 55~64세 집단의 불안 인식 수준보다 높았다. 불안의 영역별로 보면,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이 가장 높아 평균 4.00점이었고, 이 영역에 관한 45~54세 집단의 불안 인식 수준은 4.03점이었다. 개인의 정서적 불안은 사회적 불안 인식의 영역 중 '경쟁/도태 불안'과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사회가 불공정하고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과 관련한 불안이 개인적 불안을 높인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한편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회 발전에 이러한 사회적 불안 인식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

사회적 불안은 대개 자신이 직접 및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사건들로 유발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사회 불안이 반영되어 개인 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사회적 불안 인식과 개인 심리·불안의 관계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약 59%가 개인 불안에서 안정형 집단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소수이긴 하나 약 3.1%가 자존감 및 회복성 등 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은 특성과 함께, 높은 개인 불안 수준을 보인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개인 심리·불안 유형과 사회적 불안 인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개인의 심리·불안이 높은 사람이 사회적 불안 인식이 안정적일 가능성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의 심리·불안 상태가 안정적인 사람들도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대해서는 불안한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사건과 차별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개인 심리·불안 수준이 부정적인 특성을 보였다. 이 중 주목할 점은 불안 영역 중 '경쟁/도태 불안'과 관련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개인 불안 수준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점이다.

제5장에서는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귀속지위와 획득지위로 구분한 사회경제적 지위(20세 이전 소득계층, 현시점 소득계층,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사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생애 박탈 경험, 그리고 생애과정 관점에서 중장년기의 이중과업 특성을 노후 준비 여부와 가족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유형화하여,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지

위와 생애 경험, 이중과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20세 이전 시점에 소득하위계층인 경우 사회경제적 사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고, 가족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과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집단에 속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불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소득이 하위계층이고,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누적 횟수가 많은 경우, 그리고 이중과업으로 인한 부담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다.

제6장에서는 후기 중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대처하는 방식과 양상, 그리고 사회관계와 사회적 불안에 대한 사회관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후기 중년은 전문적 도움(의료적 도움, 심리상담)과 여가·문화·종교 활동 등을 통해 불안에 대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참여 증에서, 후기 중년은 친목모임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종교모임,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 그리고 정치·사회모임 순으로 참여하였다. 대체로 단체·모임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회적 불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관계망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 불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사회관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후기 중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불안은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 자아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검증되었다. 사회참여가 사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 사회관계(망) 유무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치·사회모임과 사회관계의 상호작용항만 '경쟁/도태 불안'과 양의 관계를 보였다.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 사회관계 크기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치·사회모임과 사회관계 상호작용항, 그리고 경쟁/도태 불안 간의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제7장에서는 주요 분석 결과들을 근거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연령층의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으므로 근로연령층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이해, 사회적 불안 인식과 관련된 요인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 인식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공정성 회복, 정부 신뢰 회복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기 위하여 불평등의 심화에 대응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개인의 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국민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의 내면적 측면만에 한정하여 정책을 펴기보다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넷째, 후기 중년의 경우 돌봄 부담을 낮추고 노후준비의 부담을 낮추는 지원에 주목하여야 한다. 사회적 불안 인식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선별주의 제도로 한정한 제도 구성을 탈피하고 보편적 제도를 보강하는 사회정책 확충 방향을 재설정할 것, 사회정책의 기획과 운영에서 투명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고 체계적 대응을 우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사회정책 중 ① 심화하는 불평등에 대한 대응, ② 중년과 청년의 고용안정화 및 중년의 재교육 강화, ③ 자녀교육과 노인인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 등 지출보전을 위한 서비스 강화, ④ 고립의 예방과 공동체 강화, ⑤ 생계형 사고에 대한 대응 보강, ⑥ 정신보건서비스 강화 그리고 여가 및 각종 사회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요 용어 : 사회적 불안 인식, 후기 중년, 불안, 사회정책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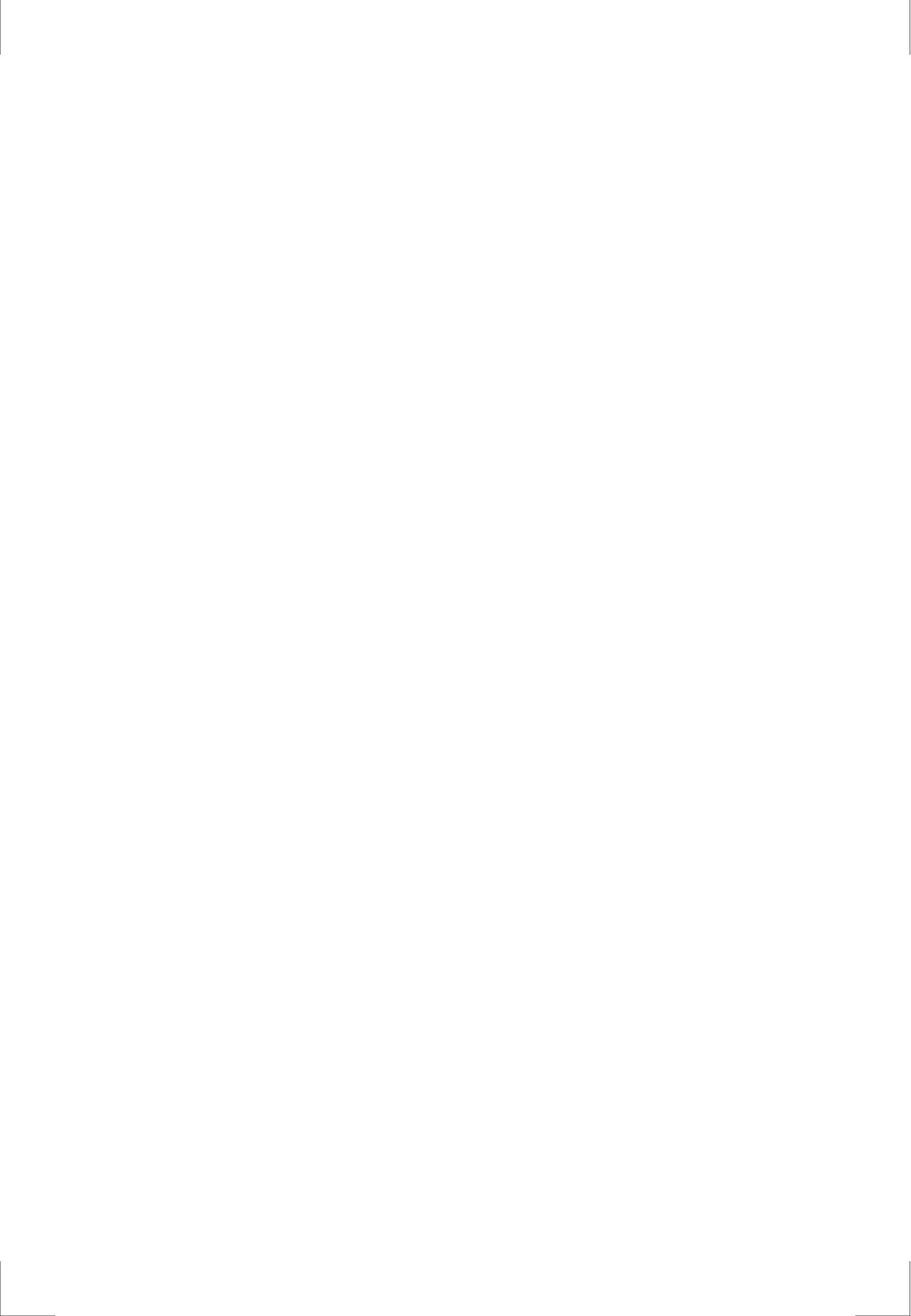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과 주요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기대효과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구성원이 인지하는 사회적 불안의 수준과 내용을 파악하고 사회적 불안의 요인을 규명하여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시작되었다. 2022년에 수행한 이 연구는 5년간 진행되는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중 4차 연도 연구로 45~64세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 해당 연령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불안에 대하여 규명하고 있다.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불평등에 대한 인식, 사회경제적 환경 악화의 심리적 영향,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치역학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후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수준의 불안 (social unrest)의 고조와 그 영향에 대한 국제기구의 관심이 높아졌고, 학계에서는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시장소득의 불평등도 심화되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노동을 통한 소득의 분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회구성원의 불안 인식도 높아질 위험이 크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불안의 수준과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할 때 더욱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2) 연령집단별 설문조사의 시행 시점은 11쪽의 ‘〈참고〉 연도별 기획’을 참고하기 바란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충분한 수준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보장제도도 최근 20~30여 년 동안 적지 않은 확충을 해왔다.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안이 그리 낮지 않다는 증후들을 목도하고 있다. 반복되는 생계형 사건 사고와 높은 자살률이 대표적 증후라 하겠다. 한편 높은 경제성장과 대비되어 낮은 삶의 질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민낯으로 자주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지표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이 높을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사회적 불안은 극빈층만 경험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적 불안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사건은 2015년 한 일간지에 보도된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사회적 불안이 상당한 수준에서 넓게 공유된 것으로 추정케 한다.

“실직한 가정이 가게 파탄에 대한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와 두 딸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정은 명문대 출신에 고액 연봉을 받았으며, 직장을 그만둔 뒤 빚을 지긴 했지만 서울 강남에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그는 “가족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가족을 죽였다고 했다(한준규, 2015. 3. 23.).”

통상 사회 수준의 불안과 개인적 불안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사회경제적인 불안정이 개인의 불안 인식을 악화시키고, 개인의 불안 인식이 악화되면 사회경제적인 발전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바로 국제사회와 학계가 사회적 불안 인식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이해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에 관한 연구는 일천하다. 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골간으로 한다. 한국의 사회적 불안을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2019년의 질적 연구를 시작으로, 이후 연령집단별 설문조사를 수행해왔다. 2022년에는 후기 중년(45~64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참고〉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의 연도별 기획

1차 연도(2019)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2차 연도(2020)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실태조사: 청중년(19~44세)의 사회적 불안

3차 연도(2021)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실태조사: 노인(65세 이상)의 사회적 불안

4차 연도(2022)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실태조사: 후기 중년(45~64세)의 사회적 불안

5차 연도(2023)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정책의 과제(예정)

전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포괄하는 조사를 한 번에 수행하지 못한 것은 각 연령집단별 특성이 상이하여 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사의 설계이 기도 하였으나, 조사를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조사환경의 악화에 대응하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였다. 2023년 5차 연도의 연구에서는 전 인구집단에 대한 사회적 불안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비교, 종합하여 정책적, 학술적 논의를 심화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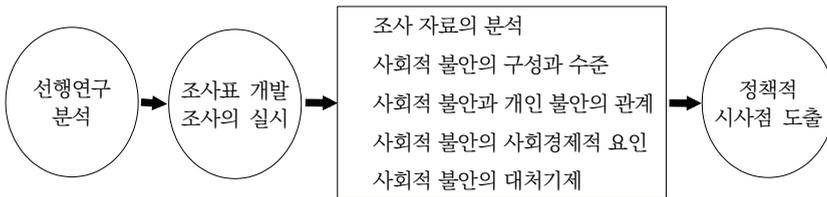
이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기 연구로 설계된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안이 갖는 특이성을 이해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 구성원이 경험하는 사회적 불안의 수준과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 정책적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2022년에는 45~64세 집단(후기 중년·준고령

집단)의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과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 있다. 후기 중년의 세대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 부담, 은퇴 후 노후준비 등을 요인으로 추가 고려하여, 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 정책적 과제를 정리한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구상의 방향과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제2절 연구의 구성과 주요 내용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제1장의 서론이다. 서론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 등 연구의 개요를 소개한다. 두 번째 부분은 연구의 본론 중 첫 번째 장, 제2장인데,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와 설문조사표의 개발 등 조사의 개요를 소개한다. 선행연구의 검토는 주요 연구주제별로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함의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의 개요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심층적인 사례 면담과 전문가 자문회의, 예비조사 실시 등 조사표의 개발과정과 조사표의 내용 구성, 그리고 조사의 표본구성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세 번째 부분은 본격적인 계량분석을 실시하는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으로 각 장은 별도의 주제를 다룬다. 제3장에서는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인지한 사회적 불안의 영역을 구분한 뒤 내용을 탐구하고, 사회적 불안의 수준을 파악한다. 한편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요인별 사회적 불안의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사회적 불안 인식의 사회 발전에 대한 영향 인식을 불안 수준별로 분석하여 사회적 불안 인식의 잠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 사회적 불안의 인식 수준은 어느 수준으로 이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탐색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불안이 사회적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사회경제적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제4장에서는 인지한 사회적 불안과 개인의 불안의 관계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하였다. 사회적 불안은 개인의 불안과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선행적 연구들은 적지 않다. 개인 불안과 사회 불안 인식의 수준별 비교분석을 통하여 집단을 재구성하고 각 집단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사회적 불안 인식을 포함하여 관련 요인들의 개인의 심리·정서적 불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사회경제적인 특성이 사회적 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였다. 사회정책에서 사회적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또는 대응하여야 하는 지점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염두에 둔 분석이다. 주요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후기 중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후준비, 돌봄 부담, 건강 특성을 주된 요인으로 포괄하였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분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석대상 집단을 하위로 구분했는데, 집단 구분의 결과가 상이하다. 독자의 이해를 위하여 집단 구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제4장의 경우

에는 개인의 심리정서적 불안 관련 특성과 사회적 불안 인식 관련 특성을 기준으로, 잠재적 집단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각각 4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 집단을 교차하여 분석대상 집단을 재구성하였다. 제5장에서는 45~64세의 연령집단을 사회적 사건의 경험을 고려하여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제1차 베이비부머 집단, 제2차 베이비부머 집단, 그리고 X세대로 구분하였다.

〈표 1-1〉 본론의 장별 분석 주제와 분석 내용 소개

분석주제	주요 분석 내용
사회적 불안의 구성과 수준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요인별 불안의 수준
사회적 불안과 개인 불안의 관계	사회적 불안과 개인 불안에 대한 잠재적 집단 분석, 개인 불안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관련 요인의 영향 분석
사회적 불안의 사회경제적 요인	돌봄 부담, 노후준비, 후기 중년의 생애경험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영향 분석
사회적 불안의 대처기제	사회적 불안 수준에 따른 대처기제, 사회적 불안에 대한 대처기제의 영향 및 자아존중감,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 조절효과 분석

제6장에서는 사회적 불안의 대처기제를 초점으로 ‘주로 사용하는 대처기제’와 대처기제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리고 대처기제가 사회적 불안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연구의 마무리로 주요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편 사회적 불안의 인식을 연구함에 있어 향후 진행할 논의의 주요 지점들도 함께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리는 이 연구의 제5차 연도 연구의 내용을 구상하는 기초 정보로 활용하였다.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기대효과

1. 연구의 방법

이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설문조사와 해당 조사 자료를 활용한 계량적 분석이다. 이와 더불어 설문조사를 위하여 기존의 문헌들에 대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고 사례 면담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병행하였다.

〈참고〉 주된 연구방법

문헌자료의 수집과 내용분석
 사례 면담, 전문가 자문회의, 일선 전문가 FGI
 설문조사와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계량적 분석

문헌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사회적 불안의 인식과 관련된 해외 연구들을 수집, 분석하였다. 사회적 불안 인식 또는 인지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집하고, 해당 연구에서 불안 인식을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관련 요인으로 어떠한 요인을 고려하였는지를 정리하였다. 둘째, 중년의 불안에 대하여, 그리고 중년의 사회적 불안의 요인과 관련된 국내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셋째, 사회적 불안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 연구들을 정리, 소개하였다. 이 부분은 이 연구의 제1차 연도 연구와 제2차 연도 연구의 해당 부분을 재정리하여 소개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조사표의 개발과 조사의 수행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사례의 면담과 전문가 자문회의, 그리고 실무전문가 FGI는 조사표의 개발과정에서 적극 활용한 연구방법이다. 물론 해당 내용은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의 해석에서도 유용한 기초 정보가 되었다.

심층적인 사례의 면담은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령과 가족구성, 취업상태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면담가이드를 마련하여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면담가이드는 후기 중년의 특징을 고려하여 사회적 불안의 인지 정도, 관련 요인, 이와 관련된 의견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발하였다. 전문가 면담은 실무전문가와 학계의 사회적 불안, 사회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이라는 현상과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에게 자문 의견을 구하였다.

설문조사는 1,200명을 표본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은 성, 연령, 지역, 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점검하였으며, 이후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온라인 조사는 감염병의 확산을 우려한 선택이었으나 이로 인하여 조사표본의 규모가 커질 수 있었다. 설문조사는 2022년 8월, 약 한 달 동안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자료에 대한 계량적 분석은 인지한 사회적 불안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개괄뿐만 아니라 개인 불안과 사회적 불안의 관계,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대처기제 등 주요 주제별로 이루어졌다. 계량적 분석은 기술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잠재적 집단 분석, 회귀분석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장별로 소개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연구의 기대효과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는 정책적인 측면의 기여이고, 다른 하나는 학술적 측면의 기여이다.

정책적 기여로 기대되는 내용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사회정책의 기획에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빈곤 진입, 장기빈곤 및 돌봄 수요에서 상대적으로 악조건에 있는 45~64세 집단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사회정책의 기획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도 후기 중년 집단은 최근 고용불안, 알코올 의존이나 기타 건강상의 문제 경험, 고립의 위험 악화 등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집단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연령집단에게 사회적 불안을 높이는 주요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이해는 비단 사회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사회정책 외 우리나라 정책기획, 정책의 집행에도 일반적으로 고려할 만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의 2차 연도 자료 분석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정책 확충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변화 속도가 불안을 일부 가중시켜서,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정책 확충의 긍정적 영향을 반감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정부 신뢰가 사회적 불안 인식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정부 불신 영역의 불안 인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의 확충뿐만 아니라 정치, 정책운영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 불안을 완화할 여러 가지 다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 수행된 이 연구에서도 사회정책, 정책 일반에 대한 확충 방향, 운영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몇 가지 점에서 이 연구의 학술적 기여도 기대된다. 이유는 사회적 불안 인지에 관한 국내 연구가 일천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불안의 인지를 어떻게 측정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불안 인식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후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는 관련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개인의 불안에 대한 이해에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를 더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관리와 관련하여서도 유용한 이론적 정보, 분석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사회적 불안 인식, 개인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불안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후기 중년의 불안에 대한 이해에는 이 연구의 이론적 기여가 더 주목된다. 한편 분석에 투입하는 변수의 포괄성뿐만 아니라 후기 중년 집단의 과업을 고려한 요인의 영향을 분석했으므로 우리나라 후기 중년의 특이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종합하면, 사회정책의 수준과 내용이 상이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 인식이 갖는 특이성을 가늠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물론 국외의 사회적 불안 인식과 비교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정하는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특이성을 논의할 것이지만, 이러한 분석은 이후 연구에서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와 조사의 설계

제1절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제2절 조사표의 개발과 조사의 개요



제 2 장 선행연구의 검토와 조사의 설계

제1절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 개념 정의와 측정

가. 관련 개념과 개념 정의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조사, 분석하는 사회적 불안을 정확하게 명명하자면, 사회구성원이 느끼는 사회적 수준의 불안으로 주관적 사회경제적 불안(subjective socio-economic insecurity), 사회적 불안 인식(social insecurity perception)에 가까운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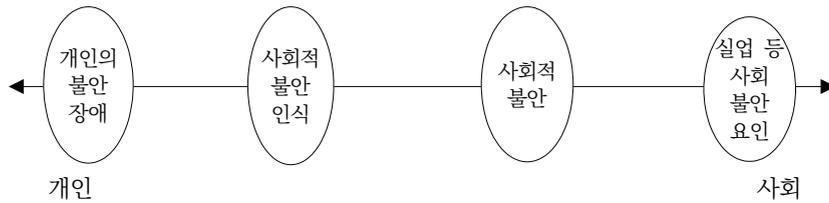
사회적 불안을 정의하는 두 가지 접근이 대별된다. 하나는 개인 단위의 불안에 초점을 맞춘 정의(anxiety disorders, social anxiety 등)가 있다. 불안장애(anxiety disorders)는 불안과 공포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신의학적인 개념이다. 사회적 불안(social anxiety)은 사회적 활동,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두려움이 크고 정상적인 관계와 활동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두 개념 모두 개인의 정서, 정신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 단위에 초점을 맞춘 정의로, 사회적 불안의 객관적 조건과 이로 인하여 사회 단위로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정(social unrest)이 있다.³⁾ 사회적 시위의 빈도 등을 측정도구로 하여 사회적 불안정은 국

3) 설명한 두 가지 입장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이현주, 광윤경, 전지현, 구혜란, 변금선 (2020)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제기구(OECD, ILO, IMF 등)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 불안 인식과 시위 발생 빈도 등으로 측정되는 사회적 불안은 모두 실업의 증가, 불평등의 악화 같은 사회 불안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한편 이 모든 세 가지는 사회구성원 개인 수준의 불안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차원은 서로 상이하지만 아래의 그림과 같이 사회적 불안의 제 측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림 2-1] 사회적 불안 관련 개념의 초점 단위 비교



“사회적 불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그 자체로 도전적이다. 다소 새로운 개념 정의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볼 사회적 불안은 사회적 불안에 대한 앞의 두 가지 정의의 중간지점에 위치한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정의를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경험하는 기분이나 경험으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인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p. 40 참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연구는 사회구성원이 인식한 사회적 불안, 주관적 사회경제적 불안에 주목하고 있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불안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관련 연구들은 주로 독일 배경의, 구체적으로 브레멘 대학 출신 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사회적 불안 인식에 관한 연구들은 국민이 느끼는 사회경제적 불안의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들이다. 연구들은 사회적 불안(social unrest)에 관한 연구가 추진된 맥

락이 매우 유사하다. 2008~2009년 경제위기 이후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에 더하여 인식이나 태도의 의미에 주목하게 된 접근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취한 대표적인 연구주제는 고용불안으로 인식된 고용불안(perceived job insecurity), 주관적 고용불안(subjective job insecurity)이 있다.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조건과 심리가 연관되는 지점, 정치 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사회경제적 문제 양상의 원인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완화시킬 힘의 원천을 찾는 여정에서 인식이나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그 근거에는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조건과 사회구성원의 인식이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이해가 자리하고 있다.⁴⁾

에른스트 디터 란터만(2019)은 ‘개인의 불안 수준이 고조되면 공동체의 약화, 개인주의의 왜곡이 초래되고 사회구성원이 급진주의나 광신주의로 기울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고(에른스트 디터 란터만, 2019; 이현주 외, 2020. p. 37에서 재인용), 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은 “높은 수준의 불평등은 많은 사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하며,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전망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다”고 경고했다(OECD, 2015, pp. 12-13; 이현주 외 2020, pp. 30-31에서 재인용).

이러한 입장은 매우 오래 전에 시작된 것이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들은 과거 1952년 라우터바흐(Lauterbach)의 연구에서 다른 내용과 연관되는 것이기도 하다. 라우터바흐(1952)는 사회경제적 불안정(instability)이 개인적인 불안(insecurity)에 영향을 주고 개인적 불안이 사회경제적 불안정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두 가지 불안의 유

4) 이러한 배경에 대한 설명은 Hadarics, Kende, & Szabó(2021)의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형과 징후들에 대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그는 저축, 지출, 투자 같은 행태의 변동이 단순히 과거의 경험이나 개별 사업체 또는 가구의 객관적인 상황보다는 사회구성원의 전망 인식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설명한다(Lauterbach, 1952, pp. 35-38). 사회경제적 안정이 무조건 좋거나 나쁘다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 불안정성이 산업의 효율성에 긍정적인가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당시 사회경제적 불안정의 원인이나 유형을 경쟁 과정, 경기순환(business cycle), 실업, 주택 부족, 노인문제, 과학과 기술의 사회경제적 영향, 산업화된 전쟁(industrialized warfare)으로 구분, 제시하였다(Lauterbach, 1952, pp. 35-37). 사회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 분위기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 사회 집단마다 영향은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높고, 좌절을 야기하는 객관적인 요인들도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Lauterbach, 1952, pp. 38-39). 한편 사회경제적 불안정은 객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는 개인과 집단에게도 불확실성과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하였다(Lauterbach, 1952, p. 38).

경제위기 이후 사회구성원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그 이면에는 개인적 인식과 사회경제적 상황의 상호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그러면서도 개인의 인지가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조건과 일정 정도의 거리는 갖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에 대한 수용이 존재한다. 사회구성원의 인식과 태도를 주제로 한 연구는 적지 않다(Hadaricsq, Kende, Szabó, 2021; Rodriguez-Bailon et al., 2017 등).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고용불안정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연구 경향의 대표적인 주제들이다. 고용불안정 인식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인식이 개인의 웰빙, 직무몰입이나 근로동기에, 그리고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해당 연구의 중요성을 피력한다(Chung & Mau, 2014, pp.

308-309). 한편 해당 연구들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주관적인 고용불안 인식이 미래의 실업에 대한 상당한 예측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Green, Dickerson, Carruth, & Campbell, 2001; Stephens, 2004; Mau, Jan, & Nadine, 2012, p. 657에서 재인용).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불안, 불안 인식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는 2010년대 이후 수행된 세 편의 연구를 언급할 수 있다(Akaeda & Schöneck, 2022, Chung & Mau, 2014; Mau, Jan, & Nadine, 2012).

Akaeda & Schöneck(2022)은 유럽 17개 국가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2008/09 및 2016/17에 실시된 4차 및 8차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의 데이터(이하 ESS4 및 ESS8)를 활용한 국가비교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2008/09년의 경제위기 이후 각국 국민의 사회경제적 불안 인식과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 특히 사회경제적 요인과 복지제도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Akaeda & Schöneck은 사회경제적 불안을 탐구하려면 객관적 불안과 주관적 불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객관적인 불안정 상태는 재정적 부담 및 절대적 궁핍 같은 실제 문제를 나타내는 반면(Ranci, Parma, Bernardi, Beckfield, 2017; Akaeda & Schöneck, 2022에서 재인용), 주관적인 불안 상태는 실제 문제에 선행할 수도 있고 객관적인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험된 위협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Akaeda & Schöneck은 주관적인 불안, 즉 인식된 사회경제적 불안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로 두 가지 점을 언급하였다. 첫째, 많은 연구에서 사회 경제적 불안에 대한 주관적 인식(예: 직업 및 소득 걱정)이 객관적 조건보다 더 두드러진다는 점을 보여주었지만(Helbling & Kanji 2018; Akaeda & Schöneck, 2022에서 재인용), 이 점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양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전 연구

(Chung & Mau, 2014 등)에서 보여주었듯이 인식된 사회경제적 불안이 복리(well-being), 업무 몰입 또는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같은 다양한 결과와 관련이 있다. 이 점도 사회적 불안 인식을 주목하여야 하는 이유이다(Akaeda & Schöneck, 2022. p. 313).

Akaeda & Schöneck(2022)은 유럽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경제적 수준, 불평등, 실업률, 복지지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지출, 고용보호지수 등의 변수를 투입하고 성, 연령, 학력, 실업 경험, 고용안정, 소득 같은 개인의 변수도 분석에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 수준은 불안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국가 내 불안에는 영향이 분명하지 않았다. 실업은 국가 내 종단분석 시 불안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보장지출수준은 해당 지출이 높은 북유럽 국가에서 불안이 낮았으나 높은 지출수준이 불안을 낮추는지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구성원의 기대 상승을 유발하거나 또는 불안 수준이 높아 이 불안 수준이 사회지출의 상향조정을 촉발한 것인지 해석이 모호하다고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

Chung & Mau(2014)는 국가의 법과 정책이 사회구성원의 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제도와 주관적 불안 인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고용불안정 인식과 관련이 있는 각종 제도적, 계층적 요인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사회적 불안 인식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국가 단위의 요인, 국가 내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 한편 관련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고민할 거리들을 던진다.

Mau, Jan, & Nadine(2012)은 이전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제도적 조건이 주관적인 불안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GDP, 노동시장 특성, 사회보장 수준, 세

계화의 수준 같은 객관적 맥락 요인이 주관적 불안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이 연구는 국가 단위의 제도 요인의 영향뿐만 아니라 국가 내부의 계층별로 전자에서 언급한 요인의 영향이 상이할 것이라 전제하고 거시적 요인의 조절효과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GDP) 수준 및 제도적(복지국가 노력) 요인이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불안과 관련되는 반면, 국제화의 정도(경제 세계화, 외국인 출생 인구의 비율)는 의외로 영향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요인들의 사회보장제도와 상호작용 효과는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인종의 국가 응답자는 이민 수준이 낮고, 사회지출이 적은 국가의 응답자보다 불안이 낮았다. 사회계층은 국가적 수준의 변수와 함께 사회적 불안에 상호작용 효과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해당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여부와도 관련성을 갖고 있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 중 하나는 불평등의 영향을 확인한 것인데 사회 계층과 상황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소득 불평등이 불안정 인식과 관련하여 계층 차이를 악화시킨다는 것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불안 인식에 대한 연구가 갖는 의미와 국가 단위, 국가 내 요인의 중요성, 구체적 요인에 대한 고려방식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들이 사용한 자료에서는 사회경제적 불안을 본격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주로 고용불안과 경제적 박탈 관련 문항 3~4개로 사회경제적 불안 인식을 대리하고 있어, 중요한 종속변수인 사회경제적 불안 인식에 대한 파악에 적지 않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국내 계층적, 개인적 요인의 영향이 사회경제적 불안 인식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는 점이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바 있어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불안의 정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국내 원인을 정확하게 파

악하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이 본 연구의 차별성이자 강점이라고 하겠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의 수준을 주요 요인으로 두고 주관적 인식에 대한 영향을 국가비교 방식으로 국가 수준과 개인 수준에서 분석하는 연구인 데 반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구성원의 인식으로 한정,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요인도 사회구성원이 인지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가 내 관련 요인을 제도적 요인(수급 여부 등)과 계층적 요인뿐만 아니라, 특정 연령집단이 겪는 사회경제적 경험을 고려하여 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련 요인을 좀 더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 점에서 사회경제적 불안 인식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개입 지점을 찾는 데 유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나. 사회적 불안의 측정

사회경제적 불안 인식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불안의 측정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다. 앞에서 언급한 계량적 연구 두 편은 모두 유럽사회조사 중 관련된 서너 개 이내의 문항으로 주관적 사회경제적 불안의 측정을 대신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실업자가 될 위험 인식 같은 고용불안 인식, 물질적 박탈 인식,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 접근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문항으로 사회경제적 불안 인식 조사를 대체하고 있다. 결국 고용, 보건의료, 그리고 생계와 관련된 한두 문항으로 사회경제적 불안 인식의 측정을 대신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국가비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사 자료가 갖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불안 인식을 조사 분석하고 있으며

로 별도로 사회경제적 불안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구성할 수 있었다. 사회경제적 불안 인식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주로 사회경제적 불안 인식을 측정하는 시도를 한, 측정을 초점으로 한 연구가 다수이다. 최인철, 김범준(2005),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2004), 이훈구(2004)의 연구가 대표적이다.⁵⁾ 최인철, 김범준(2005)은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2004), 이훈구(2004)의 연구를 기초로 사회적 불안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최인철, 김범준(2005)은 2년에 걸친 조사, 분석 결과에 기반으로 '통제감 상실', '사회 공정성 불신', '사건·사고 등에 대한 취약성'의 3개 요인(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된 사회 불안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들은 또한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수준이 사회 불안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분석한 결과, 신뢰가 사회 불안의 총점뿐 아니라 개인의 취약성, 공정성 불신, 통제감 상실 등의 하위 영역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2004)는 사회적 불안의 측정도구를 개발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사회구성원이 사회적 실존에 대한 불확실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또는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고, 인지, 지각을 중심으로 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 바 있다. 전문가 조사로 68개 문항을 선정하고, 조사를 거쳐 40개 문항을 최종 확정하였는데, 개인적 불안, 경제적 불안, 공정성 불안, 미래 불안, 불신 불안, 안전 불안, 사회문제 불안, 정치 불안으로 구성하고, 반응-예견, 유관-불유관으로 사회적 불안의 하위 차원을 구성하였다. 이훈구(2004)의 연구에서도 예비조사와 요인분석, 타당도 검사를 거쳐 사회적 불안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는 14개 요인, 49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5) 이 연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이현주 외(2019)의 pp. 59-71와 이현주 외(2020)의 pp. 51-56, 67-71을 참조하기 바란다.

개발하고 사회 불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사회 불안의 영역을 정치, 경제, 남북, 노사, 교육, 빈부격차의 문제영역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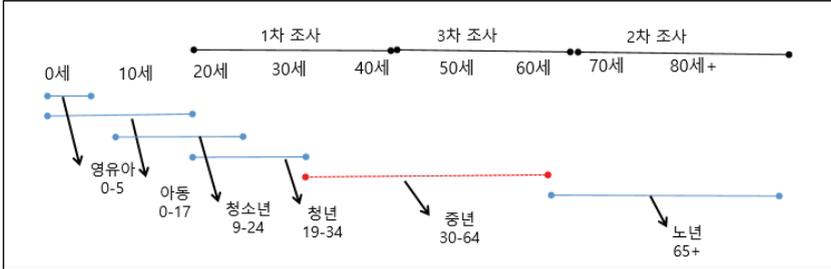
상기 연구는 대개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앞서 진행된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불안을 조사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는 척도에서 일반적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설문문항을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2.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과 요인

가. 후기 중년(45~64세)의 구분과 의미

이 연구는 45~64세 연령집단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편의상 이 연령집단을 '후기 중년'으로 칭하기로 한다. [그림 2-2]를 보면 이 연구에서 설문조사가 3차 연도의 기획으로 분리,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차 조사는 전체 연구의 2차 연도인 2020년에 19~44세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연령집단은 편의상 '청·중년'으로 칭하기로 한다. 3차 조사는 2021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림 2-2] 연령집단의 구분과 조사대상의 구분



청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의 연령 구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구분된다. 상대적으로 중년, 후기 중년의 연령 구분은 모호하다. 여러 연구에서 중년의 연령을 구분하고자 시도한 바 있다. 중년여성을 40~59세로 구분하기도 하고(유창민 2018, 허수진, 허재홍 2017), 또 다른 연구는 중년여성을 45~64세로 구분하기도 하였다(손정남, 2018, 박순희 2021). 특정 연령집단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연령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연령의 구분에는 행정적인 연령 외,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적 활동 능력 등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연령별 인생과업이 더 다양해지고 있고 같은 연령 내에서도 상이한 과업을 맞이하고 있어 연령 구분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45~64세, 청·중년과 노년의 사이를 후기 중년으로 구분하였다.

청년은 최근의 고용불안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취약성의 악화로 인하여 정책대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중년은 청년이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주목되기 이전부터 사회경제적인 취약성을 지닌 집단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중년은 전통적으로는 사회정책에서 주목하는 주요 대상이 아니었다. 즉, 중년에 속하는 이 연령 집단을 구분하고 명명하게 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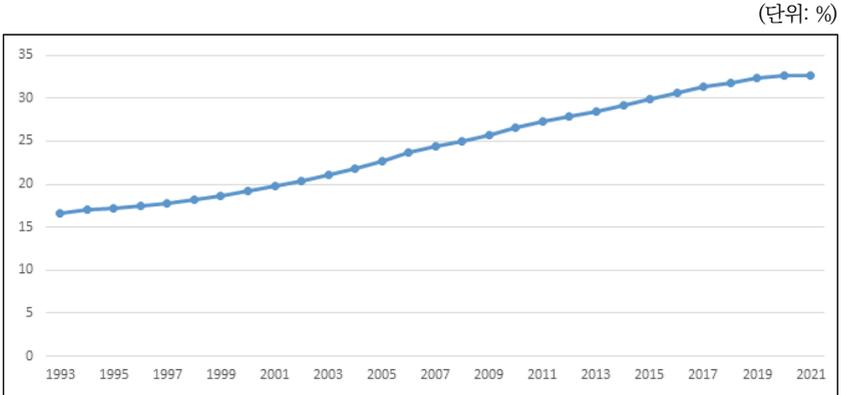
중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 ① 평균수명의 연장
- ② 해당 인구집단의 규모 변화
- ③ 해당 인구집단의 문제가 갖는 파급력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아동과 노년기 사이의 연령집단도 구분이 필요해진 것이다. 아동과 노년 사이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해당 시기의 생애과업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연령집단의 생애과업은 다른 연령집단과 상이한 측면이 존재하는데 경제활동을 하여 사회적, 개인적 발전과 유지를 감당하고, 경제활동을 통하여 한편 아동과 노인을 부양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 연령기의 기간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의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과거와 달리 생애과업을 달성하기에는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밖에도 후기 중년이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현상과 관련된다. 첫 번째는 40~64세 인구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이 연령집단은 꾸준히 증가 중이고, 2021년에는 전 인구 중 해당 연령의 인구가 약 33%에 이른다.

[그림 2-3] 후기 중년 연령집단의 비율변화



자료: 통계청 KOSIS. 주민등록 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vw_cd=MT_ZTITLE&list_id=A_7&scrId=&seqNo=&lang_m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 2022. 10. 12. 인출.

두 번째는 해당 연령집단이 갖는 문제의 파급력이다. 해당 연령은 대개 가구의 사회, 경제생활을 이끌고 있거나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는 자녀 또는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후기 중년 연령의 인구가 경험하는 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우리나라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2000년 44.5세에서 이후 50대 초반으로 변화하여 왔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중·장년층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성인자녀 부양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 부양 때문에 가계가 부담스럽다는 비율은 32%, 그리고 노부모 부양인 경우는 각각 9.7%와 25%의 분포를 보였다(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 2015; 김유경, 2019, p. 75에서 재인용). 즉 해당 연령집단이 경험하는 문제가 복합적인 가능성이 크고, 그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중년의 불안과 관련된 요인을 논하는 뒷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다.

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 인식과 후기 중년의 불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불안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그리 충분하지 않다. 심지어 희소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히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시도한 연구가 민간 조사업체에서 주도한 바 있다. 2020년 11월 Kstat은 ‘국민 불안의식 진단 및 분석’을 주제로 Kstat Report 16호를 발간하였다(Kstat, 2020a). 이 조사에서 분석한 삶·미래에 대한 불안 정도를 성과 연령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20~40대에서 높았는데 남성은 40대에서, 여성은 20대에서 가장 높았다. 불안의 내용을 보면 ‘소득과 일자리 등 경제적 문제’ 불안 정도가 6.1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현재 건강 상태와 병에 걸릴 경우 치료비 문제’(5.88점), ‘살고 있는 동네 주거환경과 집세 등 주거비용 문제’(5.67점), ‘범죄·교통사고·화재 등 안전 문제’(5.51점) 순으로 조사되었다(Kstat, 2020a, pp. 1-2). 이 조사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로 “나 혼자 노력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라서”라는 설명에 동의가 76%, 비동의를 22%로 응답하여 불안의 원인에 대하여 대체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분히 사회경제적 문제임을 인식한 것으로 이해된다(Kstat, 2020a, p. 8). 이러한 인식의 경향은 남녀 모두 40~50대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그러나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또는 내 개인의 삶은 결국 내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고 인식하였다(Kstat, 2020b, p. 1). 이러한 경향은 보수층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Kstat, 2020b, p. 2). 이러한 응답을 종합하면 ‘삶의 불안 원인은 혼자 노력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알아서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의 2020년 조사 결과, 40~50대에서 자주 또

는 항상 불안하다는 응답이 21.9%, 19.5%였으며, 60대 이상에서는 10.8%였다(하채림, 2020. 10. 14.). 중년의 약 1/5이 불안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안장애 유병률은 9.3%이다. 2006년의 6.9%와 비교하여 적지 않은 증가세를 보였다. 기타 주요 정신장애가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다르다. 불안장애 유병률을 연령별로 보면 50~59세가 3.7%로 18~29세(4.0%) 다음으로 높다. 특히 여성은 해당 연령의 유병률이 6.0%에 이른다. 개인의 불안장애와 사회경제적 불안 인지가 다른 개념이라 하여도, 개인 불안과 사회경제적 불안 인식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후기 중년의 사회경제적 불안이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통계이다.

〈표 2-1〉 불안장애 인구사회학적 분포(1년 유병률)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유병률(%)	RSE	유병률(%)	RSE	유병률(%)	RSE	
연령군 (만)	18~29세	4	19.5	1.6	33.8	6.7	22.4
	30~39세	3.6	19.1	2.8	30	4.7	25.2
	40~49세	2.7	20.4	1.7	33.8	3.7	23.3
	50~59세	3.7	15.9	1.4	36.3	6	17.7
	60~69세	2	22.1	1.1	45.4	2.9	25.4
	70~79세	2.1	33.3	-	-	3.9	33.3
결혼\상태	기혼/사실혼/동거	2.6	11.2	1	22.7	4.1	12.5
	이혼/별거/사별	4.6	19.7	3.2	38.6	5.3	22.8
	미혼	3.8	16.4	2.2	23.6	6.2	21
교육	중졸 이하	3	19.6	0.9	58.2	4.3	20.9
	고졸	3.1	12.7	1.6	23.1	4.6	14.5
	대졸 이상	3.2	13	1.7	21	5	16
취업\상태	정규직	2.2	14.2	0.9	24.8	4.5	16.6
	비정규직	4.1	15.6	2.1	28.8	6	18.7
	무직/학생/주부	4.1	13.2	3.5	24.6	4.4	15.4
거주\지역	동	3.1	10.2	1.5	18.3	4.8	11.9
	읍면	3.3	17.5	2.1	28.4	4.6	18.4
소득\수준	기준중위소득 미만	3.7	11.2	2.3	18.9	5	13.3
	기준중위소득 이상	2.7	12.7	1	24.3	4.5	14.8
전 체		3.1	8.8	1.6	15.4	4.7	10.3

자료: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1).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p. 98.

중년층을 초점으로 사회경제적 불안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관련 주제의 연구로는 중년의 우울, 불안 같은 정서적 경험과 그 원인을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구혜란, 구서정(2018)은 장년의 불안을 청년의 우울과 대조하여 세대별 마음 형상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장년세대의 가장 중심적인 정서가 불안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인의 생애사건이나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불안 및 힘들 정서와 정적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서성만, 이미숙(2016)은 '은퇴를 앞둔 장년남성의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연구하면서 장년남성은 50대 초반에는 우울하지만, 60대를 넘어가며 우울이 감소하는 점, 그리고 가족, 친구, 이웃에 의한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 중 이목을 끄는 내용은 사회적 지지 중 이웃 지지, 가족 지지, 친구 지지가 클수록 우울은 감소하지만, 친척의 지지는 우울에 대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친척의 유대가 과거와 달리 약화되고 사회적 지지의 범위가 위축, 변화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대체로 국내의 유관 연구들의 결과로 짐작할 때, 후기 중년집단의 사회적 불안 인식이 낮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 후기 중년의 특징과 사회적 불안 요인

일반적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물질적 환경, 경제활동 상태, 그 밖에 성, 연령, 학력, 가족구조(가족의 고용상태 등) 등이다. 이 연구는 일반적인 요인과 더불어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추가적인 관심을 둔다.

중년은 불안이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불안의 핵심적 요인은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이 높은 집단의 전형은 청소년, 청년집단이다. 미래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연령집단이기 때문이다. 중년도 불확실성이 작지 않다. 신체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조기정년이 빈번하고 건강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년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청소년기의 불안이 성장과 관련된다면 중년의 불안은 쇠퇴와 관련되기 쉽다.

최근 후기 중년이 경험하는 문제가 여러 측면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크게 구분하여 보자면, 신체적 기능 약화, 가구구조의 변화, 경제활동 및 사회적 관계의 위축과 관련된다.

〈참고〉 중년기 주요 변화

- ① 개인의 신체적 변화
- ② 가족구조의 변화, 돌봄 부담의 가중
- ③ 경제활동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

후기 중년의 신체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다. 이 중 갱년기의 주요 신체적 변화와 우울 등 정서적 문제,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신체적 변화는 신체적 변화로 인한 활동능력의 저하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 의료비 부담 등 여러 관련 위험으로 확산되면서 후기 중년의 불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후기 중년의 가족구조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사회서비스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중적인 돌봄 부담을 갖는다는 점이 대표적인 후기 중년의 문제상황이다. 다른 하나는 고령기로 접어들면서 빈번하게 경험하는 문제로, 가족 중 자녀의 독립이나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 등으로 인한 가구규모의 변화, 축소이다. 즉 고립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다.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청년의 입직 시기도 늦어지고 있고, 혼인도 포기되거나 혼인연령이 늦어지면서 자녀의 독립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양육의 책임을 인정하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오랜 시간 자녀 양육을 감당하는 중년의 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 자녀 양육책임의 범위 변화 추이(2003~2018년)

(단위: %)

구분	자녀 고등 졸업 때까지	자녀 대학 졸업 때까지	자녀 취업 때까지	자녀 혼인 때까지	필요하면 언제까지	기타	생각해 보지 않음/ 모르겠음	계(명)
2003	8.3	40.2	11.5	32.1	6.3	0.6	1.0	100.0 (11,106)
2006	8.6	46.3	11.9	27.0	5.5	0.1	0.5	100.0 (10,117)
2009	9.6	49.6	12.2	23.1	5.0	0.1	0.4	100.0 (9,075)
2012	8.9	49.6	15.7	20.4	4.6	0.0	0.8	100.0 (10,058)
2015	10.4	62.4	17.2	8.8	1.2	0.0	0.0	100.0 (10,994)
2018	14.7	59.2	17.4	7.1	1.6	0.0	0.0	100.0 (11,205)

자료: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박세경, 이진우. (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34;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도세록, 이진우. (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48;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임성은. (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69; 김승권, 김유경, 김혜련, 박종서, 손창균, 최영준, ...윤아름. (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836;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61;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31; 김유경. (2019).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과정별 과제. 보건복지포럼, 271, p. 79에서 재인용.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중·장년층 중 미혼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부양하는 이중부양을 하는 집단은 39.5%였다. 미혼 성인 자녀 또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단일부양은 37.8%였다. 부양에서 자유로운 응답자는 22.7%에 불과하였다(김유경, 2019, p. 84).

〈표 2-3〉 후기 중년층¹⁾의 가족 특성별 부양집단 분포(2018)

(단위: %)

구분		이중부양	단일부양	비부양
전체		39.5	37.8	22.7
가구 형태 ²⁾	1인 가구	7.4	31.2	61.4
	부부 가구	26.1	33.0	41.0
	(한)부모+미혼자녀	47.4	40.4	12.1
	3세대 가구	51.9	34.2	13.8
	기타 가구	35.2	42.8	22.0
가구 소득	199만 원 이하	16.9	37.5	45.6
	200만~299만 원	33.8	39.6	26.6
	300만~399만 원	38.8	33.3	27.9
	400만~499만 원	39.6	42.2	18.1
	500만~599만 원	48.0	38.4	13.7
	600만~699만 원	42.8	45.2	12.1
	700만~799만 원	50.4	35.3	14.4
	800만 원 이상	56.1	30.5	13.4

주: 1) 해당 연구에서는 45~64세의 연령집단을 '후기 중년층'으로 명명함.

2) 가구 형태 '기타'에는 조부모+손자녀가 포함됨.

자료: 김유경, 이진숙,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35; 김유경. (2019).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 과정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71, p. 84에서 재인용.

한편 주로 50대 중후반 이후 경험하는 빈둥지증후군 등으로 대변되는 가족구조의 변화는 외로움이라는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위협의 완충 역할을 줄여서 경제적,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취약성을 높인다.

후기 중년은 조기퇴직 등의 위협에 직면하기도 하면서 노후준비의 압박을 받는 시기이다. 경제활동조사자료에 따르면, 연령집단별 실업률 변화가 상이하다. 20대, 30대 다음으로 50대 실업률이 높다. 소득의 변화를 보면, 2011~2019년 동안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소득격차가 연령별로 상이한데,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가구주의 연령집

단별 소득비를 보면, 40대와 50대가 가장 높으며, 30대 이하는 평균 수준이고, 60대 이상의 소득비가 평균 이하 수준이다. 그러나 2016년 이후 50대의 소득비는 다른 연령과 달리 낮아지고 있다. 2016년에서 2019년 기간에 30대 이하는 94.3%에서 100.2%로, 40대는 120.8%에서 129.1%로 유의하게 상승했다. 반면 50대는 128.9%에서 127.4%로 낮아졌고, 60대 이상은 65.6%에서 67.3%로 정체상태였다(통계청, 2021, p. 198).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의 조사 결과, 40~50대에서 자주 또는 항상 불안하다는 응답이 21.9%, 19.5%, 60대 이상에서는 10.8%였다(하채림, 2020. 10. 14.). 불안의 요인으로 코로나19 확산 외 일자리 상실에 대한 염려, 직장에서 입지 약화를 지목했다. 후기 중년의 경제활동 위축이 점점 심화되는 증후가 보인다. 이러한 증후는 후기 중년의 불안 인식을 더 높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행복지수 조사(2007년 이후 반기별로 조사) 결과는 일자리, 노후준비, 경제적 불평등, 주거비, 교육비 등이 불안과 관련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밖에 이혼·사별, 가족구조의 변화도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2017년 보고서에서 해당 요인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20대'는 '일자리 부족'(29.9%)이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으며, '30대'는 '주택문제'(35.5%), '40대'는 '자녀 양육/교육'(34.8%), '50대'는 '노후준비 부족'(47.8%), '60세 이상'도 '노후준비 부족'(60.0%)이라고 응답하였다(현대경제연구원, 2017).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노후준비 부족'에 대한 응답률이 높아지고 있다.

3. 선행연구의 함의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으면 사회적 태도와 개인의 삶에서 왜곡된 선택을 하게 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의 지적이다. 사회적 불안 인식은 개인 불안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도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는 내용이다. 국내의 경험적 연구들은 개인의 정서적 불안을 초점으로, 또는 사회적 불안 측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이 양자의 관계를 분명하게 규명하지는 않았다. 사회적 불안 인식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영향을 이해하는데 있어 사회적 불안과 개인의 정서적 불안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회적 불안 인식에 관한 대부분의 해외 선행연구에서는 국가 단위로 국가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사회보장정책이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해당 연구들은 동일 국가 내의 계층에 따라 이러한 환경적 요인의 영향은 상이하다는 점을 언급, 규명하고 있다. Mau, Jan, & Nadine(2012, p. 676)는 그의 연구에서 유럽 국가들 사이의 사회적 불안 인식의 16%는 국가들 사이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반면, 계층, 교육, 소득, 실업 여부 등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면 국가들 사이의 변량의 약 35%까지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집단이 더 불안을 느끼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동일 연령집단의 생애과업이 더 다양해지는 변화를 경험 중이다. 그리고 중년의 연령집단이 경험하는 경험의 유사성이 있다 하여도 중년의 연령집단이 경험하는 불안은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다. Mau, Jan, & Nadine(2012)의 연구 결과에서 보면, 분석에 포괄된 유럽 국가들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감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고, 56~65세 집단이 15~25세의 기준 집단보다 사회경제적 불안 수준이 현저히 낮았다. 우리

나라의 상황과 상이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결과이다. 앞의 선행연구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후기 중년 연령집단의 불안 인식이 높고,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상태에서 이러한 불안 인식을 완화할 장치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선행연구들이 사회적 불안을 주로 고용불안과 경제적 박탈, 의료적 서비스의 접근성 등을 중심으로 한정하여 측정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때는 성별, 연령별, 계층별 불안의 수준과 원인이 상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에서 국내 중년집단에 대한 연구에서 보았듯이 돌봄 부담, 노후 준비, 경제활동 위축 등의 요인은 사회적 불안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게 갖추어지지 않았고, 특히 근로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가 상대적으로 덜 확충되고, 노인, 장애인,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주된 제도로 한정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이러한 요인의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족의 구성은 지지집단으로 가구원의 사회적 불안 인식을 줄일 수도 있지만 개인이 알아서 교육, 의료, 주거, 고용 등의 과업을 해결해나가야 할 경우 가구원의 존재가 이러한 과업을 감당하여야 하는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가족구조의 영향은 특히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확인이 필요하다.

제2절 조사표의 개발과 조사의 개요

1. 조사표의 개발

조사표의 문항은 2차, 3차 조사표의 주요 핵심 문항을 기초로 중년의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을 추가하여 개발하였다. 앞선 조사 중 핵심 공통문항을 2022년 조사문항의 약 80% 선에서 유지하였다. 조사표 문항은 후기 중년 사례 면담, 자문회의, 관계자 FGI, 예비조사의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마다 자문회의와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하에서는 조사표 개발 과정 중 진행된 사례 면담, 전문가 의견수렴, 조사대상 집단 FGI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소개한다.

〈참고〉 조사표 개발 단계

관련 조사 검토 ⇒ 이전 연구의 설문 내용 검토 ⇒ 사례 면담 ⇒ 일선 전문가 FGI ⇒ 전문가의 자문회의 ⇒ 설문 가안 마련 ⇒ 예비조사 ⇒ 연구진의 설문지 재검토 ⇒ 설문지 완성

가. 사례 면담

사례의 면담은 면담대상자 선정, 면담가이드 개발, 면담과 녹취록 분석으로 진행되었다.

1) 면담 참여자 선정과 면담 내용 구성

후기 중년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사례집단을 구성하였다. 연령을 기준으로 45~54세, 55~64세의 참여자가 고루 포괄되

도록 하고, 가족구성을 고려하여 배우자 유무, 자녀의 상황이 다른 사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제 상태를 고려하여 취업 여부와 빈곤 여부를 구분하고 참여자가 고루 포괄되도록 하였다. 아래는 참여자의 구성을 정리한 표이다. 참고로 취업상태인 일부 참여자는 공공일자리의 기간제 근로를 하는 상태였다.

〈표 2-4〉 참여자의 특성

연령대	성별	취업 여부	결혼 여부	빈곤 여부
52세	여성	자영	미혼	비빈곤
50세	남성	취업	기혼	비빈곤
54세	여성	취업	기혼	빈곤
60세	남성	실업	기혼	빈곤
45세	여성	취업	이혼	빈곤
64세	남성	실업	기혼, 고립	빈곤
56세	남성	취업	기혼	비빈곤
53세	여성	취업	기혼	비빈곤
52세	여성	취업	기혼	비빈곤
61세	여성	취업	사별	비빈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 면담 가이드 개발

인터뷰는 개방형으로 진행, 후기 중년의 불안 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인터뷰가 연구의 초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면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는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의 가이드라인은 중년의 불안 요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본론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생애에서 중요한 사회경제적 이벤트의 경험, 특히 외환위기, 금융위기, 고용불안정 심화기 등의 경험 등이 포괄되도록 하였다. 사회적 불안의 요인을 개인의 불안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면담

을 진행하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인식이 다루어지도록 내용을 구성하였고, 가이드라인의 도입부에서는 면담 참여자가 일상을 짧게 구술하도록 하여 면담자의 배경을 이해하고 면담자의 긴장을 완화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질문에서 고려한 중요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신체적 변화, 가족구성의 변화, 그리고 경제적 변화였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한 정서적 변화에 변화의 예상 여부, 대처방식 등도 면담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가족의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자녀의 뒷바라지와 그 부담, 자녀의 독립과 빈둥지증후군, 부모의 돌봄, 부양 부담과 그 영향, 가족의 상실 경험과 영향, 부부관계의 변화와 영향 등이 고려되었다. 경제적 변화와 그로 인한 정서의 변화는 본인 또는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와 변화 전망, 변화의 예상과 자발적 선택 여부가 고려되었고, 경제활동 변화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영향과 노후준비와 이와 관련된 부담과 불안이 포괄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사회적 관계의 변화와 영향도 포괄하여 도태의 경험과 불안, 배제 경험과 정서, 그리고 사회적 존중과 자존감을 내용에 포괄되도록 하였다. 면담의 가이드라인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3) 면담 내용 요약과 시사점

사례의 면담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불안의 경험과 원인을 보면 가족 또는 가까운 이와 사별이 불안 요인으로 자주 언급되었다. 가족은 불행하거나 불안하였던 과거에 지탱이 되어줄 것이란 믿음을 준 연대였다. 반면 다른 측면에서는 가족은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가족 요인이 불안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자주 언급하

였다. 가족과의 결별, 연락 두절로 인한 외로움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대화를 어렵게 하는 관심 차이, 배우자 또는 본인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제적 부담 등이 언급되었다.

자녀 돌봄은 주로 교육비와 관련되지만 자녀의 성장과 함께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지면서 주거비의 부담도 자주 등장하는 불안 요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존재는 불안을 완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주 언급되었다.

부모 돌봄에는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부담이 공존하고 있었다. 요양보험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요양기관에 대한 부모의 불만족으로 부담이 충분하게 완화되지 않았다. 부모 돌봄을 위해서 퇴직하였다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부모 돌봄은 기타 사회활동을 위축시켜 고립의 원인으로 작동하기도 하였다.

중대한 질환 경험 같은 건강의 변화도 불안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주 지목되었다. 질병은 신체적 영향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과도한 지출 부담이 초래되어 불안에 다층적인 영향을 주었다.

후기 중년은 직장생활과 전직, 그리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활동을 준비하면서 경험한 사건들로 인간적 신뢰를 상실하는 경험이 잦았다. 자동화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는 경향이 강했고, 고용불안의 수준이 높았다. 남성은 실직과 고립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언급되었고, 저소득층은 긴 시간의 노동으로 인한 부담과 노동하는 작업장의 취약한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실패의 영향이 매우 컸다. 그리고 그 영향은 오래가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서 망하면 큰 낭패라는 공포가 존재한다.

남성의 경우 일이 위안의 원천으로 중요하다는 지적이 빈번하였다. 일터에서의 성취가 행복한 기억과 자주 중첩되었다. 이 밖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의 지지는 남성에게 불안에 대응하는 데 적지 않은 힘이 되었으며, 활발한 여가활동도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지목되었다. 종교도 사례에 따라서 불안의 완화에 매우 강한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사회가 불안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정치인의 이기성과 집단화가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정부, 정치 불신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불공정 또는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었다. 구체적 문제로는 일자리 부족, 주택가격 상승도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적지 않으나 국가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고, 취약자가 경험하는 불안전성이 높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종교에 대한 기대도 낮았다. 더불어 언론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불안 완화에 영향을 준 요인들로는 대체로 사회적 관계가 가장 주요하였다. 예를 들어 인근의 친구들과의 상시적인 만남이 가능한 경우, 불안을 줄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이 밖에도 운동, 농사, 자연에서 지내기 등은 불안을 줄이는 요인으로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언급된 불안 현상이나 불안의 요인이 이 연구에서 개발한 사회적 불안 인식의 조사 문항과 상당히 중첩되어, 사회적 불안 조사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후기 중년의 불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 이와 관련된 부양 부담, 사회경제활동의 변화, 신체적 변화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일선 전문가 FGI

후기 중년과 접점이 넓은 일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집단면담의 주제는 아래와 같다.

〈참고〉 일선 전문가 집단면담의 주요 내용

- 중년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불안
 - 누가 불안을 경험하는가?
 - 왜 불안을 경험하는가?
- 불안이 행동과 선택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불안에 대한 대응과 대응에서 겪는 어려움, 그 원인
- 공공정책의 불안 유발이나 완화 효과
 - 어떠한 정책이 사회적 불안을 완화시키고 있는가?
 - 어떠한 정책이 오히려 사회적 불안을 악화시키고 있는가?

사회복지정책 일선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면담의 주요 내용을 언급의 요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적 불안을 경험하는 집단은 주로 빈곤층에 더 집중되어 있으나, 비빈곤층의 사회적 불안 경험도 자주 목격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빈곤층의 불안 경험은 통상 쉽게 포착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악화, 위기로 진행되기도 한다.

둘째, 사회적 불안의 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그리고 지지망의 위축이 증척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와 더불어 자녀 돌봄, 양육의 부담 가중과 정신적 문제, 장애의 영향도 자주 원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사회적 불안 인식의 원인으로 일 기회의 상실을 주목하여야 하고, 그 대응으로 일 경험의 유지가 중요하다.

넷째, 사회적 불안의 원인을 고려하는 전문적 개입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현재 이러한 정책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다.

빈곤층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으로 불안 수준이 더 높은 것은 이미 일선에서 자주 목격될 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일선 전문가들은 비빈곤층의 불안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였다. 경제적으로 잘사는 경우에도 자녀 양육 관련 문제로 생기는 불안이 빈번하게 목격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직업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강하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 심각한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사회정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의 장애는 큰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농촌 지역에서는 이장이나 이웃 등이 위기를 경험하는 주민에 대하여 공공부문에 알려주는 등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주민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례여서 주민이 고립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정책 대상으로 포착되지 않는 비빈곤층의 불안 경험과 악화가 감지되지 않을 위험이 크다.

긴급지원의 경우에는 일반계층도 많이 알고 찾아오는 사례가 있고, 재난지원금 덕분에 다른 사회보장제도도 많이 홍보된 덕에, 최근에는 비빈곤층의 일선 지원 창구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비빈곤층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신청을 하는 사례가 증가 중이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액이나 지원기간 등에 대해서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의하기도 한다. 비빈곤층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그 계기는 주로 주변의 수급 사례였다. 그러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규모가 작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 수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여 기피한다. 결국,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으로 그리 취약하지 않은 가구는 문제가 심각해지고서야 공공의 지원창구와 접촉하게 된다. 예컨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자녀가 있더라도 비빈곤층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빈곤층의 불안은 경제적 어려움, 질병이 사회적 지지망과 연관되어 있다. 예시로 언급된 빈곤층 사례 중 하나는 젊었을 때 일용직으로 전전하며 일하다가, 몸이 아프면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생활하였으나 돈을 못 갚으니 관계가 단절되고, 이 상황에서 담배나 술을 많이 하게 되었다. 당시 긴급생계비 및 의료 지원을 해주었고 추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었으나, 지원금으로 술을 구매하기도 하여 문제가 심각하여졌다.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외로우니 계속 음주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위축되니 더욱 술을 마시는 악순환을 거듭하였다. 중년은 자녀도 어느 정도 성장한 시기이고, 사회적 위치나 관계도 안정적인 시기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안정적 상태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관계에 대한 갈등이 더 커지고 이러한 갈등이 여러 측면의 문제를 심화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서 최저생활은 가능하게 지원해주고 있으나, 정서적 지지망의 결여로 인한 불안은 잘 관리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특히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더욱 빈번하게 이러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일선 전문가들은 저소득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질병이 있거나 하면 대개 외부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의 경우에는 정신적 문제가 없다면 그나마 외부와 소통하려는 시도를 유지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외부활동을 더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불안 경험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언급은 반복되었다. 여성이 알코올중독이나 외도 등의 가정해체 요인을 제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며, 남성은 외도, 폭력 등의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 역할을 못 하면 가족 단절로 이어지고 고립, 우울을 겪게 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한편 저소득층일수록 성역할을 구분 짓는 경향이 강하여, 남성이 경제적 부양을

못 할 경우 더욱 정서적 고립이나 갈등이 깊어지는 경향도 발견된다고 한다. 다문화 가정에서도 남성이 고립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내와 세대 차이가 있기도 하고 자녀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할 때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하지만, 여성은 자녀에 대한 교육열 등으로 본인만의 커뮤니티를 형성·유지하며 외부 활동을 하는 반면, 남성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생성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사회적 불안의 경험과 극복에서 일의 의미가 매우 크다는 점은 자주 언급되었다. 동생들이 장애인인 60대 사례는 동생들의 장애 관련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본인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일을 통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성취감을 얻고 직장동료들과의 관계 및 지지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도 얻었다고 한다. 이렇게 일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만족도가 높았다고 한다. 비빈곤층으로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 단절을 경험한 사례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였던 경험을 가장 행복했을 때로 기억하기도 한다고 언급하면서, 그 이유는 연락해주고 관심을 주는 동료가 있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일은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의 긍정적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매개가 되기도 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기간제 일자리가 많았는데, 이 공공일자리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그 이유는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여 취약층이 일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고, 기간제 일자리가 종료되더라도 다른 일자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일반노동시장의 일자리와 비교하여 고용관계에서도 만족도가 높았다고 한다.

일선 전문가들은 사회적 불안 경험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정서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병 자체가 불안 요인이기도 하지만 중독 이전의 상황을 생각하면 정서적, 정신적 문제에 대한 대응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례 맞춤형 전문적 케어가 필요한데, 중독관리통합센터 같은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개별 사례 맞춤형,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결국 개입의 효과가 저조한 수준에 머물게 된다고 우려한다.

1인 가구 가구원, 특히 남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서지원 서비스였던 사회성향상지원서비스 참여 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해나가면서 매우 만족해하는 변화를 보였다고 한다. 현재로는 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서비스가 부족하여 후기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적 지원사업의 확충도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반복되었다. 정서적, 심리적 문제가 있는 경우 본인이 문제 해결을 위해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례는 소란 때문에 주변의 제보가 있는 경우 개입하게 되는 상황에 있다.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약을 복용하지 않는 1인 가구에서 문제가 심각한데, 정신건강지원센터에 의뢰하려 하여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입이 어렵고, 기관의 인력 부족 등으로 발굴하기도 어려우며, 발굴하더라도 회복 시간도 오래 걸려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례이다. 장기의 적극적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다. 전문가 자문회의

조사표 개발을 위하여 이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자문회의 내용은 우리나라 후기

중년의 불안 현상과 사회적 불안 경험의 특이성,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그리고 이러한 요인에 대한 이해의 기반에 대한 것으로 압축해볼 수 있다.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하여 파악할 때 개인 중심의 인식인지 사회를 초점으로 한 인식인지에 대하여 질문문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전제에서 현재 불안과 미래 불안에 대한 인식의 구분이 갖는 의의, 문항으로의 개발을 고려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

사회적 불안의 인식을 추상적, 또는 일반적인 문제 영역에서 접근하기보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태도로 파악하는 방법도 장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 파악은 더 정확하게 상이성을 포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되었다. 즉, 규범적 질문보다는 현안을 두고 질문을 구성하면 응답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 인식이 갖는 특성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중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기회의 평등을 불평등, 분배보다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이동성이 큰 발전기 사회와 저성장국면의 사회에서는 분배, 불평등, 기회보장, 경쟁에 대한 수용도가 상이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경쟁의 효용에 대하여 수용적이고, 능력주의에 대해서도 유사할 것이라는 추정도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사회구성원은 어느 정도의 불안 인식을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우려할지에 대하여 포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적정 불안, 병적 불안 인식의 수준을 가를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는가?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해서는 이러한 구분이 쉽지는 않을 듯하다. 개인 불안은 일상이

어려운 수준이 병리적일 수 있지만, 사회는 그 사회의 일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는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가능한 수준에서, 적어도 인식의 수준에서 사회적 불안이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분석을 시도할 수는 있을 것이다.

사회적 불안 인식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논의는 불안의 파악보다도 더 풍부하게 이루어졌다. 사회적 불안의 인식과 사회적 불안의 요인을 가능한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구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요인에 대한 고려 시 주목할 요인으로 언급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부패, 불합리의 경험, ② 퇴직 전망, 압박, 전직 전망, ③ 노후준비, ④ 자식의 성공적 독립 전망, ⑤ 건강유지, ⑥ 정치 등 사회의 현상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회적 사건의 경험이나 사건으로 인한 정서적 영향은 사회적 불안 인식에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사건사고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지만,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반복되면 그 영향은 감소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해석도 존재하였다.

향후 사회적 불안 현상이 변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지, 그 여부도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생태계 위기, 기후, 식량 위기에 대한 전망도 세대별로 그 영향의 크기는 달라도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언급되었다. 젊은 세대와 비교하여 환경변화의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최근의 사회적 현상을 고려하면 환경보존과 관련된 인식이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과 관련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청년세대와 비교하여 후기 중년 집단은 이념적 지향이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된다는 견해도 존재하였다.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개인적, 사

회적 요인 중 무엇이 더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가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사회적 불안의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개인, 사회(종교지도자, 정치, 정부, 기업 등) 중 누가 주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대안적 노력을 추동하여야 하는가 또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도 중요한 함의를 지닐 것이라는 점도 중요한 초점으로 제안되었다.

라. 예비조사의 실시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수행하였다. 면담 사례 일부와 일선 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설문문항과 설문지 구조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조사 응답의 시간 적정성, ② 조사문항의 이해 수준과 장애요인, ③ 심리·정서적 불편을 초래하는 문항과 이유

예비조사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표 문항 중 이해가 어려운 문항의 문장을 일부 수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원 교육에서 이러한 문항에 대한 설명을 보강하였다. 한편 응답자들은 통상 중간 지점의 답변을 선호하는데, 중간 수준의 선택지(모르겠다. 그저 그렇다 등)가 없는 문항의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조사원에게 공유하고 조사 시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문항 이해에 혼란을 초래하는 ‘부정의 부정’으로 내용이 구성된 문항은 가급적 수정하되, 기존 척도 중 문항은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추가하여 이해를 도왔다.

문항의 수가 많아 응답시간이 길고, 이로 인한 부담이 커서 문항의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응답자가 혼란을 경험할 위험이 있는 유사 문항을 제거하는 등 응답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조사표를 수정하였다.

2. 조사표의 내용 구성

1차 연도 연구의 질적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2차 연도의 연구에서 조사표를 개발하였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안 인식이 갖는 특이성을 발견할 수 있는 조사표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조사는 앞서 수행한 연구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수용하고 기본적인 정의를 공히 적용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불안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기타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관련하여 조사 내용은 조사대상이 되는 전 연령집단을 아우르는 기본적인 조사내용과 연령집단별 추가, 차별화된 조사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기본이 되는 공통의 조사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 불안 인식, 개인 불안을 포함하여, 경제활동, 소득, 재산, 가구 일반 특성 등이다. 2차 연도(2020년)의 조사는 청년(초기 중년 포함)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표 중 일부는 청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과 관련이 큰 요인들을 반영하여 조사내용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입직과정, 미래 전망, 결혼에 대한 태도 등을 초점으로 하여 조사내용을 추가·구성한 바 있다. 3차 연도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내용에서 소득뿐만 아니라 건강, 은퇴, 노화불안 등 노인의 사회적 불안 요인을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설문을 보강하였다. 45~64세 집단의 경우에는 고용불안뿐만 아니라 가족부양과 노후준비 등을 초점으로 불안 요인에 대한 조사를 특화하였다. 전체적으로 조사표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문헌조사, 사례 면담, 전문가 FGI 등을 기초로 구체화하였다.

〈참고〉 설문 구성의 주요 내용

- 한국 사회의 불안 관련 현상과 이에 대한 인식
 - 사회 및 미래 불확실성의 인식과 관련 경험
 - 중대한 사회적 사고와 그 영향 등
- 사회적 요인의 유형별 인식과 경험
 - 취업상태, 은퇴 등 사회적·경제적 지위 불안정,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자원
 - 부모와 자녀의 돌봄에 대한 부담 등
 - 퇴직이나 노후에 대한 준비
- 사회적 불안에 대한 대응기제의 수준과 인식
 -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 경제적 자원수준, 공적 지원제도의 수급 등
- 가구 및 개인의 상황
 - 성, 연령, 거주지역, 가족구성, 건강수준 등

3. 표본의 구성과 조사의 진행

이 조사는 전국의 만 45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의 3,5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은 주민등록 인구현황(2022년 6월 말) 자료에 근거해 모집단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비례할당으로 추출하였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성, 연령, 가구규모, 지역, 가구의 소득을 본격적인 조사 전 선행문항으로 두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였으며, 조사기간은 2022년 8월 4일부터 8월 18일까지였다.





제3장

사회적 불안에 대한 기초분석

제1절 응답자의 특성

제2절 사회적 불안 인식 측정의 신뢰도와 영역 구분

제3절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적 불안의 수준

제4절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영향 인식



제3장 사회적 불안에 대한 기초분석

제1절 응답자의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3,575명이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1>과 같다. 응답자의 특성은 연령을 기준으로 45~54세와 55~64세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가구 내 지위를 살펴보면, 가구주가 62.1%, 가구주의 배우자가 33.5%로 두 지위가 95% 이상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연령 집단별로는 55~64세에서 가구주의 비중이 약간 더 높았으며, 45~54세에서는 자녀의 비중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 분포는 남성과 여성의 큰 차이가 없으며,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약 75%였고, 연령대별로는 55~64세에서 그 비중이 좀 더 높았다.

경제활동상태는 상용직 근로자 47.2%, 비경제활동인구 17.5%, 자영업자 12.9%, 임시직 근로자 9.0%, 실업자 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5~54세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55.4%)이 높은 데 비해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12.9%)은 낮았으며, 이에 반해 55~64세에서는 상용직 비율(38.6%)이 낮고 비경제활동인구(22.2%)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개인의 지난 3개월간 월평균 근로소득을 보면,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던 45~54세가 55~64세에 비해 150만 원 이상의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원 수의 제곱근 값으로 가구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개인의 근로소득에 비해 두 연령 집단별 평균 소득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55~64세의 가구소득이 좀 더 높았다. 가구의 재산 수준도 마찬가지로 55~64세에서 5억 원 이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규모는 전체 평균 3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55~64세 응답자 가구에 비해 45~54세에서 4인 이상의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평균 가족 수는 45~54세의 경우 3.2인, 55~64세의 경우 2.8인이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자가 여부를 살펴보면 자가인 경우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주 지역은 대도시 40.8%, 중소도시 41.4%로,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연령 집단별로는 45~54세는 중소도시, 55~64세는 농어촌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았다.

〈표 3-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만 원)

구분		45~54세		55~64세		전체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평균 연령		49.6		59.4		54.4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1,100	60.1	1,121	64.2	2,221	62.1
	배우자	630	34.5	569	32.6	1,199	33.5
	자녀	68	3.7	25	1.4	93	2.6
	기타	31	1.7	31	1.8	62	1.7
성별	남성	932	51.0	877	50.2	1,809	50.6
	여성	897	49.0	869	49.8	1,766	49.4
배우자	유(사실혼 포함)	1,364	74.6	1,356	77.7	2,720	76.1
	무(별거, 사별, 이혼, 미혼)	465	25.4	390	22.3	855	23.9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14	55.4	673	38.6	1,687	47.2
	임시직 임금근로자	147	8.0	173	9.9	320	9.0
	일용직 임금근로자	62	3.4	67	3.8	129	3.6
	고용주	12	0.7	24	1.4	36	1.0
	자영업자	222	12.1	239	13.7	461	12.9
	무급 가족 종사자	47	2.6	64	3.7	111	3.1
	실업자	89	4.9	118	6.8	207	5.8
	비경제활동인구	236	12.9	388	22.2	624	17.5
지난 3개월 월평균 근로소득	소득 없음	41	2.7	48	3.9	89	3.2
	150만 원 미만(0원 제외)	179	11.9	216	17.4	395	14.4
	150~300만 원 미만	495	32.9	402	32.4	897	32.7
	300~450만 원 미만	364	24.2	254	20.5	618	22.5
	450만 원 이상	425	28.3	320	25.8	745	27.2
개인소득 평균		340.2		315.8		329.2	

구분		45~54세		55~64세		전체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지난 3개월 월평균 가구 소득 ¹⁾	150만 원 미만	251	13.7	322	18.4	573	16.0
	150~300만 원 미만	750	41.0	585	33.5	1,335	37.3
	300~450만 원 미만	522	28.5	442	25.3	964	27.0
	450만 원 이상	306	16.7	397	22.7	703	19.7
	가구소득 평균	301.7		317.8		309.6	
가구 재산 수준	1천5백만 원 미만	175	9.6	158	9.1	333	9.3
	1천5백만 원~5천만 원 미만	123	6.7	112	6.4	235	6.6
	5천만 원~1억 원 미만	178	9.7	135	7.7	313	8.8
	1억 원~2억 원 미만	238	13.0	222	12.7	460	12.9
	2억 원~5억 원 미만	476	26.0	415	23.8	891	24.9
	5억 원~10억 원 미만	397	21.7	401	23.0	798	22.3
	10억 원 이상	242	13.2	303	17.4	545	15.2
가족 수	1인	186	10.2	227	13.0	413	11.6
	2인	314	17.2	522	29.9	836	23.4
	3인	477	26.1	496	28.4	973	27.2
	4인	673	36.8	407	23.3	1,080	30.2
	5인 이상	179	9.8	94	5.4	273	7.6
	평균 가족 수	3.2		2.8		3.0	
자가 여부	자가	1,243	68.0	1,256	71.9	2,499	69.9
	자가 외 (월세, 전세, 무상, 사택 등)	586	32.0	490	28.1	1,076	30.1
지역	대도시	746	40.8	713	40.8	1,459	40.8
	중소도시	788	43.1	692	39.6	1,480	41.4
	농어촌	295	16.1	341	19.5	636	17.8
합계		1,829	100.0	1,746	100.0	3,575	100.0

주: 1) 가구원 수의 제공근 값으로 가구 균등화한 가구소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제2절 사회적 불안 인식 측정의 신뢰도와 영역 구분

사회적 불안 인식을 측정하는 24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크론바흐 알파는 .917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문항별로 신뢰도 검증 결과를 보면 16번 문항,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

다'는 신뢰도가 높지 않아 제거하기로 하였다. 해당 문항은 제거 시 크론 바흐 알파가 낮아지지 않았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인식은 16번 문항을 제외한 총 23개 문항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3-2〉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항목이 삭제된 경우 크론바흐 알파
1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 같다	86.40	138.681	.440	.915
2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나만 모르게 될 것 같다	87.06	136.318	.460	.915
3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라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가 어렵다	86.42	135.890	.558	.913
4	현재의 취업불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86.17	138.946	.475	.915
5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85.90	137.802	.543	.914
6	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고 연줄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86.15	134.896	.612	.912
7	직장, 학교 등 소속된 조직이나 모임에 적응하기 어려울까 봐 불안하다	87.22	134.737	.504	.914
8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86.43	132.876	.616	.912
9	우리 사회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86.30	134.815	.566	.913
10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보다는 편법이 더 잘 통한다	86.39	133.835	.625	.912
11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86.54	132.350	.689	.911
12	다른 사람과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다	86.57	134.698	.577	.913
13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하는 일을 믿을 수 없다	87.05	136.756	.441	.915
14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가끔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낀다	87.06	136.520	.489	.914
15	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87.05	134.877	.530	.914
16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86.84	138.210	.378	.917
17	우리 사회는 변하는 것이 많고 변화속도가 빨라서 적응하기 어렵다	86.85	137.448	.487	.914
18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뛰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86.30	136.684	.496	.914
19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집단이기주의가 심하다	86.33	136.462	.542	.914

문항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항목이 삭제된 경우 크론바흐 알파
20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을지 혼란스럽다	86.46	136.045	.564	.913
21	정부가 하는 일은 믿을 수 없을 때가 많다	86.36	133.261	.643	.912
22	정부의 위협/위기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	86.41	132.841	.616	.912
23	우리나라의 정치는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86.51	134.324	.509	.914
24	나에게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87.20	132.861	.572	.91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사회적 불안 인식을 구성하는 불안의 영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23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방법 중 주축요인추출방법을, 요인회전방법은 직접오블리민을 사용하였다. 이유는 문항 간 상관관계가 일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문항 24를 포괄하여 분석할 때, 값 수렴에서 실패하여 24번 문항을 제거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은 총 22개 문항으로 축적하였다. 참고로 16번 문항과 24번 문항을 제거하고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크론바흐 알파는 .913으로 신뢰도가 역시 높았으며, 남겨진 모든 문항은 제거 시 크론바흐 알파가 낮아져 각 문항의 신뢰도도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분석 결과는 [부록 3]을 참조하기 바란다

사회적 불안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요인분석 결과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문21, 문22, 문10, 문9, 문11, 문6, 문8, 문5, 문19, 문23, 문20으로 구성되는 요인과 문3, 문2, 문7, 문1, 문4, 문17, 문18로 구성되는 요인, 문15, 문14, 문13, 문12로 구성되는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각 불안 인식의 영역은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 경쟁/도태 불안, 사건/사고 불안으로 명명하였다.

〈표 3-3〉 요인분석 결과

문항 번호 및 내용	성분			요인	
	1	2	3		
21 정부가 하는 일은 믿을 수 없을 때가 많다	.779	.382	-.249	불공정 /정부 불신 불안	
22 정부의 위협/위기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	.764	.363	-.223		
10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보다는 편법이 더 잘 통한다	.743	.391	-.253		
9 우리 사회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722	.330	-.196		
11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700	.524	-.331		
6 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고 연출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642	.588	-.072		
8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617	.556	-.181		
5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586	.572	.017		
19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집단이기주의가 심하다	.552	.418	-.250		
23 우리나라의 정치는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38	.340	-.233		
20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을지 혼란스럽다	.520	.483	-.299		
3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라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 어렵다	.461	.640	-.182		경쟁/ 도태 불안
2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나만 모르게 될 것 같다	.244	.614	-.333		
7 직장, 학교 등 소속된 조직이나 모임에 적응하기 어려울까 봐 불안하다	.295	.586	-.415		
1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 같다	.290	.570	-.216	사건/ 사고 불안	
4 현재의 취업불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435	.543	-.062		
17 우리 사회는 변하는 것이 많고 변화속도가 빨라서 적응하기 어렵다	.333	.535	-.330		
18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뛰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461	.498	-.141		
15 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338	.458	-.703		
14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가끔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낀다	.358	.359	-.651	사건/ 사고 불안	
13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하는 일을 믿을 수 없다	.365	.278	-.543		
12 다른 사람과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다	.440	.509	-.52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제3절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적 불안의 수준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을 불안 영역별로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개인의 불안을 포함하여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단문으로 질문한 문항에 대하여 대체로 불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 불안 인식은 평균 4.02로 나타났다. 22개 문항을 지수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인식보다, 단문으로 파악한 사회적 불안 인식은 그 평균값이 높아서, 구체화된 인식보다 추상적 문항으로 파악한 불안 인식이 더 높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의 자문회의의 제안과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할 때, 가능하면 다문항으로 구성된, 척도화된 사회적 불안 인식을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화된 측정일수록 측정의 안정성이 높을 수 있으며, 사회적 불안 인식의 정체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척도를 구성하여 질문한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도 평균 3.80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한 수준에 가깝다. 인식하는 불안의 영역 중 불공정/정부 불신 영역의 불안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다. 사건/사고 불안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3.41에 이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45~54세 집단이 55~64세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불안도 유사하여 45~54세 집단이 55~64세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사회적 불안의 수준

(단위: 점, 표준편차)

구분		45~54세		55~64세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사회 불안 인지		4.06	0.79	3.98	0.86	4.02	0.83
사회 불안	전체	3.84	0.51	3.77	0.51	3.80	0.51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	4.03	0.58	3.97	0.61	4.00	0.60
	경쟁/도태 불안	3.76	0.53	3.67	0.54	3.72	0.54
	사건/사고 불안	3.43	0.69	3.39	0.66	3.41	0.68
개인 불안		1.93	0.45	1.84	0.43	1.88	0.44

주: 1) 사회 불안 인지와 사회 불안 척도는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불안하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됨.

2) 개인 불안 척도는 1점(그렇지 않다)~4점(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사회적 불안 인식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각 문항의 불안 수준과 표준편차는 아래와 같다.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4.00점) 영역 중에서는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심화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4.44점으로 가장 높고, 사회적 성공 요인으로서 연줄 및 배경의 중요성 인식이 4.19점, 법 집행의 불공정성이 4.04점, 집단이기주의가 4.0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쟁/도태 불안(3.72점) 영역 중에서는 취업불황의 부정적 전망이 4.18점, 상승하는 주택가격 감당의 어려움이 3.95점, 경쟁 과열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3.92점으로 높았다. 사건/사고 불안(3.41점) 중에서는 타인과의 거래나 계약에서의 사기 염려가 3.7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의 문항별 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 인식을 해석하여 보면 ‘빈부격차가 심각한데 법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쟁이 심화될 때 우리 사회 구성원은 노력만으로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업과 주거는 경쟁에서 가장 침해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이 영역에서의 도태는 불안을 높이는 데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표 3-5〉 문항별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점, 표준편차)

요인	문항 번호	문항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사회적 불안 전체			3.80	0.51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	21	정부가 하는 일은 믿을 수 없을 때가 많다	3.99	0.88
	22	정부의 위협/위기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	3.94	0.94
	10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보다는 편법이 더 잘 통한다	3.96	0.86
	9	우리 사회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4.04	0.87
	11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3.81	0.88
	6	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고 연줄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4.19	0.81
	8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3.91	0.93
	5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4.44	0.69
	19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집단이기주의가 심하다	4.02	0.78
	23	우리나라의 정치는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84	0.99
	20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을지 혼란스럽다	3.89	0.79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			4.00
경쟁/도태 불안	3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라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 어렵다	3.92	0.81
	2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나만 모르게 될 것 같다	3.29	0.92
	7	직장, 학교 등 소속된 조직이나 모임에 적응하기 어려울까 봐 불안하다	3.13	0.97
	1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 같다	3.95	0.75
	4	현재의 취업불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4.18	0.68
	17	우리 사회는 변하는 것이 많고 변화속도가 빨라서 적응하기 어렵다	3.50	0.78
	18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뛰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4.04	0.83
경쟁/도태 불안			3.72	0.54
사건/사고 불안	15	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3.30	0.92
	14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가끔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낀다	3.28	0.85
	13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하는 일을 믿을 수 없다	3.29	0.91
	12	다른 사람과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다	3.77	0.86
사건/사고 불안			3.41	0.6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다음 표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 불안 및 개인 불안 수준을 분석한 결과이다. 성별로 사회적 불안의 인지 수준을 비교하면, 단문

으로 사회적 불안 인지를 파악한 결과는 여성의 불안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리고 척도화된 사회적 불안 인지에서 사건/사고 불안은 여성의 불안 인지가 더 높았다. 그러나 다른 불안 인지에서는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개인의 정서적 불안도 낮은 수준에서 유의하게 여성의 불안이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사건/사고 불안 인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수준으로 불안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40대 후반의 연령에서 오히려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문으로 파악한 불안 인식에서는 배우자의 불안이 가구주와 비교하여 더 높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불안 인식을 파악한 척도화된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은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과 경쟁/도태 불안에서 가구주의 불안 인식이 더 높았다.

배우자 유무별로 보면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사회적 불안 인식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만성질환이 없는 집단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불안의 수준이 더 높았다. 다만 장애 유무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장애가 있는 집단의 사회적 불안 인식이 장애가 없는 집단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지 않았다. 다만 단문으로 파악한 사회 불안 인식 수준과 개인의 정서적 불안 수준은 장애가 있는 집단에서 높았다. 장애의 종류와 장애의 중증도, 그리고 사회경제적 상황과 공적 지원의 수급 등의 요인을 정밀하게 확인하여야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 이유를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은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즉 고학력 집단이나 저학력 집단이 사회적 불안 인식에서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쟁/도태 불안과 사건/사고 불안, 개인의 정서적 불안이 유의하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지역 거주 응답자의 불안 인식이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의 불안 수준이 남성과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사회 불안의 영역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불공정/정부 불신 영역에서는 남성의 불안 수준이 더 높았다. 가구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불안의 유형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단문으로 묻는 사회 불안 인식 수준은 배우자, 자녀인 경우가 높았고, 복수의 문항으로 척도화된 사회 불안은 가구주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 불안은 자녀 및 기타 관계인 경우가 높았다.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불안 인식은 가구주에게서 더 높고, 다소 덜 구체적인 수준의 불안 인식은 비가구주인 가구원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불안의 영역별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은 가구주가 가장 높고, 경쟁/도태 불안은 기타 관계 및 자녀가, 사건/사고 불안은 자녀, 그리고 배우자가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단문의 사회 불안 인지를 제외하고 영역별 사회 불안 및 개인 불안에서 모두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유무별로는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불안 수준이 더 높았으며, 장애 유무별로는 장애가 있는 경우 개인 불안은 높았으나 사회 불안 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장애가 있는지 여부와 개인 불안 및 사회 불안의 관계는 장애가 있다는 응답자 중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과 유관할 수 있다. 기타 관련 요인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은 두 요인 간의 단순 기술의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체로 대학교 졸업 학력인 경우 사회적 불안 수준이 가장 높았다. 다만, 경쟁/도태 불안과 개인 불안은 학력이 높을수록 그 수준이 낮았다. 지역별로는 전체적으로 도시 지역의 불안 수준이 높고, 특히 대도시의 불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 불안 인지와 불안의 영역 중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은 중소도시와 비교해볼 때 농어촌 지역에서 약간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72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45~64세 집단의 사회적 불안

〈표 3-6〉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개인 불안	
				전체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		경쟁/도태 불안		사건/사고 불안			
		평균	차이 검증	평균	차이 검증	평균	차이 검증	평균	차이 검증	평균	차이 검증	평균	차이 검증
성별	남성	3.93	***	3.80		4.02		3.71		3.36	***	1.87	#
	여성	4.11		3.81		3.99		3.72		3.46		1.90	
연령대	만45-49세	4.10		3.87		4.07		3.79		3.45		1.95	
	만50-54세	4.02	***	3.81	***	4.00	***	3.74	***	3.42		1.91	***
	만55-59세	4.06		3.80		4.00		3.72		3.39		1.87	
	만60-64세	3.91		3.74		3.94		3.62		3.39		1.81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3.99		3.82		4.03		3.72		3.40		1.89	
	배우자	4.09	**	3.78		3.96	**	3.69	#	3.43		1.87	#
	자녀	4.01		3.78		3.91		3.75		3.47		1.97	
	기타	3.97		3.81		3.95		3.84		3.38		1.97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4.01	#	3.79	**	3.99	**	3.70	#	3.39	**	1.86	***
	배우자 없음	4.07		3.85		4.05		3.75		3.47		1.97	
만성 질환	있음	4.10	**	3.85	***	4.05	**	3.76	**	3.46	**	1.98	***
	없음	3.99		3.79		3.98		3.70		3.39		1.85	
장애	있음	3.92	#	3.78		3.98		3.67		3.41		2.00	**
	없음	4.03		3.81		4.00		3.72		3.41		1.88	
교육 수준	고졸 이하	4.03		3.80		3.99		3.74		3.41		1.95	
	대학교 졸업	4.04		3.81		4.01		3.72		3.42		1.88	***
	대학원 이상	3.95		3.76		3.97		3.65		3.36		1.78	
지역	대도시	4.04		3.82		4.01		3.74		3.45		1.90	
	중소도시	4.00		3.79		3.99		3.71	#	3.40	**	1.88	#
	농어촌	4.01		3.78		4.01		3.68		3.35		1.86	
전체		4.02		3.80		4.00		3.72		3.41		1.88	

주: 1) 사회 불안 인지와 사회 불안 척도는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불안하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됨.

2) 개인 불안 척도는 1점(그렇지 않다)~4점(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됨.

3) # p<.10,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다음은 응답자의 가구 규모 및 구성을 기준으로 사회적 불안 수준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가구규모에 따른 불안 수준을 살펴보면, 사회 불안 척도로 파악한 사회적 불안 수준은 1인 가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가구 규모가 클수록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나 5인 이상의 가구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5인 이상의 가구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불안 수준도 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사회 불안 인지와 개인 불안의 경우에는 1인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 구성 측면에서는 가구 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가 사건/사고 불안을 제외한 모든 불안 유형에서 불안 수준이 더 높았다. 아동의 양육부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뜨겁다. 그만큼 양육부담이 크기 때문인데, 아동가구의 불안 인식 수준이 높은 것이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경우에는 불안 인식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 돌봄 부담으로 불안을 유발할 위험이 큰 부모가 있더라도 가구원이 아닌 경우가 다수일 수 있어 돌봄 부담과 연관을 지어 해석하기는 어렵다. 한편 가구 내 노인이 함께 동거하는 경우, 병원이나 시설의 필요성이 적은 양호한 건강상태의 노인이어서, 가구원의 불안을 가중시킬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가구원 중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유무에 따라서는 만성질환자 가구원이 있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불안 수준이 높았다.

〈표 3-7〉 응답자의 가구 구성 특성과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개인 불안	
				전체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		경쟁/도태 불안		사건/사고 불안			
		평균	차이 검증	평균	차이 검증	평균	차이 검증	평균	차이 검증	평균	차이 검증	평균	차이 검증
가구 규모	1인	4.06		3.84		4.04		3.73		3.45		1.95	
	2인	3.99		3.78		3.99		3.67		3.41		1.88	
	3인	4.06		3.79	#	3.99	#	3.70	***	3.40		1.86	**
	4인	4.00		3.80		3.99		3.74		3.40		1.88	
	5인 이상	4.00		3.87		4.08		3.79		3.46		1.90	
아동 유무	없음	4.00	*	3.79	***	3.99	**	3.69	***	3.40		1.87	***
	있음	4.08		3.86		4.05		3.79		3.44		1.94	
노인 유무	없음	4.02		3.81		4.01		3.72		3.42		1.88	
	있음	4.02		3.78		3.97		3.70		3.38		1.89	
장애인 유무	없음	4.03		3.80		4.00		3.71		3.41		1.88	**
	있음	3.95		3.84		4.04		3.73		3.47		1.96	
만성질환자 유무	없음	3.97	***	3.78	**	3.98	**	3.70	**	3.39	**	1.84	***
	있음	4.10		3.84		4.04		3.75		3.45		1.95	

주: 1) 사회적 불안 인지와 사회적 불안 척도는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불안하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됨.

2) 개인 불안 척도는 1점(그렇지 않다)~4점(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됨.

3) # p<.10,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가구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불안 수준을 살펴보면, 가구 내 실업자가 있는 경우 경쟁/도태 불안이 더 높았다. 주거 점유 형태별로는 주거 불안 정성이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월세(사글세)인 경우가 가장 불안의 수준이 높았다. 가구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보면 소득과 재산이 높은 구간에서 불안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다만, 개인 불안이 소득과 재산의 최하위 구간에서 가장 높고,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 수준도 떨어졌던 것과 달리, 사회적 불안의 경우

에는 소득과 재산의 최하위 구간보다 중하위 계층에서 가장 높은 불안 수준을 보였다.

〈표 3-8〉 가구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개인 불안			
				전체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		경쟁/도태 불안				사건/사고 불안	
		평균	차이 검증	평균	차이 검증	평균	차이 검증	평균	차이 검증	평균	차이 검증		
실업자	없음	4.01		3.80		4.01		3.70	*	3.40		1.86	***
	있음	4.04		3.81		4.00		3.74		3.43		1.92	
주거 점유 형태	자가	3.99		3.79		3.99		3.70		3.40		1.86	
	전세	4.06		3.83		4.02		3.74		3.45		1.92	
	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	4.12	*	3.86	*	4.06		3.78	**	3.46		1.96	***
	월세(사글세)	4.12		3.88		4.07		3.82		3.46		2.03	
	기타(무상, 사택 등)	4.08		3.77		3.99		3.66		3.35		1.88	
지난 3개월 평균 가구 소득 (가구 균등화)	150만 원 미만	4.08		3.85		4.03		3.74		3.53		2.03	
	150~300만 원 미만	4.09	***	3.85	***	4.04	***	3.78	***	3.45	***	1.92	***
	300~450만 원 미만	3.96		3.78		3.99		3.69		3.36		1.83	
	450만 원 이상	3.92		3.70		3.91		3.59		3.31		1.79	
가구 재산 수준	1천5백만 원 미만	4.11		3.86		4.03		3.80		3.49		2.10	
	1천5백만 원~5천만 원 미만	4.10		3.90		4.07		3.84		3.54		1.99	
	5천만 원~1억 원 미만	4.05		3.82		4.03		3.70		3.46		1.94	
	1억 원~2억 원 미만	4.12	***	3.88	***	4.09	***	3.78	***	3.50	***	1.94	***
	2억 원~5억 원 미만	4.00		3.81		4.03		3.73		3.37		1.86	
	5억 원~10억 원 미만	4.01		3.77		3.96		3.68		3.37		1.82	
	10억 원 이상	3.89		3.69		3.88		3.60		3.33		1.76	

주: 1) 사회 불안 인지와 사회 불안 척도는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불안하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됨.

2) 개인 불안 척도는 1점(그렇지 않다)~4점(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됨.

3) # $p < .10$,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경제활동 참여 상태별 불안 인식의 수준을 보면 사회 불안 인지와 개인 불안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고, 다른 불안의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고용주, 자영자의 불안이 다른 유형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와 비교하여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통상 자영자의 불안이 더 높을 것이라는 이해와 상반된다. 후기 중년의 경우 퇴직에 대한 압박, 노후준비를 위한 근로의 지속 필요성 등이, 고용/자영자의 퇴직 시점의 자율적 선택 가능성이라는 속성을, 중요한 불안 완화요인으로 작용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시일용직의 불안이 실업자의 불안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은 것도 이러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3-9〉 경제활동 참여 상태별 불안 수준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개인 불안				
			전체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		경제/도태 불안		사건/사고 불안				
	평균	차이 검증	평균	차이 검증	평균	차이 검증	평균	차이 검증	평균	차이 검증	평균	차이 검증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98		3.81		4.02		3.73		3.39		1.88	
	임시직 임금근로자	4.04		3.82		4.01		3.73		3.47		1.88	
	일용직 임금근로자	3.98		3.83		4.00		3.80		3.40		1.96	
	고용주	3.78	#	3.70		3.91		3.60		3.27		1.80	
	자영업자	4.05		3.79		4.00		3.69		3.39		1.86	#
	무급가족종사자	4.06		3.80		3.95		3.74		3.49		1.98	
	실업자	4.05		3.83		4.02		3.73		3.49		1.93	
	비경제활동인구	4.10		3.78		3.98		3.67		3.43		1.87	

주: 1) 사회 불안 인지와 사회 불안 척도는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불안하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됨.

2) 개인 불안 척도는 1점(그렇지 않다)~4점(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됨.

3) # p<.10,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는 인식은 인식의 영역 중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불안은 불안 인식의 영역 중 경쟁/도태 불안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불공정/정부 불신은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중요한 불안의 근원으로 간주된다 하여도 개인적 불안은 본인이 이러한 사회의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러한 경쟁/도태 불안의 중요한 관련 요인이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 인식임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표 3-10〉 사회적 불안/하위 영역/개인 불안의 상관관계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전체	불공정/ 정부 불신 불안	경쟁/도태 불안	사건/사고 불안	개인 불안
사회 불안 인지	1	.524**	.521**	.420**	.313**	.177**
사회 불안 전체	.524**	1	.925**	.829**	.729**	.375**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	.521**	.925**	1	.619**	.526**	.252**
경쟁/도태 불안	.420**	.829**	.619**	1	.527**	.399**
사건/사고 불안	.313**	.729**	.526**	.527**	1	.382**
개인 불안	.177**	.375**	.252**	.399**	.38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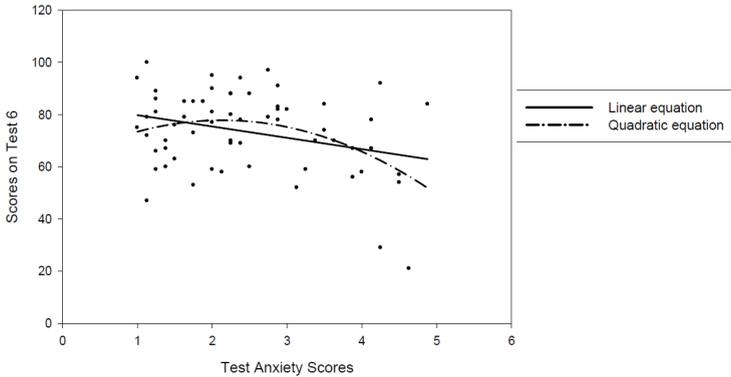
주: **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제4절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영향 인식

개인의 불안에 대한 일반적인 학계의 해석은 불안이 너무 높은 경우와 너무 낮은 경우 모두 개인의 성취도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본다. 적정 수준의 불안이 개인의 성취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이 이러한 입장을 잘 보여준다.

[그림 3-1] 불안 수준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



자료: Kelley, J., Zayac, R., & Correia, C. (2008). Curvilinear relationships between statistics anxiety and performance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Evidence for optimal anxiety. *Statistics Education Research Journal*, 7(1), p. 11; 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1에서 재인용.

사회적 불안 인식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어느 수준을 문제로 삼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개인 수준의 불안과 유사하게 제기된다. 즉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고 어느 수준 이상의 사회적 불안 인식을 우려해야 하는 임계치(臨界値)로 간주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아래의 표를 보면 대체로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 인식이 사회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1〉 사회 발전에 대한 영향 인지별 불안 수준

(단위: 점)

불안 영향 인식1)	빈도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전체	불공정/ 정부 불신 불안	경쟁/도태 불안	사건/사고 불안
1	351	4.65	4.26	4.56	4.05	3.77
2	429	4.37	4.08	4.38	3.90	3.59
3	867	4.11	3.84	4.07	3.74	3.41
4	698	3.82	3.67	3.85	3.62	3.29
5	260	3.57	3.46	3.58	3.44	3.16
6	282	3.54	3.42	3.52	3.42	3.17
7	279	3.71	3.60	3.73	3.59	3.27
8	272	3.98	3.79	3.95	3.75	3.42
9	95	4.38	4.05	4.22	3.92	3.80
10	42	4.38	4.14	4.34	3.93	3.95
1-3	1647	4.29	3.99	4.25	3.85	3.53
4-7	1519	3.70	3.58	3.72	3.55	3.24
8-10	409	4.11	3.89	4.05	3.81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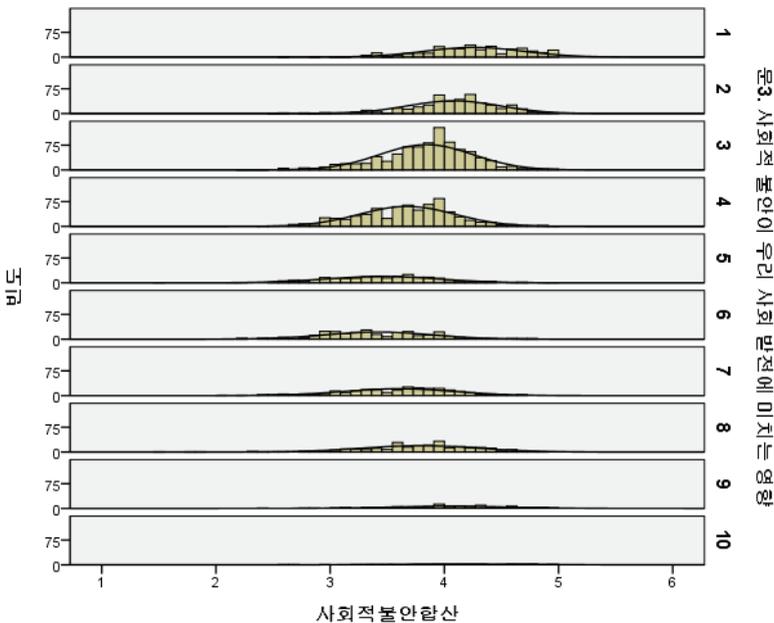
주: 1) 사회 발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의 영향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사회 발전을 매우 저해할 것이다' 1점~'사회 발전에 매우 기여할 것이다' 10점의 10점 척도로 구성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사회적 불안이 사회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10점 척도에서 8점 이상으로 응답한 사례들을 보면, 사회적 불안 인식의 평균이 4를 넘기고 있다. 즉 '불안하다' 또는 '매우 불안하다'로 응답하는 경향을 보인다. 참고로 사회적 불안 인식이 4점 이상인 응답자 비율은 38.4%, 1,364명이다. 즉 사회적 불안 인식이 4점 이상인 대부분의 응답자는 사회 발전에 사회적 불안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것이다. 적어도 이러한 결과를 보면 4점 이상의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지되고 있으며 이 수준 이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목하여 볼 이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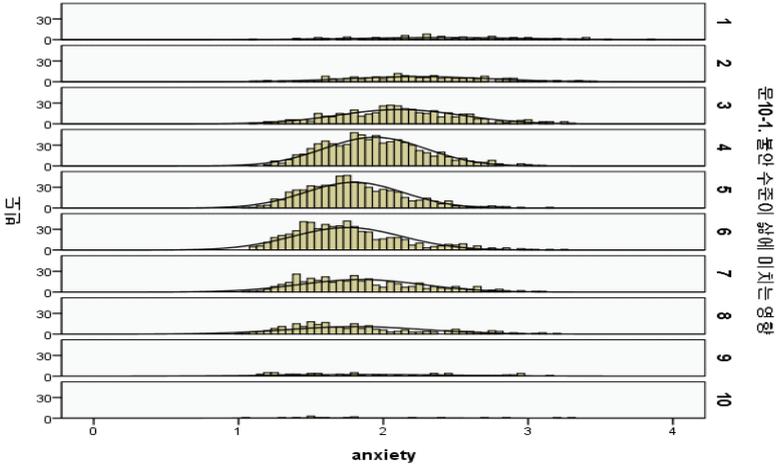
이러한 해석은 불안의 수준들이 갖는 영향의 전망과 응답자 규모를 고려한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불안 인식과 그 영향에 대한 입장의 관계는 개인의 불안과 개인 불안의 영향에 대한 입장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개인 불안과 성취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3-3]에서 보면 사례들의 분포가 그림의 우측보다 좌측, 그러니까 불안수준이 낮은 지점에 몰려 있다. 반면 사회적 불안 인식은 불안이 높은 지점에 사례가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단지 소수 사례만 불안이 높으면서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으로 응답하였다. 누가 불안 인식이 높는데 그 영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지, 또는 불안이 낮는데 그 영향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3-2]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의 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3-3] 개인 불안과 불안의 삶에 대한 영향 인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그러나 높은 불안 인지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을 보이거나, 낮은 불안 인지 수준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집단이 존재한다. 이 집단들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사회적 불안 인식을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그리고 중간 집단으로 분류하고⁶⁾ ‘사회적 불안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답을 기준으로 3개 집단으로 구분⁷⁾하여 이 집단의 특성을 교차, 9개 집단으로 구성하고 각 집단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6) 합산된 사회적 불안 인식의 값을 2점 이하의 불안이 낮은 집단으로, 4점 이상은 불안이 높은 집단으로, 기타는 중간 집단으로 처리하였다.

7) 사회 발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의 영향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사회 발전을 매우 저해할 것이다’ 1점~‘사회 발전에 매우 기여할 것이다’ 10점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1~3은 부정 응답으로 8~10은 긍정 응답으로, 기타는 중간 응답으로 처리하였다.

아래의 표를 보면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은 집단은 대부분 사회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전망한다.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은 집단 중 부정적 영향을 전망한 응답자는 64.7%에 이른다. 주목할 또 하나의 측면은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이 높는데 긍정적 영향을 전망한 집단은 전체 중 5.2%에 불과하고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은 집단 중에서도 13.7%이다.

〈표 3-12〉 사회적 불안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에 따른 집단별 구성

사회 발전 영향 인식		불안 수준		
		불안 고	불안 중	불안 저
부정 영향	명	883	729	35
	%	24.7(64.7)	20.4(36.3)	1.0(17.3)
중간 영향	명	294	1,078	147
	%	8.2(21.6)	30.2(53.7)	4.1(72.8)
긍정 영향	명	187	202	20
	%	5.2(13.7)	5.7(10.1)	0.6(9.9)
계		1,364 5.2(100.0)	2,009 5.7(100.0)	202 0.6(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불안 인식의 수준별 사회적 영향 전망을 분석한 결과, 높은 소득의 고학력 집단은 사회적 불안 인지가 낮아도 사회에 대한 불안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경향이 강하고, 반면 비도시지역의 저학력 여성,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사회적 불안 인식은 높아도 사회에 대한 영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 불안 인식이 낮으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집단은 그 규모가 매우 작다.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으나 긍정적 영향을 전망한 집단은 부정적 영향을 전망한 집단과 비교하여 객관적인 소득과 재산은 낮아도 주관적 소득계층 인식은 높았다.

〈표 3-13〉 사회적 불안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에 따른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징 비교
(단위: 세, 년, 명)

사회 발전 영향 인식		불안 수준				불안 고				불안 중				불안 저			
		사회적 불안	불공정	경쟁	사고	사회적 불안	불공정	경쟁	사고	사회적 불안	불공정	경쟁	사고				
부정 영향	성 ¹⁾	0.56	0.56	0.56	0.54	0.55	0.55	0.56	0.54	0.66	0.68	0.55	0.66				
	연령 ²⁾	53.92	54.16	53.80	54.25	54.81	54.85	54.72	54.38	56.63	56.48	56.49	54.59				
	지역 ³⁾	0.84	0.83	0.84	0.85	0.82	0.83	0.82	0.83	0.83	0.81	0.83	0.81				
	학력 ⁴⁾	17.16	17.18	17.16	17.23	17.26	17.28	17.24	17.12	17.54	17.74	17.51	17.44				
	가구 규모 ⁵⁾	3.02	3.02	3.10	3.02	3.02	3.01	2.96	2.99	2.83	2.84	2.74	3.09				
중간 영향	성 ¹⁾	0.43	0.46	0.43	0.42	0.49	0.49	0.48	0.46	0.44	0.37	0.49	0.52				
	연령 ²⁾	54.10	54.51	54.25	54.07	54.66	54.50	54.61	54.68	55.45	55.97	55.48	54.82				
	지역 ³⁾	0.81	0.80	0.80	0.80	0.81	0.82	0.82	0.82	0.80	0.79	0.78	0.79				
	학력 ⁴⁾	16.89	16.91	16.71	17.02	16.87	16.86	16.90	16.77	16.75	16.66	16.96	16.98				
	가구 규모 ⁵⁾	3.10	3.01	3.08	3.11	2.98	3.01	2.97	2.96	2.99	2.94	3.01	3.03				
긍정 영향	성 ¹⁾	0.36	0.39	0.39	0.32	0.49	0.51	0.48	0.46	0.55	0.45	0.42	0.62				
	연령 ²⁾	52.71	53.06	52.60	52.29	53.92	53.85	53.99	54.23	56.50	55.91	56.00	53.92				
	지역 ³⁾	0.82	0.83	0.83	0.86	0.84	0.83	0.86	0.82	0.95	0.95	0.81	0.87				
	학력 ⁴⁾	16.89	17.15	16.85	17.00	17.48	17.26	17.47	17.29	17.70	17.73	17.92	17.52				
	가구 규모 ⁵⁾	2.93	2.94	2.99	3.08	2.99	2.99	2.96	2.79	3.05	3.14	2.81	3.27				

주: 1) 성-남성 1, 여성 0.

2) 연령-만 나이.

3) 지역-도시 1, 농어촌 0.

4) 학력-교육 연수.

5) 가구규모-가구원 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84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45~64세 집단의 사회적 불안

〈표 3-14〉 사회적 불안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에 따른 집단별 경제적 특징 비교

사회 발전 영향 인식	불안 수준	불안 고				불안 중				불안 저			
	사회적 불안	불공정	경쟁	사고	사회적 불안	불공정	경쟁	사고	사회적 불안	불공정	경쟁	사고	
부정 영향	소득 ¹⁾	292	306	294	297	337	337	327	311	402	366	387	358
	재산 ²⁾	41,261	43,364	41,946	42,391	48,340	47,910	46,826	44,204	56,350	57,815	49,764	50,767
	실업 여부 ³⁾	0.94	0.94	0.94	0.93	0.95	0.93	0.94	0.94	0.89	0.90	0.91	0.96
	주관적 소득계층 ⁴⁾	2.23	2.33	2.25	2.26	2.59	2.59	2.52	2.39	2.94	3.00	2.75	2.73
중간 영향	소득 ¹⁾	288	295	288	296	307	310	307	302	352	343	349	326
	재산 ²⁾	37,821	39,343	36,293	41,976	43,553	44,358	44,457	41,881	53,532	54,097	51,612	47,761
	실업 여부 ³⁾	0.93	0.93	0.94	0.95	0.95	0.95	0.95	0.94	0.93	0.94	0.93	0.94
	주관적 소득계층 ⁴⁾	2.27	2.33	2.24	2.37	2.51	2.55	2.55	2.47	2.81	2.80	2.70	2.62
긍정 영향	소득 ¹⁾	272	288	275	262	317	311	312	319	355	330	357	314
	재산 ²⁾	33,687	36,242	35,257	34,243	42,866	42,974	41,383	41,076	62,663	55,000	57,048	47,464
	실업 여부 ³⁾	0.94	0.95	0.95	0.92	0.97	0.95	0.96	0.98	1.00	0.95	0.96	0.95
	주관적 소득계층 ⁴⁾	2.35	2.44	2.39	2.46	2.66	2.68	2.63	2.52	3.40	3.05	3.15	2.89

주: 1) 소득-가구 균등화 소득(만 원).

2) 재산-7개 재산 구간의 중간값(만 원).

3) 실업-실업 0, 비실업 1.

4) 주관적 소득계층-하층 1점, 중하층 2점, 중간층 3점, 중상층 4점, 상층 5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제4장

개인 심리·불안과 사회적 불안

제1절 분석 목적과 방법

제2절 개인 심리·불안과 사회적 불안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제4장 개인 심리·불안과 사회적 불안

제1절 분석 목적과 방법

1. 분석 목적

사회적 불안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안전사고, 불신의 경험,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유발되는 불안으로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느끼는 불안정한 기분이나 경험(이현주, 곽윤경, 전지현, 구혜란, 변금선, 2020)을 의미한다. 사회 불안은 그 용어에서 내포하듯 사회적 성격을 가진 개념으로, 불안 원인이 개인 기질에 관한 문제가 아닌 다수가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그럼에도 사회적 불안은 그 사회에 속한 사회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박수애, 송관재, 2005).

이러한 불안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혹은 신체적 및 심리적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사회 불안은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사회적 불안 해소를 위한 시위, 시민단체 가입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긍정적 방향의 적극적 행동을 하도록 이끌 수 있다. 반면 사회적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위축된 행동을 보이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부정적 및 위축된 행동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사실 개개인의 불안이 반영되어 사회 전체 구성원의 사회적 불안이 형성될 수도 있고, 사회 전체 불안이 반영되어 개

인 불안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기존 연구들에서도 확인했듯 정상적인 사회 불안 수준을 벗어날 경우 개인과 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은 명확하다.

IMF 경제위기 같은 사회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회구성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IMF 경제위기 후 국민 전체의 사망률, 특히 스트레스와 관련 깊은 순환기계 질환 중 심장질환 및 뇌혈관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했다(송영중, 2000). 박성훈(2021)은 사회적 불안과 개인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두려움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개인 및 가족 차원의 (차별과 혐오로 인한) 범죄 두려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밝혔다. 정상적 수준의 사회 불안과 사회 불안 장애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존재하진 않으나, 사회 불안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바로 개인의 웰빙 및 삶의 손상 가능성을 들 수 있다. Danneel et al.(2019)에 따르면, 사회 불안이 높은 사람은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 및 판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안이 높아지며(Clark & Wells, 1995), 자기 부정 편향(negative self-bias)이 심할 경우 우울증, 자살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 일상생활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Kim & Lee, 2021, p. 115에서 재인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한국의 중장년층은 한국 사회의 압축적 성장 과정의 중심에 있었음에 따라 여러 세기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사회문제(외환위기, 카드대란, 금융위기, 세월호, 메르스 및 코로나19 전염병 등의 사회문제,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로 발생한 노후준비와 부모 부양 및 자녀 양육 등의 사회환경 변화, 경제 위기 이후의 표준적 은퇴과정·노동생애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 등), 이로 인한 초래된 여러 유형의 불안을 모두 경험한 집단 중 하나이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불안 인식은 개인 심리·불

안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회적 불안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하지 않았으나 경험할 가능성만 다르게 생각해도 개인의 심리 및 불안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정기선(2000)은 IMF 외환위기 동안 직장을 갖고 있던 사람도 본인이 실직할 위험, 즉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인식함으로써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음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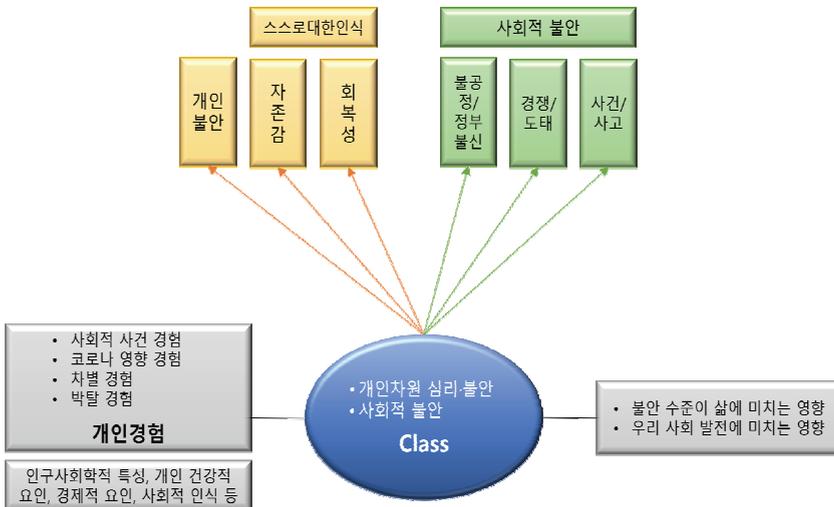
따라서 자신이 속한 사회가 불안하다고 지각하게 되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개개인의 심리적 인지 및 지각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든 조사 대상, 혹은 후기 중년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뿐 아니라 일반화에도 한계가 있다. 주관적 판단이 강한 불안 관련 연구에서 이들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을 경우 중간으로 통일되는 경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정책을 개발할 때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책의 효과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실질적 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 중 하나로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정책 대상자의 특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 의식하에 사회 불안 인식과 개인 심리·불안의 유형,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 대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개인의 심리·불안 유형과 사회 불안 인식 유형을 살펴보고, 특성 분석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불안은 대개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사건들로 유발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불안은 개인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적 사건 경험, 차별 및 박탈 경험을 중심으로 한 개인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정상 및

적정 수준의 불안이라는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지는 않으나, 개인 불안과 사회 불안이 개인의 삶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거나 개인의 웰빙 및 삶의 손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추가로 개인 심리·불안/사회 불안과 개인 삶(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관적 응답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 연구문제 1. 개인 심리·불안, 사회적 불안 유형과 이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사회적 불안 인식, 사회적 사건 경험, 사회적 인식(그 외 사회관계망 요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요인)과 개인 심리·불안 유형과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개인 심리·불안 유형별로 실제 개인 삶에 미치는 영향,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관적 응답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림 4-1] 연구모형



〈표 4-1〉 분석 틀 설명

개인 심리·불안과 사회 불안의 유형	개인의 심리·불안 유형	사회적 불안 유형
	개인 불안, 스스로에 대한 인식(자존감, 회복성) 결합 유형화	사회적 불안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
		경쟁/도태 불안
	사건/사고 불안	



사회적 사건 경험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4년 세월호 사고, 최근 코인 또는 주가 급락, 코로나19 관련 경험
차별 경험	성별, 연령, 장애, 외모, 학력, 직업 및 고용상태, 소득 및 자산, 지역에 의한 차별 경험
박탈 경험	건강, 돌봄, 주거, 교육 영역에서 박탈 경험

2. 분석 방법

가. 분석 방법 개요

본 장에서는 사회적 불안과 개인 차원의 심리·불안 변수를 중심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유형을 구분한 후, 다항로지트모형을 통한 예측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룹을 유형화하는 방법은 유사성과 거리에 기초하여 그룹화 후 각 군집 개수를 결정하는 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 비계층적 군집방법인 K-means 방법 등이 있다. 최근에는 연구대상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는 변수 중심적(variable-centered) 방법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person-centered)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방법을 활용한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잠재계층분석은 Lazarsfeld(1950)와 Lazarsfeld & Henry(1968)가 제안한 것으로 관찰 변수와 잠재변수를 수반하는 모형을 가지며, 잠재변수가 가지는 범주를 Latent Classes라 부른다. 기존 분석이 모집단 전체의 평균적 특성 관계

만을 추론하므로 인해 연구대상 각각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에서 출발한 분석방법이다. 본 방법은 연구대상을 각기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여 세분화된 유형별 특징을 연구하는 데 적절하다. 한 관찰치가 특정 집단에 속할 확률을 특정 집단 변수들의 조건 아래에서 관찰치가 관찰될 가능성(likelihood)으로 표시한 후, 사후집단(posterior) 확률값을 지닌 세분 집단으로 분류하는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활용한다.

잠재계층분석 방법 중 다층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적용한 연구들 또한 소개되고 있다(Van Eck, Johnson, Bettencourt, Johnson, 2017; 노연경, 이현정, 이은수, 홍세희, 2017). 관찰된 모든 변수가 연속적일 때 잠재계층분석은 때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이라고 한다. 잠재프로파일모델은 로지스틱 대신 선형 회귀를 사용하여 관찰된 결과를 모델링하면 된다(Huber, 2019).

〈표 4-2〉 Latent and Observed variables

	Continuous Latent	Categorical Latent
Continuous Observed	Factor analysis	Latent Profile Analysis
Categorical Observed	Latent trait analysis or Item Response Theory	Latent Class Analysis

자료: Huber, C. (2019). Latent class analysis using stata. University College London(October, 16, 2019.).

잠재계층분석에서 군집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로 IC(Information Criteria)를 고려한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이다. AIC는 두 개 이상의 모델 비교를 통해 우도가 가장 적게 감소하는 것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표본의 수를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

는 단점을 가짐에 따라, BIC에 근거, 두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그룹을 세분화한다. 더 많은 계층을 가진 모형이 적은 계층 모형보다 자료에 잘 적합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요인분석의 경우 스크리 표(scree table)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구간에서의 요인 수를 결정하듯, AIC와 BIC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구간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할 수 있다(Petras & Masyn, 2010; 노언경, 홍세희, 2012, p. 64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잠재계층과 예측변수들 사이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 예측변수가 잠재계층 분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다항로지트계수를 구한다. 한 집단을 기준집단(reference group)으로 하여 나머지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한다.

나. 변수 구성

1) 개인 심리·불안과 사회적 불안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으로서 사회적 불안과 개인에 대한 인식으로서 자존감, 회복성, 그리고 개인 불안을 조사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은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인식과 24개의 사회적 불안 척도 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적 불안 인식이 있다.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인식과 달리 사회적 불안 인식은 불안 수준뿐만 아니라 불안 내용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기존 관련 연구들에서도 사회적 불안은 다면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음에 따라(최인철, 김범준, 2005;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 2004; 이현주 외, 2020 재인용) 본 장에서도 사회적 불안의 다면적 성격을 담고 동시에 차원 축소를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 유형

화된 변수를 활용한다. 세부적인 24개 질문 항목의 경우 문항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상관이 높은 문항으로 묶은 결과 3개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추출된 3개의 요인은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 경쟁/도태 불안, 사건/사고 불안으로 개념화된다.

다음으로 개인 차원의 심리·불안은 개인 불안, 자존감, 회복성을 사용한다. 우선, 개인 불안은 단일 변수로 현재 얼마나 불안을 느끼는지를 묻는 문항과 함께 20개의 개인 불안 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은 감정, 정서 또는 기분으로 표현되는 정신적인 현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Zung의 정동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을 망라하는 자기보고식 불안 척도를 사용한다. 사회적 불안 변수와 동일한 사유로 단일 문항이 아닌 20개 개인 불안 척도를 종합하여 평균을 구한 지수 점수를 사용한다.

다음으로, 스스로에 대한 인식으로 2개의 자존감 척도 문항과 4개의 회복성 척도 문항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된 변수 또한 개인 심리·불안 변수로서 활용한다. 자존감은 개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로 자신에 대한 가치, 수용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Zimmerman, Copeland, & Shope, 1997; 김혜미, 문혜진, 장혜림, 2015, p. 1에서 재인용). 자존감은 개인 불안, 대인관계와 적응, 삶의 만족도 등 개인 심리 측면을 포괄하는 중요한 내적 자원으로 작동한다(정익중, 2007). 자존감의 불변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한번 형성된 자존감은 대부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생애에 걸쳐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Wylie, 1979). 반면 사회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건의 경험, 변화 등과 맞물려 변화된다는 주장도 있다(Trzesniewski, Robins, Roberts, & Caspi, 2004; 김혜미, 문혜진, 장혜림, 2015에서 재인용). 최효식, 연은모, 윤영, 홍윤정(2013)의 연구에서도 개인의 심리적 특성 유형으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을 함께 고려하여 심리적 특성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이현주 외(2020) 연구에서도 개인 불안과 자기효능감을 개인 차원의 심리적 자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외 연구에서도 심리적 건강 요소로 자존감과 불안 등의 상관관계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송기숙, 2007; Steiger, Allemand, Robins, & Fend, 2014).

특히 후기 중년의 경우 개인 차원에서 은퇴, 빈 둥지 가족 등으로 인한 역할 상실, 사별, 사회적 관계의 축소, 노화 등 성장보다는 상실과 손실의 특성을 겪기 시작하는 시기로, 부정적 자기개념의 강화, 즉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자존감, 회복성 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차원의 심리·불안은 개인 불안, 스스로에 대한 인식(자존감, 회복성) 변수를 활용하였다.

〈표 4-3〉 사회 불안, 개인 심리·불안 변수 설명

개념 구분	변수	변수 설명
사회 불안	사회적 불안 인식	24개 사회적 불안 척도 평균점수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 요인 11개 변수 평균
	경쟁/도태 불안	경쟁/도태 불안 요인 7개 변수 평균
	사건/사고 불안	사건/사고 불안 요인 4개 변수 평균
개인 심리·불안	현재 불안	현재 불안 정도(1. 전혀 불안하지 않다 2. 별로 불안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불안하다 5. 매우 불안하다)
	개인 불안지수	20개 개인 불안 척도 평균점수 (1. 그렇지 않다 2. 가끔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항상 그렇다)
	자존감	자존감 2개 척도 평균점수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 4개 척도 평균점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표 4-4〉 사회적 불안 척도 변수

요인	설문 문항
불공정 /정부 불신 불안	문2(21) 정부가 하는 일은 믿을 수 없을 때가 많다
	문2(22) 정부의 위협/위기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
	문2(9) 우리 사회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문2(10)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보다는 편법이 더 잘 통한다
	문2(11)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문2(5)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문2(6) 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고 연줄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문2(8)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문2(19)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집단이기주의가 심하다
	문2(23) 우리나라의 정치는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2(20)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을지 혼란스럽다	
경쟁/ 도태 불안	문2(1)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 같다
	문2(2)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나만 모르게 될 것 같다
	문2(3)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라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 어렵다
	문2(4) 현재의 취업불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문2(7) 직장, 학교 등 소속된 조직이나 모임에 적응하기 어려울까 봐 불안하다
	문2(17) 우리 사회는 변하는 것이 많고 변화속도가 빨라서 적응하기 어렵다
	문2(18)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뛰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사건/ 사고 불안	문2(12) 다른 사람과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다
	문2(13)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하는 일을 믿을 수 없다
	문2(14)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가끔 안전사고의 위협을 느낀다
	문2(15) 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표 4-5〉 개인 심리·불안 변수

요인	설문 문항
개인 불안	문9(1) 나는 요즘 전보다 신경질적이고 불안하다
	문9(2) 나는 이유 없이 두려워진다
	문9(3) 나는 사소한 일에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른다
	문9(4) 나는 신경이 극도로 약해져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문9(5) 나는 만사가 순조로울 것 같다
	문9(6) 나는 손발이 떨리고 안절부절못한다
	문9(7) 나는 머리가 아프고 목덜미가 무겁거나 혹은 허리가 아프다
	문9(8) 나는 쉽게 무기력하고 피곤해진다
	문9(9) 나는 마음이 안정되고 편하게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다
	문9(10) 나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문9(11) 나는 어지러워서 고생한다
	문9(12) 나는 졸도하거나 졸도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다
	문9(13) 나는 무리 없이 숨쉴 수 있다
	문9(14) 나는 손에 쥐가 나가거나 저려서 고생을 한다
	문9(15) 나는 소화가 안 되어 고생을 한다
	문9(16) 나는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문9(17) 내 손은 평소 심하게 땀이 나지도 않고 차지 않게 유지된다
	문9(18) 나는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화끈거린다
	문9(19) 나는 쉽게 잠이 들고 깊이 잔다
	문9(20) 나는 꿈자리가 사납다
자존감	문19(1)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문19(6) 나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회복 탄력성	문19(2) 나는 어려운 일이 닳쳤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문19(3)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아챈다
	문19(4)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했 때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문19(5)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별로 없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 개인 심리·불안의 예측 요인과 삶의 영향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하여 개인의 심리·불안 특성과 사회적 불안 특성에 따라 어떤 잠재계층이 존재하는지, 특히 개인의 심리·불안 잠재계

층별 사회적 불안 인식과의 관계를 확인 후, 개인의 심리·불안 잠재계층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개인의 사회적 사건, 차별/박탈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사회적 불안 인식 변인을 중심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 건강적 요인, 사회관계망, 경제적 요인에 대해 탐색하였다.

사회적 불안, 개인의 사회적 사건, 차별/박탈에 대한 경험 및 인식과 개인의 심리·불안 잠재계층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불안은 대개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박수애, 송관재, 2005). 박수애, 송관재(2005)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사건들로 유발된 사회적 불안은 그 사회에 속한 사회구성원들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사회적 불안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한 예로 IMF 경제위기 전 후의 국민 건강(질병이환율, 의료이용, 사망률 등)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국민 전체의 사망률, 특히 스트레스와 관련 깊은 순환기계 질환(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으로 인한 사망률이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다(송영중, 2000). 또한 이러한 사건을 실제 경험하지 않았으나 경험할 가능성만 다르게 생각해도 그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심리적으로 상당한 긴장 및 불안을 겪는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정기선, 2000; Fox & Chancey, 1998; Kinnunen & Pulkkinen, 1998).

자원부족 또는 자원의 박탈, 그리고 차별의 경험 또한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자존감 원천들의 결핍을 의미하기도 하며 (Branden, 2021),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개인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박탈 및 차별 경험은 사회적 신뢰의 실추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에 부정적 반응을 일으킨다(Wilkinson & Pickett, 2011).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사회적 사건 경험과 차별, 박탈 경험, 그리고 사회적 불안 인식을 중심으로 개인 심리·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4-6〉 사회 불안, 개인 심리·불안의 설명 요인 변수

개념 구분	변수	변수 설명 및 처리
개인 경험	사회적 사건 경험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4년 세월호 사고, 최근 코인 또는 주가 급락 관련 사회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문제 경험 여부 → 경험 있는 경우 1로 처리하여 합산
	코로나19 영향 경험	코로나19 관련 건강, 여가·문화·친교·종교활동 감소 및 사회적 고립, 일자리 불안·소득 감소, 가족 관련 경험 여부 → 부정적 영향 있는 경우 1로 처리하여 합산
	차별 경험	성별, 연령, 장애, 외모, 학력, 직업 및 고용상태, 소득 및 자산, 지역의 8개 종류의 차별 경험 건수 → 경험 있는 경우 1로 처리하여 합산
	박탈 경험	건강, 돌봄, 주거, 교육의 4개 종류의 박탈 경험 → 경험 있는 경우 1로 처리하여 합산
사회적 인식	사회신뢰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
	차별 인식	성별, 연령, 장애, 외모, 학력으로 인한 차별에 대한 인식 평균
	불평등 인식	교육기회, 취업기회, 승진기회, 소득, 자산(부동산 등 재산)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평균
사회적 불안	사회적 불안 인식	24개 사회적 불안 척도 평균점수(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 요인 11개 변수 평균
	경쟁/도태 불안	경쟁/도태 불안 요인 7개 변수 평균
	사건/사고 불안	사건/사고 불안 요인 4개 변수 평균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성별
	연령	연령(만 45~49세, 만 50~54세, 만 55~59세, 만 60~64세)
	교육수준	1. 중졸 이하, 2. 고등학교 졸, 3. 대졸 이상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별거, 사별, 이혼, 미혼)
	가구규모	가족 수(1인~5인 이상)
	거주지역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사회 관계망	사회적 지원망 수	사회적 지지망 관련 3개 문항의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합산
	공적 지원 수급	정부지원 수혜 여부 합산

개념 구분	변수	변수 설명 및 처리
개인 건강적 요인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1. 나쁘다, 2. 보통, 3. 좋다)
경제적 요인	재산	가구 재산 수준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
	주거형태	자가 여부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 상태(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실업자, 비경활)
	은퇴 여부	생애 주된 일자리 은퇴 여부(은퇴하지 않고 일함, 은퇴했으나 일하고 있음, 은퇴했음, 일 경험 없음)
노후준비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되)어 있지 않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다음으로, 개인 심리·불안 및 사회적 불안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를 추가로 살펴본다. 걱정 수준의 불안은 개인 차원에서 긴장감을 통해 개인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개인 일상생활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 불안도 평화 시위와 같은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폭동 같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정상 및 걱정 수준의 불안이라는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지는 않으나 개인 불안과 사회 불안이 개인의 삶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거나 개인의 웰빙 및 삶의 손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개인 심리·불안/사회 불안과 삶의 영향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표 4-7> 사회 불안, 개인 심리·불안의 삶에 미치는 영향 변수

개념 구분	변수	변수 설명
개인 차원	불안 수준이 삶에 미치는 영향	1. 내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10. 내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 차원	사회적 불안이 우리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	1. 사회 발전을 매우 저해할 것이다 ~10. 사회 발전에 매우 기여할 것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제2절 개인 심리·불안과 사회적 불안 분석 결과

1. 개인 심리·불안 유형과 사회적 불안 유형

가. 모형적합도 비교

잠재계층의 개수가 2개부터 5개에 이르는 모형들의 모형적합도는 아래 표와 같다. 정보지수 AIC와 BIC의 경우 잠재계층의 수가 증가할수록 좋은 모형으로 나타났다. 표본 크기가 큰 경우에 모형이 복잡할수록 AIC와 BIC는 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Jedidi, Jagpal, & DeSarbo, 1997). 요인분석의 경우 스크리 표(scree table)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구간에서의 요인 수를 결정하듯, AIC와 BIC는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구간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할 수 있다(Petras & Masyn, 2010; 노연경, 홍세희, 2012에서 재인용). 또한 분류 비율은 추가 고려 사항으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이 1% 미만인지를 살펴보았다(Jung & Wickrama, 2008). 집단으로서 너무 작은 규모는 의미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Jung & Wickrama, 2008; 노연경, 이현정, 이은수, 홍세희, 2017에서 재인용).

개인 심리·불안, 사회 불안 모두 잠재계층 수가 2개에서 3개로 증가할 때 AIC와 BIC 모두 감소하는 폭이 가장 컸다. 그러나 잠재계층 유형별 소속된 개인의 수 및 비율, 분류된 잠재계층의 해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잠재계층 수가 4개인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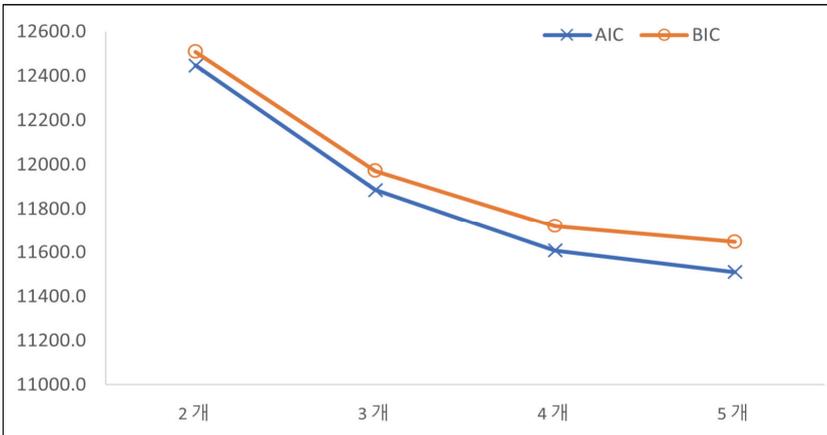
102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45~64세 집단의 사회적 불안

〈표 4-8〉 잠재계층의 개수에 따른 모형적합도

기준		잠재계층 수				
		2개	3개	4개	5개	
개인 심리 불안	정보 AIC	12446.8	11885.4	11608.9	11511.0	
	지수 BIC	12508.6	11971.9	11720.2	11647.0	
	분류율		37.8%	28.3%	3.7%	0.6%
			62.2%	63.1%	32.7%	10.9%
사회 불안	정보 AIC	17328.2	16529.2	16270.7	16187.1	
	지수 BIC	17390.0	16615.8	16382.0	16323.1	
	분류율		38.2%	16.7%	6.1%	2.2%
			61.8%	56.9%	30.8%	13.6%
			26.5%	49.2%	36.3%	
				13.8%	38.2%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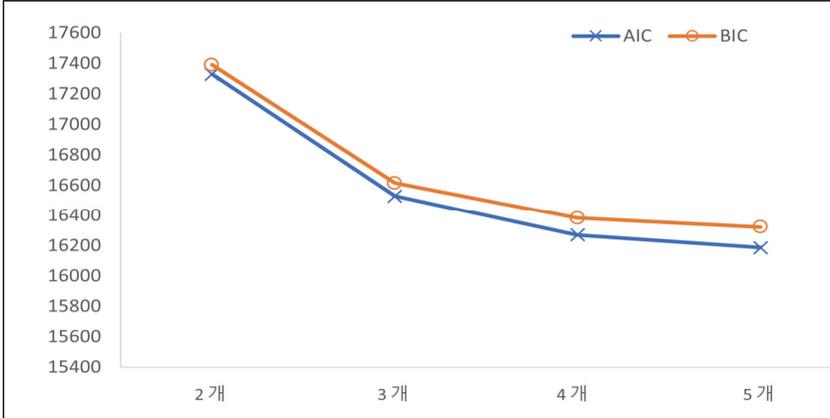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4-2〕 개인 심리·불안 잠재계층 수 증가에 따른 AIC, BIC 변화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4-3] 사회 불안의 잠재계층 수 증가에 따른 AIC, BIC 변화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나. 개인 심리·불안 유형 특성

잠재계층분류 기준에 따라 4개로 분류된 잠재계층 특성은 아래 표와 그림과 같다. 자존감, 회복성은 1. 전혀 그렇지 않다(부정),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긍정)로 측정하며, 개인 불안 평균점수는 1. 그렇지 않다(긍정), 2. 가끔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항상 그렇다(부정)로 측정하였다. 잠재계층별 개인 심리·불안의 계수와 표준오차를 고려하여, 4개 집단의 이름을 각각 ‘자기부정 불안’, ‘불안’, ‘안정’, ‘자기긍정 안정’으로 명명하였다. 구체적인 각 유형의 특징으로, 첫 번째 집단은 개인 불안 수준과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다른 집단과 비교 시 자존감 및 회복성 등 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은 특성과 함께 높은 개인 불안 수준을 보였다. 이 집단은 소수인 3.1%가 속했다. 두 번째 집단은 전체의 31.75%가 속한 집단으로, 개인 불안 수준과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모두 전체 평균 수준보다 높은 특성을 보였다. 세 번째 집단은 전체 58.49%로 가장 많은 사람이 속한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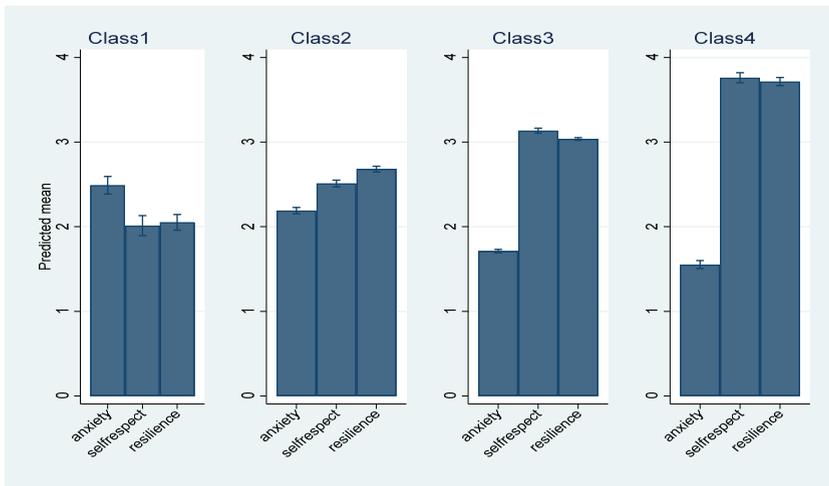
단이다. 개인 불안 수준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 집단은 전체 6.66%가 속한 집단으로, 불안 수준이 낮으며 본인에 대한 긍정 인식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특히 개인 스스로에 대한 긍정 인식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다.

<표 4-9> 개인 심리·불안에 대한 잠재계층 특성

	자기부정 불안		불안		안정		자기긍정 안정		전체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m	s.d
불안	2.49	0.05	2.19	0.02	1.71	0.01	1.55	0.02	1.88	0.44
자존감	2.01	0.06	2.51	0.02	3.14	0.02	3.76	0.03	2.94	0.57
회복력	2.05	0.05	2.68	0.02	3.04	0.01	3.72	0.02	2.94	0.41
수	111		1,135		2,091		238		3,575	
비율	3.1		31.75		58.49		6.66		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4-4] 개인 심리·불안에 대해 분류된 잠재계층의 특성



주: Class1=자기부정 불안, Class2=불안, Class3=안정, Class4=자기긍정 안정.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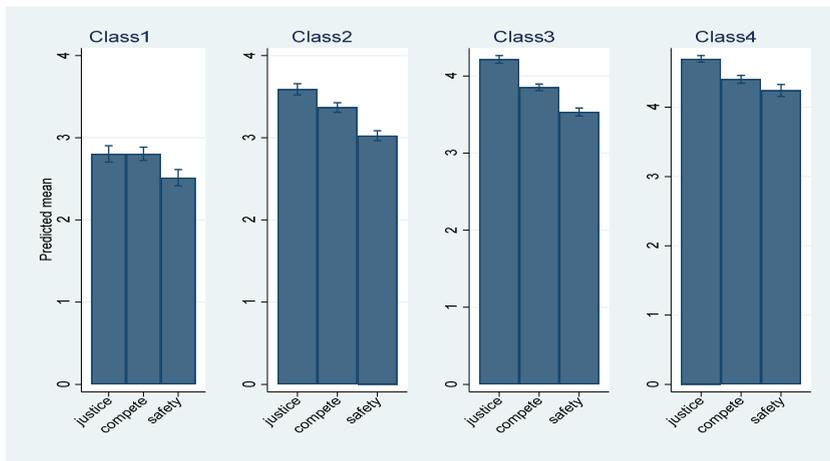
두 번째 집단은 전체 평균 수준의 경계선상에서 조금 더 낮은 불안 특성을 보이는 집단으로 30.66%가 여기에 속한다. 세 번째 집단은 전체의 51.27%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한 집단으로 세 가지 요인의 불안 모두 보통(3. 보통이다)보다 높은 불안 수준을 보였다. 네 번째 집단은 불안 수준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며, 특히 불공정/정부 불신 관련 불안 수준은 4.7점으로 매우 높은 불안 특성을 보였다.

<표 4-10> 사회적 불안에 대한 잠재계층 특성

	안정		경계안정		경계불안		고불안		전체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m	s.d
불공정/ 정부 불신	2.80	0.05	3.59	0.03	4.21	0.03	4.70	0.02	4.00	0.60
경쟁/도태	2.80	0.04	3.37	0.03	3.85	0.02	4.40	0.03	3.72	0.54
사건/사고	2.51	0.05	3.03	0.03	3.53	0.03	4.24	0.04	3.41	0.68
수	192		1,096		1,833		454		3,575	
비율	5.37		30.66		51.27		12.7		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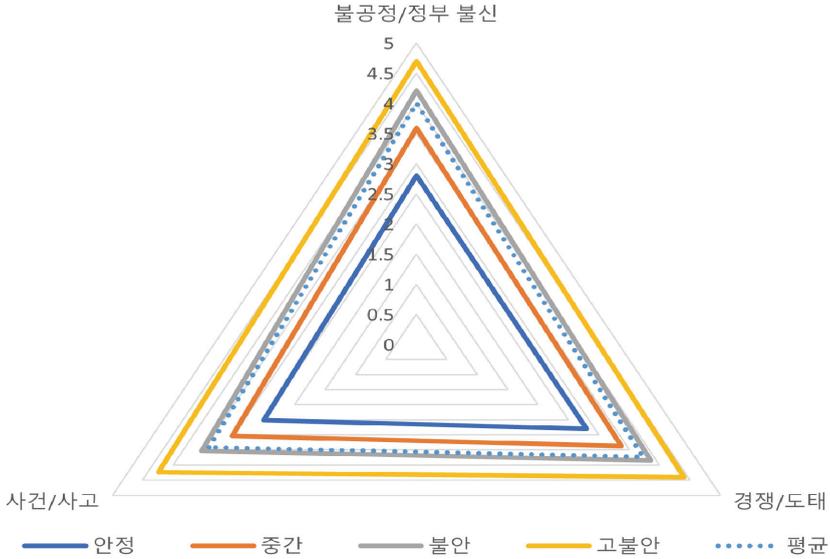
[그림 4-6] 사회적 불안에 대해 분류된 잠재계층의 특성



주: Class1=안정, Class2=중간, Class3=불안, Class4=고불안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4-7] 전체 평균 대비 사회적 불안 잠재계층 유형별 반응패턴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 개인 심리·불안 유형 특성 분석

사회 수준의 불안과 개인적 불안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개인의 불안이 반영되어 사회 전체 구성원의 사회적 불안이 형성될 수도 있고, 사회 불안이 반영되어 개인 불안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사회경제적 불안정이 개인의 불안을 높이고 개인 불안의 악화는 개인 삶 및 사회 발전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점이다. 즉 사회적 불안이란 것은 대개 자신이 직접 및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사건들로 유발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불안은 개인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Hüther(2019)는 특정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전과정에서

사회적 기피 현상과 불안,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자기 이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개인 심리정서적 불안 유형을 중심으로 유형별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 정도, 예측요인, 개인 삶에 미치는 주관적 영향 등에 관해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개인 심리·불안 유형별 사회적 불안

〈표 4-11〉은 개인 심리·불안 유형별 사회적 불안 인식 점수를 나타낸 표이다. 개인 불안과 사회적 불안 관계는 유사한 특성을 보이거나, 이 중에서도 높은 개인 불안 수준과 동시에 자존감 및 회복성 등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이는 ‘자기부정 불안’ 유형의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은 5점 만점에서 4.23점으로 모든 유형 중 가장 높다. 특히 이들은 불공정/정부 불신, 경쟁/도태 불안 영역에서 평균 4.42점, 4.15점으로 ‘매우 불안하다’에 가까운 수준을 보인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한 집단으로 개인 불안 수준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는 집단인 ‘안정’ 유형과 개인 불안 수준이 낮으며 개인 스스로에 대한 긍정 인식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는 ‘자기긍정 안정’ 유형에서도 불공정/정부 불신 영역은 평균 4점에 가까운 수준(각각 3.94점, 3.90점)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개인 심리·불안 유형별 사회적 불안 인식 점수

(단위: 점)

개인 심리·불안 유형	수	사회적 불안				
		항목	mean	S.D	min	max
자기부정 불안	111	사회적 불안 인식	4.23	0.49	2.77	5.00
		불공정/정부 불신	4.42	0.54	2.55	5.00
		경쟁/도태	4.15	0.53	2.71	5.00
		사건/사고	3.84	0.67	2.00	5.00
불안	1,135	사회적 불안 인식	3.95	0.48	1.50	5.00
		불공정/정부 불신	4.10	0.57	1.18	5.00
		경쟁/도태	3.89	0.49	2.29	5.00
		사건/사고	3.62	0.61	1.00	5.00
안정	2,091	사회적 불안 인식	3.72	0.48	1.86	5.00
		불공정/정부 불신	3.94	0.58	1.64	5.00
		경쟁/도태	3.62	0.51	1.71	5.00
		사건/사고	3.30	0.65	1.00	5.00
자기긍정 안정	238	사회적 불안 인식	3.67	0.63	1.50	4.95
		불공정/정부 불신	3.90	0.72	1.64	5.00
		경쟁/도태	3.56	0.66	1.57	5.00
		사건/사고	3.22	0.84	1.00	5.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추가로 개인 심리·불안유형과 사회적 불안 수준(불안 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의 결합 확률도 살펴봤다. 개인 수준에서 ‘자기부정 불안’이면서 사회적 불안이 낮은 비율은 0.00%, 사회적 불안이 중간 수준인 비율은 0.73%로 개인의 심리·불안이 높은 사람이 사회적 불안이 낮을 가능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개인 차원에서의 심리·불안 상태는 ‘안정’ 유형임에도 사회적 불안이 매우 높은 사람은 17.54%로 전체 결합 확률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 심리·불안 유형과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 중 개인 수준의 불안은 안정적이나 사회 불안은 중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개인 수

준의 불안은 안정적이거나 사회 불안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17.54%로 높게 나타났다.

즉 개인의 심리·불안 유형과 사회적 불안 관계를 종합하면, 개인의 심리·불안이 높은 사람이 사회적 불안 인식이 안정적일 가능성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의 심리·불안 상태가 안정적인 사람들도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있어서는 불안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2〉 개인 심리·불안 유형별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 명)

개인 심리·불안 유형	사회 불안 수준	결합 확률	빈도
자기부정 불안	사회 불안 저	0.00	0
	사회 불안 중	0.73	26
	사회 불안 고	2.38	85
불안	사회 불안 저	0.03	1
	사회 불안 중	15.61	558
	사회 불안 고	16.11	576
안정	사회 불안 저	0.03	1
	사회 불안 중	40.92	1,463
	사회 불안 고	17.54	627
자기긍정 안정	사회 불안 저	0.06	2
	사회 불안 중	4.48	160
	사회 불안 고	2.13	76

주: 합산된 사회적 불안 인식의 값을 2점 이하의 불안이 낮은 집단으로, 4점 이상은 불안이 높은 집단으로 기타는 중간 집단으로 처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나. 개인 차원 심리·불안의 예측요인

다음으로 개인 차원의 심리·불안 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사회적 불안 인식, 사회적 사건의 경험 및 차별·박탈

경험/인식을 중심으로 한 예측변수가 개인 심리·불안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려주는 다항로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안정’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나머지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표 4-13〉에서 개인 심리·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 개인의 경험 특성과 관련해 살펴보면, 사회적 사건(외환위기, 금융위기, 세월호 사고, 최근 코인 또는 주가 급락 등)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자기부정 불안’과 ‘불안’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지난 10년간 차별을 경험한 적이 많을수록 ‘자기부정 불안’과 ‘불안’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부정 불안’과 ‘불안’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인식과 관련해서는 사회 신뢰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부정 불안’과 ‘불안’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불안 인식 변수를 모형에 포함할 경우 사회 신뢰도 관련 유의한 효과는 사라질 뿐만 아니라 계수 크기 또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4-14〉의 사회적 불안 영역별 점수와 개인 심리·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쟁/도태 불안 영역의 불안 인식이 높을수록 ‘자기부정 불안’과 ‘불안’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안전 관련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 심리·불안이 불안정한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공정/정부 불신 영역의 불안 인식이 낮은 사람일수록 개인 차원에서의 ‘안정’ 유형보다 ‘불안’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관계망 크기, 즉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수가 많을수록 ‘자기긍정 안정’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수가 적을수록 ‘자기부정 불안’, ‘불안’ 집단과 같이 개인 불안과 자기 부정 인식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 수혜 경험이 많은 사람일

수록 '자기긍정 안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요인과 관련해 살펴보면, 가구 재산이 낮은 사람일수록, 평생 소득을 목적으로 일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부정 불안'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일수록 '자기부정 불안' 집단, '불안'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해 여성일수록 '자기긍정 안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후기 중년 중에서도 45~49세의 젊은 연령일수록 '자기부정 불안'과 '불안'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자기부정 불안'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농어촌 거주자일수록 '자기긍정 안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건강이 나쁠수록 '자기부정 불안'과 '불안'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사회적 불안과 개인 심리·불안과의 관계성을 요약해보면, 사회적 사건과 차별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부정 불안', '불안'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 불안 영역 중 경쟁/도태 불안과 관련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부정 불안', '불안' 집단 순으로 속할 가능성이 높다. 경쟁/도태 불안은 취업불황, 주택가격 감당 어려움, 경쟁 과열 사회 등과 관련된 문항들로 이뤄진 영역이다. 실제 '자기부정 불안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 재산이 낮을수록, 일한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일수록, 사회관계망 크기가 작은 사람일수록, 젊은 연령일수록, 건강이 나쁠수록 본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불안' 집단 또한 '자기부정 불안' 집단과 유사하게 사회적 사건과 차별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회적 불안 영역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불공정/정

부 불신 관련 부정적 인식은 낮고, 사고/안전 인식 관련 부정적 인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본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외 요인 또한 '자기부정 불안' 집단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거나, 가족 수와 가구 재산, 은퇴 및 현재 근로상태와는 유의한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

〈표 4-13〉 개인 심리·불안 잠재계층과 예측변인의 관련성-사회적 불안 인식 점수

	사회적 경험		사회적 경험·인식		사회적 경험+사회적 불안		사회적 경험·인식+사회적 불안	
	자기부정 불안	자기긍정 안정	자기부정 불안	자기긍정 안정	자기부정 불안	자기긍정 안정	자기부정 불안	자기긍정 안정
사회신뢰 (높을수록 긍정)			-0.39*** (0.144)	0.04 (0.096)			-0.16 (0.147)	-0.01 (0.102)
차별 인식 (높을수록 부정)			0.06 (0.245)	0.11 (0.159)			-0.16 (0.246)	0.15 (0.163)
박탈 인식 (높을수록 부정)			0.32 (0.263)	0.15 (0.153)			-0.24 (0.282)	0.25 (0.167)
사건	0.13** (0.052)	0.11*** (0.033)	0.12** (0.053)	0.11*** (0.033)	0.10* (0.054)	0.10*** (0.019)	0.10* (0.054)	0.11*** (0.019)
개 인 인 사	0.12 (0.103)	0.00 (0.042)	0.10 (0.105)	-0.08 (0.078)	0.05 (0.106)	-0.02 (0.042)	0.05 (0.106)	-0.02 (0.078)
경 험	0.02 (0.054)	-0.04 (0.047)	0.03 (0.055)	-0.06 (0.047)	0.04 (0.055)	-0.03 (0.024)	0.03 (0.055)	-0.03 (0.047)
차별	0.17*** (0.051)	0.09*** (0.039)	0.13*** (0.053)	-0.06 (0.040)	0.12*** (0.053)	0.07*** (0.021)	0.13*** (0.054)	0.08*** (0.040)
사회적 불안 인식					1.53*** (0.258)	0.51*** (0.092)	1.68*** (0.339)	0.67*** (0.122)
여성	-0.14 (0.223)	-0.08 (0.086)	-0.16 (0.226)	0.30** (0.148)	-0.17 (0.228)	-0.09 (0.087)	-0.16 (0.229)	0.29*** (0.150)

	사회적 경험		사회적 경험·인식		사회적 경험+사회적 불안		사회적 경험·인식+사회적 불안	
	자기부정 불안	자기긍정 인정	자기부정 불안	자기긍정 인정	자기부정 불안	자기긍정 인정	자기부정 불안	자기긍정 인정
건강 좋다	-2.15 ^{***} (0.386)	-1.42 ^{***} (0.128)	-2.03 ^{***} (0.388)	0.55 ^{***} (0.241)	-2.05 ^{***} (0.389)	0.55 ^{***} (0.241)	-2.02 ^{***} (0.390)	0.53 ^{***} (0.242)
재산	-0.16 ^{**} (0.081)	0.00 (0.032)	-0.16 ^{**} (0.082)	0.03 (0.058)	-0.18 ^{**} (0.083)	-0.00 (0.058)	-0.18 ^{**} (0.083)	0.00 (0.058)
가구소득	-0.11 (0.103)	-0.07 (0.042)	-0.13 (0.105)	-0.02 (0.076)	-0.11 (0.106)	-0.02 (0.076)	-0.11 (0.106)	-0.07 (0.076)
자가 아님	-0.23 (0.262)	0.12 (0.101)	-0.21 (0.264)	0.28 (0.175)	-0.19 (0.266)	0.28 (0.175)	-0.18 (0.267)	0.26 (0.175)
은퇴 일	0.04 (0.277)	-0.13 (0.106)	0.02 (0.279)	-0.00 (0.172)	-0.02 (0.281)	-0.00 (0.172)	-0.00 (0.282)	-0.01 (0.172)
은퇴 일 안 함	-0.17 (0.303)	-0.14 (0.208)	-0.26 (0.308)	-0.22 (0.209)	-0.20 (0.309)	-0.21 (0.208)	-0.20 (0.310)	-0.23 (0.209)
일한 적 없음	1.56 ^{***} (0.455)	-0.16 (0.295)	1.56 ^{***} (0.459)	-0.44 (0.497)	1.60 ^{***} (0.474)	-0.12 (0.495)	1.60 ^{***} (0.475)	-0.11 (0.497)
노후준비 안 함	0.90 ^{***} (0.255)	0.33 ^{***} (0.089)	0.80 ^{***} (0.259)	-0.19 (0.170)	0.77 ^{***} (0.258)	0.29 ^{***} (0.089)	0.77 ^{***} (0.260)	0.30 ^{***} (0.171)
Constant	-1.81 (1.379)	1.32 ^{**} (0.596)	-2.19 (1.799)	-2.68 ^{***} (1.349)	-7.80 ^{***} (1.749)	-0.63 (0.693)	-6.41 ^{***} (1.996)	-1.91 (1.440)
obs	3.575	3.575	3.575	3.575	3.575	3.575	3.575	3.575

주: 1) 상벨(기준: 남성), 연령(기준: 45~49세), 교육수준(기준: 중졸 이하), 혼인관계(기준: 배우자 있음), 거주지역(기준: 대도시), 주관적 건강상태(기준: 건강 나쁨), 주거형태(기준: 자가), 생애 주된 일자리 은퇴 여부(기준: 은퇴하지 않고 현재 일을 하고 있음), 노후준비(기준: 준비하고 있음).

2)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표 4-14〉 개인 심리·불안 잠재계층과 예측변인-사회적 불안 영역

	사회적 경험+사회적 불안 영역			사회적 경험·인식+사회적 불안 영역			
	자기부정 불안	불안	자기긍정 안정	자기부정 불안	불안	자기긍정 안정	
사회신뢰 (높을수록 긍정)				-0.25 (0.152)	-0.14** (0.061)	-0.01 (0.105)	
차별 인식 (높을수록 부정)				-0.14 (0.247)	0.00 (0.097)	0.16 (0.163)	
박탈 인식 (높을수록 부정)				-0.17 (0.288)	-0.10 (0.104)	0.23 (0.169)	
개인 경험	사건	0.09* (0.054)	0.10*** (0.020)	-0.01 (0.033)	0.09* (0.054)	0.10*** (0.020)	-0.02 (0.033)
		코로나19	0.03 (0.107)	-0.04 (0.043)	-0.08 (0.078)	0.03 (0.107)	-0.04 (0.043)
	박탈	0.04 (0.055)	-0.03 (0.025)	-0.06 (0.047)	0.03 (0.055)	-0.03 (0.025)	-0.06 (0.047)
		차별	0.11** (0.053)	0.06*** (0.021)	-0.04 (0.039)	0.12** (0.054)	0.06*** (0.022)
	불공정/정부 불신	0.37 (0.288)	-0.49*** (0.097)	0.07 (0.148)	0.35 (0.338)	-0.53*** (0.117)	-0.13 (0.181)
	경쟁/도태	1.07*** (0.306)	0.69*** (0.111)	-0.01 (0.170)	1.16*** (0.311)	0.73*** (0.113)	-0.05 (0.171)
사고/안전	0.29 (0.204)	0.51*** (0.080)	-0.10 (0.125)	0.26 (0.207)	0.49*** (0.081)	-0.11 (0.126)	
여성	-0.21 (0.230)	-0.17* (0.088)	0.31** (0.149)	-0.21 (0.231)	-0.18** (0.089)	0.30** (0.150)	
50~54세	-0.47* (0.270)	-0.19* (0.113)	-0.25 (0.216)	-0.47* (0.271)	-0.19* (0.114)	-0.25 (0.216)	
55~59세	-0.72* (0.293)	-0.35*** (0.121)	0.02 (0.210)	-0.70** (0.293)	-0.35*** (0.121)	0.04 (0.211)	
60~64세	-1.47*** (0.378)	-0.63*** (0.133)	0.23 (0.216)	-1.48*** (0.380)	-0.63*** (0.134)	0.26 (0.217)	
고졸	0.21 (0.641)	-0.10 (0.308)	-0.06 (0.636)	0.24 (0.646)	-0.11 (0.309)	-0.05 (0.637)	
대졸 이상	-0.35 (0.651)	-0.38 (0.309)	0.11 (0.631)	-0.30 (0.656)	-0.39 (0.309)	0.10 (0.632)	
배우자 없음	0.33 (0.298)	-0.05 (0.124)	-0.15 (0.224)	0.30 (0.300)	-0.06 (0.124)	-0.16 (0.224)	

118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45~64세 집단의 사회적 불안

	사회적 경험+사회적 불안 영역			사회적 경험·인식+사회적 불안 영역		
	자기부정 불안	불안	자기긍정 안정	자기부정 불안	불안	자기긍정 안정
가족 수	0.18 (0.119)	0.01 (0.046)	0.00 (0.077)	0.18 (0.119)	0.02 (0.046)	-0.01 (0.078)
중소도시	0.14 (0.241)	-0.09 (0.091)	-0.02 (0.160)	0.15 (0.242)	-0.10 (0.091)	-0.01 (0.160)
농어촌	-0.05 (0.313)	-0.27*** (0.123)	0.34* (0.190)	-0.06 (0.313)	-0.28*** (0.123)	0.34* (0.190)
사회관계	-0.17*** (0.041)	-0.09*** (0.012)	0.01* (0.008)	-0.17*** (0.041)	-0.09*** (0.012)	0.01 (0.008)
정책 수혜 수	-0.10 (0.108)	0.04 (0.049)	0.15* (0.090)	-0.09 (0.108)	0.04 (0.050)	0.15* (0.090)
건강 보통	-1.29*** (0.238)	-0.65*** (0.106)	-0.21 (0.247)	-1.27*** (0.239)	-0.64*** (0.106)	-0.21 (0.247)
건강 좋다	-2.05*** (0.389)	-1.37*** (0.130)	0.55*** (0.241)	-2.00*** (0.390)	-1.34*** (0.131)	0.54*** (0.242)
재산	-0.18** (0.083)	-0.00 (0.033)	0.02 (0.058)	-0.18** (0.083)	-0.00 (0.033)	0.03 (0.058)
가구소득	-0.11 (0.107)	-0.06 (0.043)	-0.02 (0.076)	-0.12 (0.107)	-0.06 (0.043)	-0.02 (0.076)
자가 아님	-0.21 (0.267)	0.13 (0.103)	0.27 (0.175)	-0.20 (0.268)	0.13 (0.103)	0.26 (0.175)
은퇴 일	-0.03 (0.283)	-0.14 (0.108)	-0.00 (0.172)	-0.01 (0.283)	-0.14 (0.108)	-0.01 (0.172)
은퇴 일 안 함	-0.17 (0.310)	-0.11 (0.120)	-0.21 (0.209)	-0.18 (0.311)	-0.12 (0.120)	-0.22 (0.209)
일한 적 없음	1.63*** (0.476)	-0.13 (0.298)	-0.42 (0.495)	1.63*** (0.477)	-0.13 (0.298)	-0.45 (0.497)
노후준비 안 함	0.77*** (0.259)	0.33*** (0.091)	-0.18 (0.171)	0.76*** (0.261)	0.33*** (0.091)	-0.19 (0.171)
Constant	-8.34*** (1.771)	-1.03 (0.703)	-1.53 (1.289)	-6.55*** (2.016)	-0.13 (0.795)	-1.93 (1.444)
obs	3,575	3,575	3,575	3,575	3,575	3,575

주: 1) 성별(기준: 남성), 연령(기준: 45~49세), 교육수준(기준: 중졸 이하), 혼인관계(기준: 배우자 있음), 거주지역(기준: 대도시), 주관적 건강상태(기준: 건강 나쁨), 주거형태(기준: 자가), 생애 주된 일자리 은퇴 여부(기준: 은퇴하지 않고 현재 일을 하고 있음), 노후준비(기준: 준비하고 있음).

2)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다. 개인 심리·불안이 개인 삶/사회 발전에 미치는 주관적 영향

개인 심리·불안/사회 불안이 개인 삶/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관적 응답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개인 삶 및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관적 응답은 “불안 수준이 삶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불안이 우리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항으로, 1에서 10점까지 응답 가능하며 값이 커질수록 긍정적 영향을 의미한다.

[그림 4-8] 불안이 개인 삶,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 문항

내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예: 무력감, 위축 등으로 일상에 장애 초래)		↔		생활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		내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예: 동기나 자극을 주어 나의 발전에 기여)	
사회 발전을 매우 저해할 것이다		↔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사회 발전에 매우 기여할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0
			4.20 (사회발전)	5.01 (개인삶)					

불안 수준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응답의 전체 평균 점수는 5.01점으로 ‘생활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인 심리·불안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기부정 불안 유형 3.50점, 경계불안 유형 4.54, 안정 유형 5.27, 자기긍정 안정 유형 5.96점으로, 개인 심리·불안 수준이 불안정한 집단일수록 개인 삶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자기부정 불안’ 집단의 경우 개인 삶에 미치는 영향은 3점대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이 5점임을 고려하면 불안이 개인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응답 또한 부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5〉 개인 심리·불안 잠재계층별 개인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변수 간 관계

개인	자기부정 불안		불안		안정		자기긍정 안정		전체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m	s.d
사회 발전	3.44	0.20	4.33	0.07	4.15	0.05	4.30	0.16	4.20	2.23
개인 삶	3.50	0.19	4.54	0.06	5.27	0.04	5.96	0.15	5.01	1.8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개인 심리·불안 유형과 사회 불안 수준을 교차하여 살펴보면, 개인 불안 수준이 높고 동시에 자존감 및 회복성 등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이는 ‘자기부정 불안’ 특성을 가졌으며, 동시에 사회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은 불안이 개인 삶 및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불안이 개인 삶에 미치는 영향은 3.27점,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3.15점으로 각 문항의 평균 점수인 5.01점, 4.20점과 비교하면 매우 부정적인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6〉 개인 심리·불안/사회 불안과 개인 삶/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 변수 간 관계

		개인		불안		안정		자기긍정 안정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저	개인 삶	-	-	6.00	-	6.00	-	10.00	-
	사회 발전	-	-	5.00	-	8.00	-	8.00	-
중	개인 삶	4.23	0.36	4.90	0.69	5.47	0.42	6.32	0.16
	사회 발전	4.39	0.33	4.83	0.79	4.44	0.05	4.65	0.18
고	개인 삶	3.27	0.21	4.18	0.85	4.83	0.73	5.22	0.27
	사회 발전	3.15	0.23	3.84	0.11	3.47	0.95	3.49	0.32

주: 합산된 사회적 불안 인식의 값을 2점 이하는 불안이 낮은 집단으로, 4점 이상은 불안이 높은 집단으로, 기타는 중간 집단으로 처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어온 개인 차원에서의 심리, 불안과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라는 담론을 활용하여 이들의 특징을 살펴봤다. 불안이 추상적이며 애매모호한 개념이기는 하나 개인 차원에서의 불안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불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 어떤 형태의 불안이 존재하는지, 이러한 불안의 특징들은 어떠한지 살펴본다면 사회공동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주요 발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차원에서의 심리·불안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불안에 대한 유형 분석을 통해 어떤 형태의 집단 분화 그리고 특징이 있는지 살펴봤다. 통계적인 기준과 실질적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개인 심리·불안과 사회적 불안은 각각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개인 심리·불안의 경우 ‘자기부정 불안’, ‘불안’, ‘안정’, ‘자기긍정 안정’으로 명명하였다. 약 59%의 대상자가 안정형 집단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류에서 주목할 점은 소수이긴 하나 약 3.1%가 자존감 및 회복성 등 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은 특성과 함께 높은 개인 불안 수준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약 32%가 개인 불안 수준과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모두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 수준보다 높은(불안정한) 경계선상에 위치한 특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약 6.7%는 불안 수준이 낮으며 본인에 대한 긍정 인식이 거의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긍정적인 안정형에 속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불안 유형의 경우 ‘안정’, ‘중간’, ‘불안’, ‘고불안’ 집단으로 명명한 4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중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 경쟁/도태 불안, 사건/사고 불안 모두 2점대로 매우 낮은 사회적 불안

수준을 보인 첫 번째 유형은 약 5.4%가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 13%가 '고불안' 유형으로 세 가지 측면의 불안 모두 높은 특성을 보이며, 특히 불공정/정부 불신 관련 불안 수준은 4.7점으로 매우 높았다. 둘째, 개인의 심리·불안 유형과 사회적 불안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개인의 심리·불안이 높은 사람이 사회적 불안 인식이 안정적인 가능성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의 심리·불안 상태가 안정적인 사람들도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있어서는 불안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셋째, 개인 불안과 예측 요인 간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불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사건 및 차별 경험이 개인 심리·불안의 부정적 수준과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사건과 차별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개인 불안수준이 높은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목할 점은 사회 불안 영역 중 취업불황, 주택가격 감당 어려움, 경쟁 과열 사회 등과 관련된 경쟁/도태 불안과 관련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개인 불안수준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자기부정 불안' 집단, 그리고 '불안' 집단 순으로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불안' 집단은 사회적 불안 영역과 관련해서는 불공정/정부 불신 관련 부정적 인식은 낮고, 사고/안전 인식 관련 부정적 인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본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부정 불안'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 재산이 낮을수록, 일한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일수록, 사회관계망 크기가 작은 사람일수록, 젊은 연령일수록, 건강이 나쁠수록 본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불안' 집단 또한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 심리·불안 유형/사회 불안과 개인 삶 및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관적 응답과의 관계를 살펴봤다. 개인 심리·불안, 사회 불안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개인 삶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본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자기부정 불안-사회 불안이 높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 불안이 개인 삶에 미치는 영향은 3.27점,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3.15점으로, 각 문항의 평균 점수인 5.01점, 4.20점과 비교하면 매우 부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는 점이다. 정상 및 적정 수준의 불안이라는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지는 않으나 개인 불안과 사회 불안이 개인의 삶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거나 개인의 웰빙 및 삶의 손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된다.

부데 교수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안, 여러 집단의 불안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압축적 성장의 결과 여러 세기에 걸친 불안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진단한 바 있다(김현진, 2016. 11. 3). 특히 한국의 중장년층은 압축적 성장 과정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여러 세기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사건과 사회문제(외환위기, 카드대란, 금융위기, 세월호, 메르스 및 코로나19 전염병 등의 사회적 사건,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로 발생한 노후준비와 부모 부양 및 자녀 양육 등의 사회환경 변화, 경제 위기 이후의 표준적 은퇴과정·노동생애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 등)를 모두 경험한 집단 중 하나이다.

실제 이들의 사회적 사건 경험/사회적 불안과 개인 심리·불안과의 관계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사건, 유발된 사회적 불안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는 기존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차별의 경험, 사회적 사건의 경험은 자존감 원천들의 결핍을 야기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개인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사

회적 신뢰의 실추, 나아가 개인의 심리에 부정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Wilkinson & Pickett, 2011). 특히 후기 중년의 경우 은퇴, 빈 둥지 가족 등으로 인한 역할 상실, 사회적 관계의 축소, 노화 등 성장보다는 상실과 손실의 특성을 겪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부정적 자기개념의 강화, 즉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자존감, 회복성 등)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특정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전 과정에서 사회적 기피 현상과 불안,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자기 이해가 필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불안과 개인 심리정서적 불안의 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불안의 근본 원인이 본인 내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사건의 경험, 박탈 및 차별의 경험 등 사회 환경적 요소에 있으면, 개인 차원에서의 대응만으로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 불안의 원인이 개인의 정서심리적인 것에서 나아가 최근 사회 환경적 문제에 기인하는 경향이 커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건강을 살피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 변화와 개선이 필수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카드대란, 금융위기, 세월호 사고, 최근의 전염병까지 다양한 위기와 재난, 위협이 발생했을 때마다 정부의 대처가 허술하여 정부가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이현주 외, 2020).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적 개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개인, 그리고 나아가 집단이 경험하고 처해 있는 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관찰되는 불안 요인들을 완화시켜야지만 해결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장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격차

제1절 세대 특성과 사회적 불안

제2절 분석방법

제3절 사회적 불안의 격차

제4절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애 경험의 누적 효과

제5절 소결



제 5 장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격차

제1절 세대 특성과 사회적 불안

1. 생애과정, 사회경제적 지위와 중년의 사회적 불안

중년층은 40~60대 초반을 의미하며, 중년(middle age) 혹은 인생의 황금기(golden age)라고도 불린다. 중년층은 다른 연령집단보다 안정적이고 그만큼 사회적 불안 수준도 낮을 것으로 인식된다. 중년기는 성인기를 성인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었을 때, 성인 초기인 청년기와 성인 후기인 노년기보다 안정적인 삶을 유지해가는 삶의 절정기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중년층이 경험하는 중년기의 사회적 불안은 생애과정 관점에서 중년층이 위치한 중년기의 생애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생애과정 관점(Life-course perspective)에서 중년층은 획득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는 연령집단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성장과 부모의 노화에 따르는 가족 돌봄을 모두 책임지는 이중부양 부담(double care burden), 그리고 본인의 노후까지 준비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sandwich generation)이기도 하다(Tan, 2018; 백경훈, 송다영, 장수정, 2018). 한국 사회에서 관측되는 성인 자녀인 청년층의 교육수준 상향화로 인한 교육 기간 연장과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일자리 감소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과 경제적 자립 시기의 지연은 중년층의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을 높이고 있다(김유경, 2018). 이와 더불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시점에 노년을 맞이한 부모의 돌봄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김유경, 2019; 권희선, 전귀연, 2020; 정규형, 박서영, 2014; 조지민, 김문근, 2021).

[그림 5-1] 생애과정 관점에서 중년층의 위치



한편, 중년층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매우 다른 중년기를 경험한다. 정년을 보장받기 어려운 일에 종사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중년층은 이른 퇴직과 이로 인한 연금 개시 연령 이전까지 소득 단절, 그리고 노후준비의 어려움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사회적 불안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년기는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을 앞둔 시기로 은퇴 불안이 높은 시기로 인식되는데, 한국 사회의 중년층 다수는 노인이 되기 전에 은퇴를 경험한다. 2021년 기준 55~74세 중고령자가 가장 오래 일한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이다(통계청, 2022a). 중년층 대부분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혹은 기초연금 개시 연령인 65세까지 소득 단절(income crevasse)을 경험함을 보여준다. 2021년 기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21.1%로 2020년 21.6%보다 감소하였고, 300인 이상 대기업이거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 비율이 90%를 초과하지만, 300인 미만의 노조가 없는 기업은 그 비율이 17.6%에 불과하다(고용노동부,

2021). 공적연금도 확대되었지만,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55.1%에 불과하며(통계청, 2022a), 중고령자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69만 원에 그쳤다(통계청, 2022b).

이러한 일자리 기반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비롯되는 이중화(dualization)는 중년층이 경험하는 사회적 불안의 격차를 크게 만들 수 있다. 정년을 보장받는 일에 종사하는 중년층은 현재 경제적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은퇴 후에도 공적연금 등을 통한 안정적 노후가 보장된다. 반면, 정년보장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중년층은 이른 조기 은퇴와 재취업으로 중년기에 이미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장과 이로 인한 소득 단절을 경험하고, 이러한 불안정은 연금 등을 통한 노후준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안정적 노후를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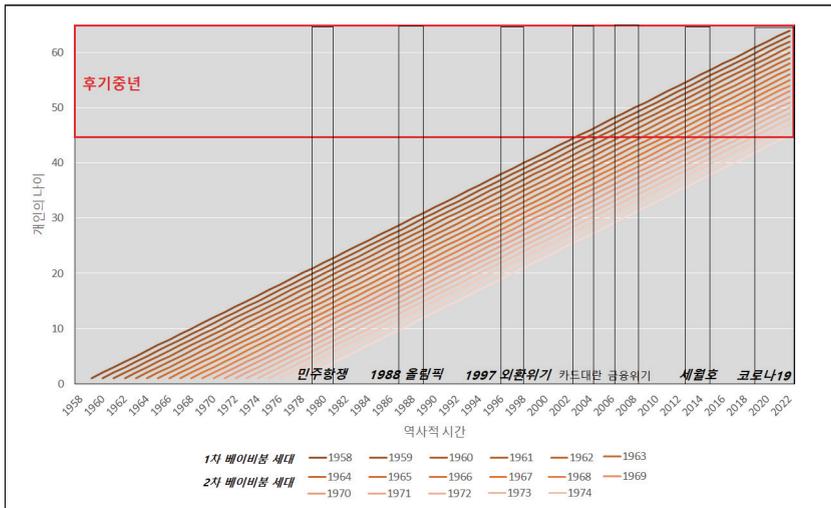
2. 사회경제적 변화와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

본 연구는 2022년 현시점, 45~64세인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다룬다. 이들은 1958~1974년생으로 출생 시기에 따라 이질적인 생애과정을 형성한다. 즉, 이들이 위치한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사회적 불안 수준이 다를 수 있다. IMF 외환위기를 생애 어느 시기에 경험했는지에 따라 그로 인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문혜진, 2013). 따라서 본 장에서는 후기 중년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 이질적 특성을 갖는 복수의 집단으로 구분해 사회적 불안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다음 [그림 5-2]와 <표 5-1>은 후기 중년을 출생 코호트별 세대로 구분한 것이다. 세대(generation)는 특정 시기, 사회경제적 사건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하며, 출생 코호트(birth cohort)는 동일한 시기에 태어

나 같은 연령계층과 역사적 시간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본 장에서는 후기 중년을 출생 코호트와 세대 개념을 결합해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5-2] 2022년 현재 후기 중년이 경험한 사회경제적 사건(1958~2022년)



〈표 5-1〉 출생 코호트별 사회경제적 사건을 경험한 연령

(단위: 세)

역사적 시간	주요 사건	출생 코호트별 현시점 개인의 연령(출생연도)		
		1차 베이비붐 세대 59~64세 (1958~63년생)	2차 베이비붐 세대 48~58세 (1964~74년생)	X세대 45~47세 (1975~77년생)
1988	1988 올림픽	25~30	15~24	11~14
1997~1998	1997 외환위기	34~39	24~33	20~23
2003~2005	신용카드 대란	41~46	31~40	27~30
2008	글로벌 금융위기	45~50	35~44	31~34
2014	세월호	51~56	41~50	37~40
2020	코로나19	57~62	47~56	43~46

자료: Elder Jr, G. H., & Pavalko, E. K. (1993). Work careers in men's later years: Transitions, trajectories, and historical change. *Journal of Gerontology*, 48(4), S180-S191의 〈표 2〉를 참고해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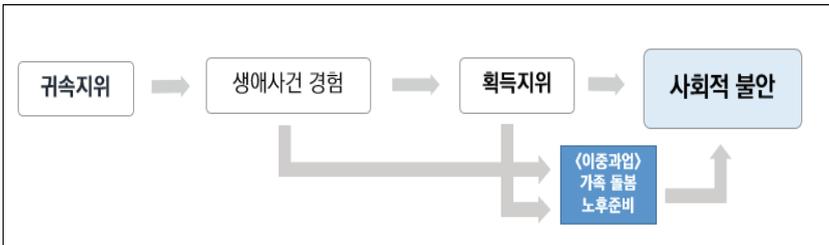
첫째, 1차 베이비붐 세대이다. 산업화 세대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들은 현재 59~64세 준고령자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시기에 태어나 급격한 경제발전을 겪으며 청년기를 보내고, 30대부터 40대에는 IMF 외환위기, 신용카드 대란, 금융위기를 경험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시기에 노후를 앞둔 집단이기도 하다.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 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특성이 있다(김종남, 2014, 박성준, 2011). 둘째, 2차 베이비붐 세대이다. 이들은 현재 48~58세로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를 경험하거나 앞둔 집단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와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높은 시기에 태어나 민주화와 함께 청년기를 보내고, 사회초년생 시기에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였다. 이와 동시에 물질적 풍요와 산업화의 수혜세대이며, 민주화 세대로 불리기도 한다(박재홍, 1996). 이들은 1차 베이비붐 세대보다 개인주의적이고, 실리를 추구하는 특성을 보이며, 일과 육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체로 자녀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윤경자, 임주영, 2011; 최은영, 2015). 마지막으로 X세대이다. 이들은 현재 45~47세로 조기 퇴직에 대한 불안,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이다. 이들은 외환위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였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노동경력을 쌓았다. 정보화 세대로 불리기도 하는 이들은 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과 이로 인한 노동시장 격차가 시작되기 직전 비교적 안정적인 경력을 쌓으며 노년을 준비한 집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평등 구조의 고착화와 자녀세대 노동시장 경쟁의 심화는 자녀에 대한 중년 부모 세대의 교육 부담을 높일 수 있다.

제2절 분석방법

1. 분석개요

다음 [그림 5-3]은 본 장의 분석모형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후기 중년의 생애 경험, 가족 돌봄과 노후준비라는 중장년기의 이중과업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시 개인의 현시점 사회적 불안에 누적적 영향을 미쳐 사회적 불안의 격차로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5-3]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 돌봄과 노후준비, 사회적 불안의 관계



사회경제적 지위는 불평등 관점에서 계층요인으로, 성, 연령, 부모의 가족 배경 등 바꾸기 어려운 귀속지위(ascribed status)와 스스로 획득한 교육, 직업지위 등의 획득지위(achieved status)로 구분된다. 귀속지위는 생애사건 경험과 획득지위에 영향을 미치며, 생애사건 경험과 획득지위는 중년기 이중과업 부담에 영향을 미쳐 현시점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 격차를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이중과업은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중년기에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후기 중년은 자녀와 부모 등 가족 돌봄과 본인의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노후준비라는 두 가지 중첩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이중과업은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⁸⁾

2. 분석 내용

본 장에서는 후기 중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족 돌봄 부담과 노후준비, 생애 경험과 박탈—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후기 중년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중과업 실태, 그리고 후기 중년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생애사건 경험, 이중과업과 사회적 불안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다음 <표 5-2>는 분석 내용과 분석방법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먼저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 돌봄 부담, 노후준비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이어서 생애과정 관점에서 후기 중년이 갖는 집단 내 이질성을 반영하기 위해, 출생 코호트별 사회경제적 사건과 박탈 경험에 따른 사회적 불안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귀속지위와 획득지위로 측정하였다. 귀속지위는 ‘20세 이전 시점 주관적 계층’ 인식으로 측정하였으며, 획득지위는 본인의 교육수준, 주관적 소득계층 인식, 경제활동상태(종사상 지위)로 측정하였다. 한편, 본 장에서는 후기 중년을 세 개의 출생 코호트—1차 베이비붐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 X세대—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8) 본 연구에서 이중과업은 가족에 관한 과업과 중년 개인의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들은 중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중년 개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 부양과 더불어 본인의 노후에 관한 부양 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족 돌봄과 노후준비를 후기 중년이 직면하는 이중과업이라고 정의하였다.

〈표 5-2〉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 분석방법

분석 내용		분석방법
일반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대상의 특성 - 성별, 평균연령, 거주지역, 혼인상태, 가구주 여부, 가족 수, 아동 수, 자가 거주 여부,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20세 이전 계층, 현시점 계층,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소득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통계 -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적 지위와 돌봄 부담, 노후준비 - 대상 특성별 차이: 전체, 귀속지위, 획득지위에 따른 가족 돌봄 부담, 은퇴 여부, 노후준비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통계 - 빈도, 비율, 평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불안 - 대상 특성별 차이: 전체, 귀속지위, 획득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의 차이 - 사회경제적 지위-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노후준비-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통계 - 빈도, 비율, 평균 ■ 선형확률모형 - 종속변수(사회적 불안) - 독립변수(사회경제적 지위, 돌봄 부담과 노후준비)
생애과정 경험과 사회적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적 지위별 생애 경험 차이 검증 - 주요 사건의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박탈 경험의 계층별 차이 ■ 계층별 생애 경험과 사회적 불안의 관계 ■ 계층별 생애 경험의 누적적 영향 분석 - 주요 사건의 경제적 어려움, 박탈의 중복경험의 계층 간 차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통계 - 빈도, 비율, 평균 ■ 선형확률모형 - 종속변수(사회적 불안) - 독립변수(사회경제적 지위, 생애경험)

제3절 사회적 불안의 격차

1. 분석대상 일반특성

〈표 5-3〉은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이다. 분석대상의 평균연령은 54.4세였으며, 45~47세 X세대의 여성 비율은 높고, 48~58세 2차 베이비붐세대의 여성 비율은 다소 낮았다. 서울과 광역시 등 대도시 거주 비율은 38.4%~41.3%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76.1%

였는데, 1차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높았다. 가족 구성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차 베이비붐 세대가 2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65세 이상 고령의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는 24.7%였는데, 1차 베이비붐 세대(3.0%)와 다른 세대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 양육이 대체로 2차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에 집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가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9.9%였으며, 1차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주거 점유형태의 생애주기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⁹⁾ 가구소득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로 측정한 빈곤율은 1차 베이비붐 세대(11.4%), 2차 베이비붐 세대(9.6%), X세대(8.6%) 순이었다.

가족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의 경우, 일상생활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3%, 사회적 관계나 경제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15.5%, 가족 돌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18.3%였다.

9) 주거 점유형태의 생애주기 특성이란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20~30대에는 전월세 비율이 높고, 40대부터 점차 자가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의미한다(김리영, 2013).

〈표 5-3〉 분석대상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1차 베이비붐 59~64세	2차 베이비붐 48~58세	X세대 45~47세
사례 수(명, %)		3,575	1,040	2,009	526
여성		49.4	50.8	47.4	54.2
평균연령(세, sd)		54.4	61.4	52.9	46.0
대도시 거주		40.8	41.1	41.3	38.4
배우자 있음		76.1	78.2	75.9	72.6
18세 미만 아동 있음		24.7	3.0	27.1	58.4
65세 이상 노인 있음		17.7	22.4	14.6	20.0
가구주		62.1	64.5	62.6	55.7
1인 가구 비율		15.0	19.1	13.5	12.2
건강상태 좋음		30.8	33.4	29.9	29.1
심리적 불안 평균(점)		1.88	1.80	1.90	1.97
자가 거주		69.9	72.6	68.8	68.8
기준 중위 50% 미만		9.9	11.4	9.6	8.6
가족 돌봄	일상생활	24.3	21.7	24.5	28.5
	사회, 경제활동	15.5	12.8	15.7	19.8
	경제적 문제	18.3	15.4	19.2	20.7
노후준비	하고 있음	57.0	64.2	55.9	46.8
은퇴 경험	있음	45.7	66.5	39.5	28.3
20세 이전 소득 계층	하(최하)	17.5	15.0	18.0	20.7
	중(중하, 중상, 중)	72.2	72.3	71.9	73.4
	상(최상)	10.3	12.7	10.1	5.9
본인 소득 계층	하	12.9	13.9	12.3	13.3
	중	76.8	74.1	77.4	80.0
	상	10.3	12.0	10.3	6.7
본인 교육(대학졸업 이상)		72.1	66.1	73.5	78.3
현재 상태	상용직	47.2	32.6	50.7	62.6
	임시, 일용직	12.6	14.2	12.1	11.2
	고용주, 자영업	17.0	19.7	17.4	10.1
	실업자	5.8	7.1	5.8	3.2
	비경제활동	17.5	26.4	14.0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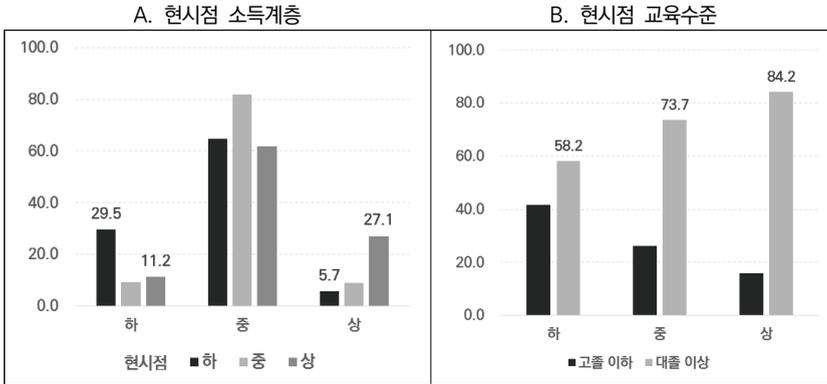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1차 베이비붐 세대는 2차 베이비붐 세대, X세대보다 가족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수준이었는데, 자녀 양육에 관련한 돌봄, 부모 부양의 어려움이 대체로 40~50대 중년층에 집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57.0%였는데, 분석대상 중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주된 일 자리에서 은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7%였으며, 1차 베이비붐 세대는 66.5%, 2차 베이비붐 세대는 39.5%였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우, 귀속지위인 '20세 이전 시점 주관적 소득계층' 인식은 1차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높았고, 2차 베이비붐 세대, X세대 순이었다. 소득계층 인식은 상대적이므로 경제성장에 따른 불평등 확대로 인해 40~50대가 60대보다 더 하층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현시점 소득계층은 20세 이전 시점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2년제 대학을 포함한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은 72.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X세대는 78.3%에 달했다. 90년대 대학 증가로 인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의 결과로 보인다. [그림 5-4]는 20세 이전 시점 소득계층에 따른 현시점 소득계층, 교육수준 분포이다. 대체로 20세 이전에 소득계층이 높았다고 응답한 경우, 현시점에도 소득계층이 상위층인 비율이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경제 활동상태의 경우, 상용직 비율은 X세대가 62.6%로 1차 베이비붐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실업률은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는 고용주나 자영업자인 비율, 임시일용직 비율도 높았다.

[그림 5-4] 귀속지위와 획득지위의 관계: 20세 이전 시점 소득계층별 분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가족 돌봄 어려움과 노후준비 현황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가족 돌봄, 주된 일자리 은퇴와 노후준비 실태를 확인하였다. 귀속지위는 성, 연령(세대), 20세 이전 시점 주관적 소득계층 인식으로 측정하였다.

〈표 5-4〉와 [그림 5-5]는 귀속지위에 따른 가족 돌봄 부담과 은퇴, 노후준비 현황이다. 성별, 20세 이전 시점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연령 집단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생활 시간 활용과 경제활동에 제약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고, 경제적 어려움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40대 후반인 X세대가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보다 모든 유형의 가족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20세 이전 시점 소득계층’이 낮은 경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이 컸으나, 경제적 어려움은 하층(18.7%)과 상층(19.0%)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했

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20세 이전 시점 소득계층'이 높은 경우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경제적 노후준비도 주된 일자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5-4〉 귀속지위에 따른 돌봄 어려움, 은퇴 경험, 노후준비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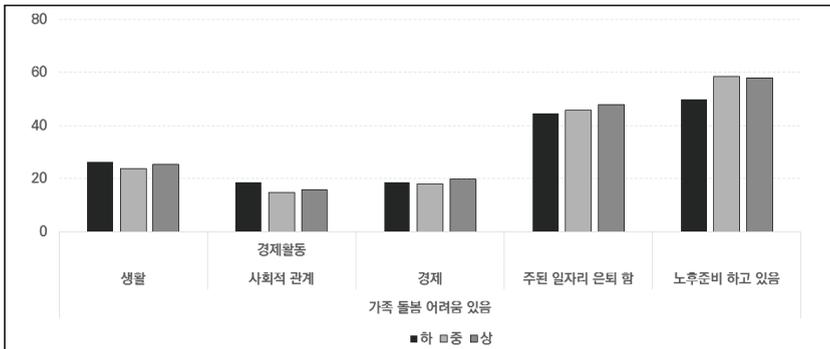
구분		가족 돌봄 어려움 있음 비율			주된 일자리 은퇴	경제적 노후준비 하고 있음
		생활	사회적 관계 경제활동	경제		
전체 (n=3,575)		24.3	15.5	18.3	45.7	57.0
성별	남성	23.4	13.7	18.9	35.8	55.0
	여성	25.2	17.3	17.7	55.9	58.9
연령	1차 베이비붐	21.7	12.8	15.4	66.5	64.2
	2차 베이비붐	24.5	15.7	19.2	39.5	55.8
	X세대	28.5	19.8	20.7	28.3	46.8
20세 이전 시점 소득계층	하	26.2	18.5	18.7	44.7	49.8
	중	23.7	14.7	18.0	45.7	58.6
	상	25.4	15.8	19.9	47.8	57.9

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볼드체로 표기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5-5〕 20세 이전 소득계층에 따른 돌봄 부담, 은퇴, 노후준비 현황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표 5-5〉와 [그림 5-6]은 획득지위에 따른 가족 돌봄 어려움과 은퇴, 노후준비 현황이다. 교육수준을 제외하고 대부분 획득지위—경제활동 상태, 현시점 주관적 소득계층 인식, 빈곤—에 따른 가족 돌봄 어려움, 은퇴, 노후준비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5-5〉 획득지위에 따른 돌봄 어려움, 은퇴 경험, 노후준비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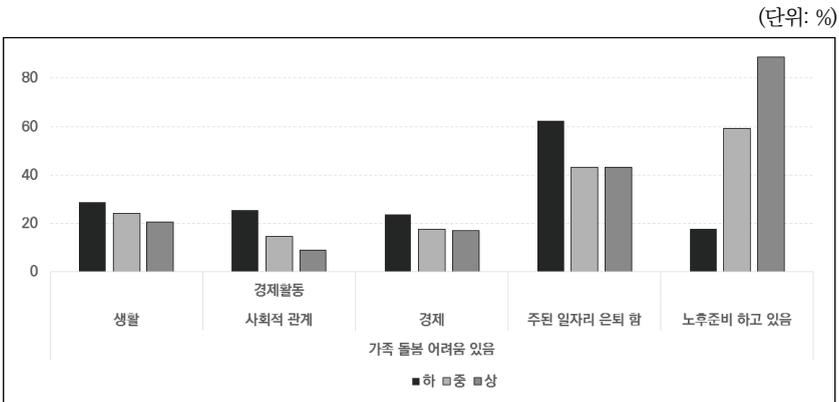
구분	가족 돌봄 어려움 있음 비율			주된 일자리 은퇴	경제적 노후준비 하고 있음	
	생활	사회적 관계 경제활동	경제			
전체 (n=3,575)	24.3	15.5	18.3	45.7	57.0	
교육수준	고졸 이하	23.5	16.8	17.2	54.6	44.4
	대학교 졸업 이상	24.6	14.9	18.7	42.3	61.8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25.6	13.6	20.1	20.1	60.4
	임시, 일용직	21.2	15.8	16.7	61.0	50.8
	고용주, 자영업	25.5	16.8	19.7	46.2	56.6
	실업	27.5	21.7	21.3	95.7	47.3
	비경제활동	20.8	17.0	12.2	87.0	55.6
현재 소득 계층	하	28.8	25.3	23.6	62.3	17.7
	중	24.1	14.7	17.6	43.3	59.3
	상	20.4	9.0	16.9	43.3	88.8
기준 중위 빈곤	비빈곤	23.4	14.2	18.0	43.2	59.6
	빈곤	32.7	27.3	21.4	68.7	33.0

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볼드체로 표기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고등학교 졸업 이하 후기 중년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고학력자보다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생활 시간 제약과 경제적 어려움은 낮았다. 실업, 현시점 주관적 소득계층 인식이 낮은 경우,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의 빈곤 상태인 경우, 모든 영역의 가족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있음 비율이 높은 수준이었다. 주된 일자리 은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저학력자가 대학교 졸업 이상 고학력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임시·일용직이거나(61.0%), 소득계층이 낮은 경우(62.3%)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 중년기에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할 가능성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고학력, 상용직, 소득계층 상층, 빈곤인 경우,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림 5-6] 현시점 소득계층에 따른 돌봄 어려움, 은퇴, 노후준비 현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이상의 결과는, 귀속지위가 가족 돌봄, 주된 일자리 은퇴, 노후준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불분명하지만, 현시점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하는 획득지위에 따른 차이는 매우 명확함을 보여준다. 특히,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후기 중년의 가족 돌봄과 노후에 관련된 이중과업은 개인이 속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며,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이중과업으로 인한 중년기 부담이 더 클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3.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불안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단문으로 측정한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이하 사회적 불안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불안 수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사회적 불안 하위 영역별 불안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표 5-6〉과 [그림 5-7]은 귀속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40대 후반 X세대, 20세 이전 시점 소득계층이 하층인 경우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여성 중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3.4%로 남성(75.5%)보다 높았으며, X세대가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3.1%로 1차 베이비붐 세대(76.1%), 2차 베이비붐 세대(80.2%)보다 높았다. 20세 이전 소득계층이 하층이었다고 응답한 경우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2.5%였는데, 상층인 경우는 이보다 낮은 77.1%였다. 하지만 20세 이전 시점 소득계층 인식에 따른 사회적 불안 경험의 차이는 $P < .10$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유의미했다.

〈표 5-6〉 귀속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점, %)

구분	평균	전혀 불안하지 않음 ↔ 매우 불안					불안함	카이 검증	
		1	2	3	4	5			
전체 (n=3,575)	4.02	0.6	4.8	15.2	50.7	28.7	79.4	-	
성별	남성	3.93	0.7	6.9	17.0	49.7	25.8	75.5	***
	여성	4.11	0.5	2.8	13.4	51.7	31.7	83.4	
연령	1차 베이비붐	3.94	0.9	6.5	16.5	49.4	26.6	76.1	**
	2차 베이비붐	4.03	0.4	4.3	15.1	51.8	28.4	80.2	
	X세대	4.13	0.6	3.4	12.9	49.1	34.0	83.1	
20세 이전 시점 소득계층	하	4.13	0.5	4.0	13.1	46.7	35.7	82.5	#
	중	4.00	0.5	4.9	15.7	51.9	27.2	79.0	
	상	3.96	1.4	6.0	15.6	49.2	27.9	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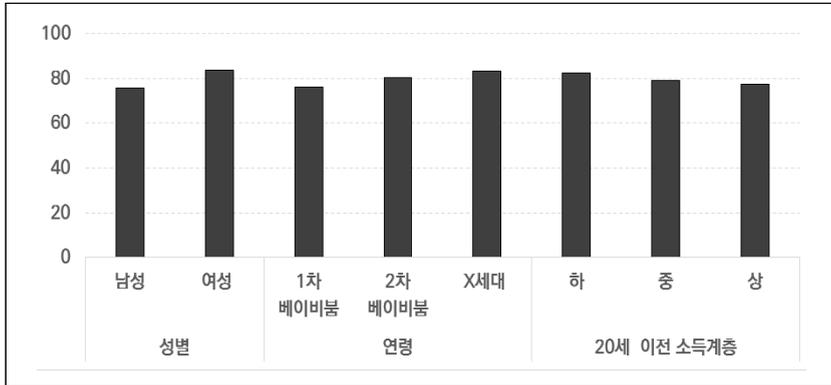
주: 1) # p<.10, * p<0.05, ** p<0.01, *** p<0.001.

2)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인식을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5-7〕 귀속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



주: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인식을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표 5-7〉과 [그림 5-8]은 획득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이다. 획득 지위 중 현재 시점 주관적 소득계층 인식에 따른 사회적 불안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현재 소득하위계층의 85.3%가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응답하였지만, 상층인 경우는 69.5%로 그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이는 후기 중년의 과반수가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중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의 불안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수준과 빈곤 여부에 따른 사회적 불안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경제활동상태는 $P < .10$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유의미했다.

〈표 5-7〉 획득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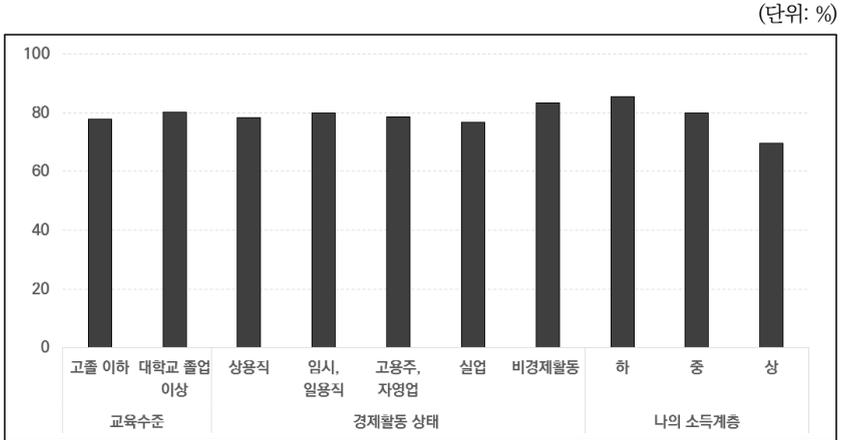
구분	평균	전혀 불안하지 않음 ↔ 매우 불안					불안함	카이 검증	
		1	2	3	4	5			
전체 (n=3,575)	4.02	0.6	4.8	15.2	50.7	28.7	79.4	-	
교육 수준	고졸 이하	4.03	0.5	3.8	18.0	48.1	29.6	77.7	
	대학교 졸업 이상	4.02	0.6	5.2	14.1	51.7	28.4	80.1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3.98	0.6	4.9	16.1	52.4	26.0	78.4	#
	임시, 일용직	4.03	0.7	5.4	14.0	50.6	29.4	80.0	
	고용주, 자영업	4.03	0.5	4.8	16.1	48.0	30.6	78.6	
	실업	4.05	1.0	7.3	15.0	39.1	37.7	76.8	
	비경제활동	4.10	0.3	3.5	12.8	52.6	30.8	83.3	
현재 소득 계층	하	4.28	0.4	3.7	10.6	38.3	47.0	85.3	***
	중	4.02	0.4	4.3	15.6	53.0	26.8	79.8	
	상	3.75	1.9	10.6	18.0	49.1	20.4	69.5	
기준 중위 빈곤	비빈곤	4.01	0.6	4.7	15.3	51.9	27.5	79.4	
	빈곤	4.12	0.6	5.9	14.1	39.7	39.7	79.4	

주: 1) # $p < .10$, * $p < 0.05$, ** $p < 0.01$, *** $p < 0.001$.

2)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인식을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5-8] 획득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주: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인식을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나. 영역별 불안 수준

이어서 척도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을 하위 세 영역(불공정과 불신, 경쟁과 도태, 사건·사고)으로 구분해 불안 수준을 분석하였다. 세부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 중 50% 이상에서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라고 응답한 경우, 해당 영역에 대하여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표 5-8〉과 [그림 5-9]는 귀속지위에 따른 영역별 불안 수준을 분석한 결과이다. 불공정과 불신 영역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경쟁과 도태, 사건·사고 순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게 나타났는데, 20세 이전 시점 소득계층이 하층인 경우 영역별 불안 수준이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특히 불공정과 불신으로 인한 불안의 차이가 컸다. 20세 이전 시점 소득계층이 하층이었다고 응답한 경우, 불공정과 불신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85.6%였으며, 이는 상층(80.9%)과 차이를 보였다. 1차 베이비붐, 2차 베이비붐세대보다 X세대의 영역별 불안 수준이

높았는데, 경쟁과 도태 불안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쟁과 도태로 인한 불안의 경우 X세대의 77.9%가 불안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는 1차 베이비붐 세대(67.4%)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다.

〈표 5-8〉 귀속지위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점, %)

구분	평균				불안함				
	전체	불공정 불신	경쟁 도태	사건 사고	전체	불공정 불신	경쟁 도태	사건 사고	
전체 (n=3,575)	3.8	4.0	3.7	3.4	76.6	81.9	73.0	37.0	
성별	남성	3.8	4.0	3.7	3.5	75.7	81.6	72.2	34.5
	여성	3.7	4.0	3.6	3.4	77.5	82.1	73.8	39.4
연령	1차 베이비붐	3.8	4.0	3.7	3.4	75.0	80.2	67.4	35.3
	2차 베이비붐	3.9	4.1	3.8	3.5	76.8	82.4	74.6	36.8
	X세대	3.9	4.1	3.8	3.5	79.1	83.3	77.9	40.9
20세 이전 시점 소득계층	하	3.9	4.1	3.8	3.5	82.6	85.6	78.3	40.0
	중	3.8	4.0	3.7	3.4	75.3	81.1	72.3	35.4
	상	3.8	4.0	3.7	3.5	75.4	80.9	69.1	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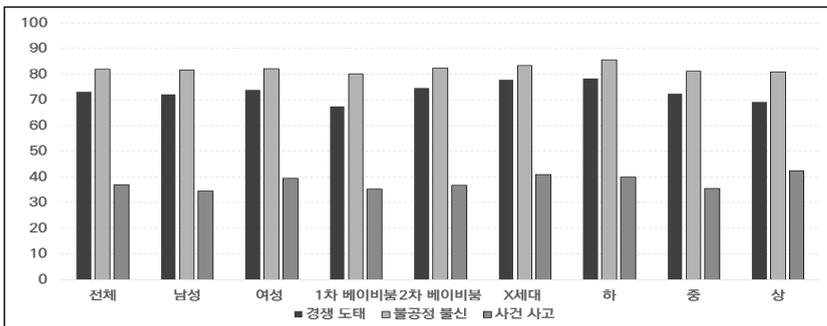
주: 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볼드체로 표기함.

2) 척도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인식을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5-9〉 귀속지위에 따른 영역별 불안 수준

(단위: %)



주: 척도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인식을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표 5-9〉와 [그림 5-10]은 획득지위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이다. 귀속지위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소득계층 인식에 따른 영역별 불안 수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이 하층이라고 인식한 경우, 불공정과 불신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인식하는 비율은 86.6%였는데 상층(71.7%)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으며, 경쟁과 도태, 사건·사고로 인한 불안 인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경제활동 상태는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보다 상용직인 경우 영역별 불안 수준이 높았는데, 경쟁과 도태를 제외한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일하고 있는 경우, 경쟁과 도태로 인한 사회적 불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지 않은 중년 초기 X세대의 높은 불안 인식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표 5-9〉 획득지위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점, %)

구분	평균				불안함				
	전체	불공정 불신	경쟁 도태	사건 사고	전체	불공정 불신	경쟁 도태	사건 사고	
전체 (n=3,575)	3.8	4.0	3.7	3.4	76.6	81.9	73.0	37.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3.8	4.0	3.7	3.4	74.8	80.5	72.0	35.4
	대학교 졸업 이상	3.8	4.0	3.7	3.4	77.3	82.4	73.4	37.5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3.8	4.0	3.7	3.4	77.7	83.0	74.4	36.1
	임시, 일용직	3.8	4.0	3.8	3.4	77.3	81.3	75.5	37.4
	고용주, 자영업	3.8	4.0	3.7	3.4	74.8	80.3	72.7	36.7
	실업	3.8	4.0	3.7	3.5	75.4	81.2	69.6	42.0
	비경제활동	3.8	4.0	3.7	3.4	75.2	81.1	68.9	37.5
현재 소득 계층	하	4.0	4.2	3.9	3.6	84.8	86.6	81.4	44.6
	중	3.8	4.0	3.7	3.4	76.5	82.4	73.3	36.4
	상	3.6	3.8	3.5	3.3	66.5	71.7	60.5	31.3
기준 중위 빈곤	비빈곤	3.8	4.0	3.7	3.4	76.9	82.3	73.2	36.6
	빈곤	3.9	4.0	3.8	3.5	73.8	78.3	71.0	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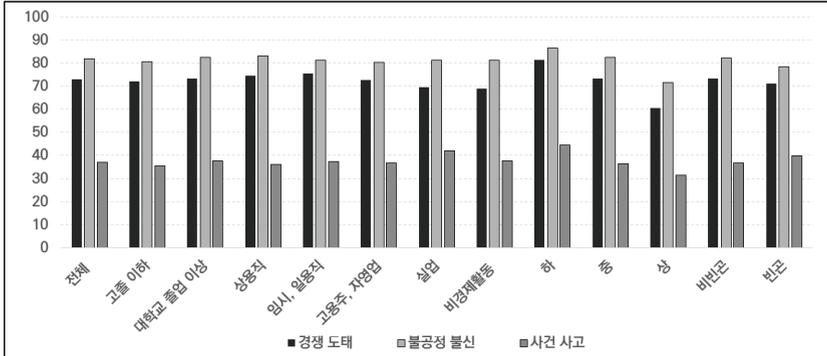
주: 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볼드체로 표기함.

2) 척도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인식을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5-10] 획득지위에 따른 영역별 불안 수준

(단위: %)



주: 척도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인식을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4. 후기 중년의 이중과업 유형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의 특성

여기서는 돌봄 부담과 노후준비 여부를 활용한 이중과업 실태를 유형화하고, 그 유형에 따라 사회적 불안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가. 후기 중년의 이중과업 유형화

이중과업 유형은 가족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지와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교차하여,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가족 돌봄으로 인해 생활시간, 경제활동, 경제적 부담 중 하나라도 경험한 경우, 가족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후기 중년 중 가족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을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26.7%,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43.0%였다. 다음 <표 5-10>은 이중과업 유형을 요약한 것이다. 가족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이중과업으로 인한 부담이 낮다고 할 수 있고,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가족 돌봄

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과업으로 인한 부담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5-10〉 이중과업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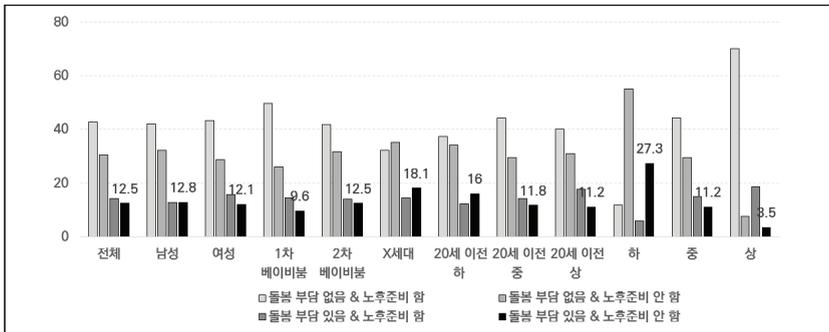
구분	이중과업 부담 수준			
	낮음 ←			→ 높음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가족 돌봄 어려움	X	X	O	O
노후준비	O	X	O	X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5-11]과 〈표 5-11〉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중과업 유형 분포이다. 돌봄 어려움이 있고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두 가지 이중과업에 있어서 부담이 모두 있는 집단의 비율은 남성, X세대, 20세 이전 소득계층 하층, 경제활동 상태가 실업인 경우, 현시점 소득하위계층이 더 높았다. 반대로, 가족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으며 노후준비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비율은 여성, 대학교 졸업 이상, 상용직, 소득상위계층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후기 중년이 생애과정에서 직면하는 과업으로 인한 어려움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계층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5-11]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중과업 유형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표 5-11〉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종과업 유형 분포

(단위: %)

구분		이종과업 부담 수준			
		낮음 ←		→ 높음	
		돌봄 부담 없음 노후준비 함	돌봄 부담 없음 노후준비 안 함	돌봄 부담 있음 노후준비 함	돌봄 부담 있음 노후준비 안 함
전체 (n=3,575)		42.7	30.6	14.3	12.5
성별	남성	42.2	32.2	12.8	12.8
	여성	43.2	28.9	15.7	12.1
연령	1차 베이비붐	49.6	26.2	14.6	9.6
	2차 베이비붐	41.8	31.7	14.0	12.5
	X세대	32.3	35.2	14.5	18.1
20세 이전 시점 소득계층	하	37.5	34.3	12.3	16.0
	중	44.3	29.6	14.3	11.8
	상	40.2	30.9	17.8	11.2
교육수준	고졸 이하	33.6	40.2	10.8	15.3
	대학교 졸업 이상	46.2	26.8	15.6	11.4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44.2	28.1	16.2	11.5
	임시, 일용직	40.5	35.2	10.2	14.0
	고용주, 자영업	42.1	30.4	14.5	13.0
	실업	33.3	36.2	14.0	16.4
	비경제활동	43.8	32.2	11.9	12.2
현재 소득 계층	하	11.9	55.0	5.8	27.3
	중	44.2	29.5	15.1	11.2
	상	70.0	7.6	18.8	3.5
기준 중위 빈곤	비빈곤	44.9	29.5	14.7	10.9
	빈곤	22.5	40.6	10.4	26.5

주: 모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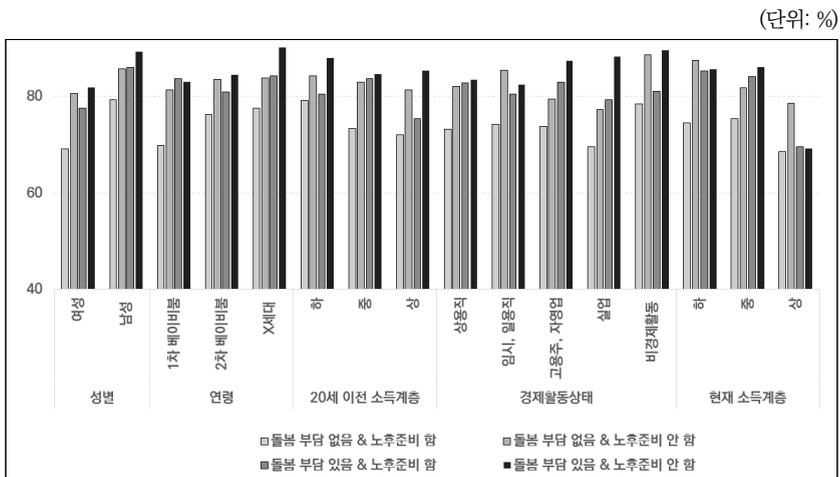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나. 유형별 사회적 불안 격차

[그림 5-12]와 〈표 5-12〉는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종과업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집단에서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집단 유형별 사회적 불안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남성, X세대, 20세 이전 시점 소득 계층이 하층, 경제활동 상태가 실업과 비경제활동인 경우, 현재 소득이 하위계층이면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20세 시점 소득계층이 하층이면서 가족 돌봄 어려움이 있고,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88.0%였는데, 이는 상층(85.4%)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현재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5-12]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중과업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주: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인식을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표 5-12〉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중과업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경험률

(단위: %)

구분	이중과업 부담 수준				카이 검정	
	낮음 ← 돌봄 부담 없음 노후준비 함	← 돌봄 부담 없음 노후준비 안 함	→ 돌봄 부담 있음 노후준비 함	→ 높음 돌봄 부담 있음 노후준비 안 함		
전체 (n=3,575)	74.2	83.0	82.2	85.4	***	
성별	여성	69.1	80.6	77.6	81.9	***
	남성	79.3	85.7	86.0	89.3	
연령	1차 베이비붐	69.8	81.3	83.6	83.0	**
	2차 베이비붐	76.2	83.5	80.9	84.5	
	X세대	77.6	83.8	84.2	90.5	
20세 이전 시점 소득계층	하	79.1	84.2	80.5	88.0	#
	중	73.4	82.9	83.7	84.6	
	상	72.1	81.4	75.4	85.4	
교육수준	고졸 이하	68.2	82.8	82.4	81.7	
	대학교 졸업 이상	75.9	83.1	82.1	87.4	
주된 일자리 은퇴	은퇴한 적 없음	73.7	81.3	85.3	80.9	
	은퇴함	74.7	85.0	78.5	90.5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73.2	82.1	82.8	83.5	#
	임시, 일용직	74.2	85.4	80.4	82.5	
	고용주, 자영업	73.8	79.5	83.0	87.3	
	실업	69.6	77.3	79.3	88.2	
	비경제활동	78.4	88.6	81.1	89.5	
현재 소득 계층	하	74.5	87.4	85.2	85.7	***
	중	75.4	81.8	84.1	86.0	
	상	68.5	78.6	69.6	69.2	
기준 중위 빈곤	비빈곤	74.8	82.1	83.1	86.1	
	빈곤	62.5	88.9	70.3	83.0	

주: 1) # p<.10, * p<0.05, ** p<0.01, *** p<0.001.

2)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인식을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다. 사회경제적 지위, 이중과업, 사회적 불안의 관계

사회경제적 지위, 이중과업과 사회적 불안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인식(불안하지 않음=0, 불안함=1)을 종속변수로 한 선형확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13〉 참조). 먼저 사회경제적 지위 모형에서는 귀속지위와 획득지위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였으며, 이증과업 모형에서는 귀속지위와 주된 일자리 은퇴 여부, 돌봄 부담 여부와 노후준비 여부, 그리고 이증과업 유형을 투입하였다. 통합모형에서는 귀속지위와 획득지위, 은퇴 경험, 이증과업을 모두 투입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으며, 이는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가족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연령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앞에서 확인한 세대에 따른 사회적 불안의 차이가, 출생 코호트, 연령보다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만 투입한 모형 1과 모형 2 분석 결과, 20세 이전 시점 소득계층 수준과 사회적 불안의 부적 관계(소득계층 수준이 낮을수록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음)는 현재 시점 획득지위 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통계적 유의도가 사라지고, 현재 시점 소득계층 인식에 따른 사회적 불안의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현재 소득계층이 상층인 경우, 하층보다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15% 낮았다. 돌봄 여부와 노후준비, 이증과업 유형과 주된 일자리 은퇴 여부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 3, 모형 4, 모형 5 분석 결과, 20세 이전 시점 소득계층 인식과 이증과업 유형 모두 사회적 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돌봄으로 인한 부담과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이증과업으로 인한 부담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다. 가족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후기 중년은 가족 돌봄 어

려움이 없고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중년보다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8%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경제적 지위인 귀속지위와 획득지위를 모두 통제하여도 유사하게 유지되었다.

〈표 5-13〉 사회경제적 지위, 이종과업, 사회적 불안의 관계(Linear probability model)

	사회경제적 지위		이종과업 모형			통합모형	
	1	2	3	4	5	6	7
여성	0.08***	0.08***	0.08***	0.08***	0.08***	0.08***	0.08***
대도시 거주	0.02	0.02	0.01	0.02	0.02	0.01	0.01
배우자 있음	0.00	0.01	0.01	0.00	0.01	0.01	0.01
아동 있음	0.04*	0.04*	0.04*	0.04*	0.03*	0.03	0.03#
노인 있음	0.00	0.00	0.00	0.00	-0.01	0.00	0.00
1인 가구	-0.01	-0.01	-0.01	-0.01	-0.01	-0.01	-0.01
건강상태 좋음	-0.01	0.00	0.01	-0.01	0.00	0.01	0.01
심리불안	0.09***	0.09***	0.08***	0.09***	0.08***	0.08***	0.08***
자가	-0.03#	-0.02	-0.02	-0.03	-0.02	-0.02	-0.02
연령 (1세대)	2세대	0.02	0.02	0.02	0.03	0.02	0.02
	X세대	0.03	0.02	0.02	0.03	0.03	0.02
20세 소득(하)	중	-0.03#	-0.03	-0.03	-0.03	-0.03#	-0.03
	상	-0.05*	-0.04	-0.05	-0.05*	-0.05*	-0.05#
현재 상태 (상용)	임시		0.00				-0.01
	자영		0.00				0.00
	실업		-0.04				-0.05
	비경활		0.04#				0.03
현재 교육(대졸)		0.06***				0.07***	0.07***
현재 소득(하)	중		-0.05*				-0.03
	상		-0.15***				-0.12***
은퇴 경험 있음			0.02	0.02	0.02	0.02	0.02
돌봄 부담 있음			0.03*				
노후준비 안 함			0.06**				
이종 과업(하)	중하					0.07***	0.06***
	중상					0.06**	0.06**
	상					0.08***	0.07***
Constant	0.60***	0.59***	0.56**	0.59***	0.57***	0.59***	0.55***
사례 수	3,575	3,575	3,575	3,575	3,575	3,575	3,575

주: 1) # p<.10, * p<0.05, ** p<0.01, *** p<0.001

2)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인식을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제4절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애 경험의 누적 효과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애경험이 사회적 불안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생애 경험의 차이를 확인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애경험, 사회적 불안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사회경제적 사건과 박탈 경험은 획득지위에 선행하므로, 여기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귀속지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생애 경험의 차이

〈표 5-14〉는 귀속지위에 따른 주요 사회경제적 사건에 따른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경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20세 이전 시점 소득하위계층인 경우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1997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 2차 베이비붐 세대가 1차 베이비붐 세대, X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당시 30~40대였던 집단에 집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08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X세대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사회경제적 사건을 경험한 시기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최근 코인과 주식 광풍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베이비붐 세대보다 주식과 코인 투자에 친숙한 X세대에게서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14〉 귀속지위에 따른 생애사건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n=3,574)	성별		연령			20세 이전 소득계층		
			남성	여성	1차 베이비붐	2차 베이비붐	X세대	하	중	상
1997 외환위기	경제	55.4	56.9	53.9	51.2	57.5	55.7	61.7	54.1	53.6
	정서	36.2	34.4	38.1	36.4	35.8	37.3	42.9	34.9	34.2
2008 금융위기	경제	45.6	46.4	44.7	43.5	45.5	49.8	50.6	44.3	46.2
	정서	31.6	29.1	34.3	30.7	31.5	34.0	34.4	30.9	32.0
2020 코로나19	건강	15.7	15.6	15.7	15.3	15.9	15.6	20.1	14.3	17.8
	경제	58.8	55.7	62.1	59.1	58.7	58.6	61.2	58.1	60.1
	고립	38.6	35.7	41.6	37.9	39.8	35.4	44.5	37.0	39.6
	가족갈등	19.9	17.2	22.7	17.6	20.8	21.3	22.0	18.9	24.0
2022 코인 주식문제	경제	31.2	33.3	29.1	29.7	31.3	34.0	33.3	30.8	30.9
	정서	28.1	27.2	29.0	24.4	28.0	35.6	26.8	29.2	22.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표 5-15〉는 귀속지위에 따른 박탈 경험 비율이다. 박탈 경험은 주거 부채나 학업중단과 학비 부채 외의 나머지 항목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대부분의 박탈 경험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았는데, 주거부채와 학비 미납으로 인한 학업중단 경험은 X세대가, 학비 부채는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더 높았다. 20세 이전 시점 소득하위계층이라고 응답한 후기 중년은 사회경제적 사건 경험과 유사하게 박탈 경험 비율도 대체로 높게 나타났는데, 의료부채의 경우에는 소득 상위층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 귀속지위에 따른 박탈 경험 비율

(단위: %)

구분		건강		주거			교육	
		미충족 의료	의료 부채	집세 연체 이사	주거 부채	주거 부채 미납	학비 미납 학업 중단	학비 부채
전체 (n=3,575)		18.5	9.8	17.5	38.2	14.5	14.8	25.5
성별	여성	19.6	10.3	17.7	37.4	14.8	13.9	24.1
	남성	17.4	9.3	17.3	39.0	14.2	15.7	26.9
연령	1차 베이비붐	17.2	9.3	16.0	33.3	14.6	14.9	27.6
	2차 베이비붐	19.4	10.2	18.5	38.8	14.7	14.5	25.8
	X세대	17.9	9.3	16.7	45.6	13.5	16.0	20.2
20세 이전 시점 소득계층	하	24.7	12.0	19.5	44.2	16.7	23.0	28.5
	중	16.8	8.6	16.4	36.7	13.5	13.2	24.0
	상	20.2	14.2	21.9	38.5	17.8	12.3	30.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표 5-16〉과 〈표 5-17〉은 귀속지위와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박탈 경험의 관계를 선형확률모형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이다. 주요 사회경제적 사건 경험은 앞에서 확인한 차이가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귀속지위와 2020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주식 코인으로 인한 어려움의 관계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박탈의 경우, 교육의 경우에만 명확한 선형 관계가 확인되었다. 20세 이전 소득하위계층인 경우, 중층, 상층보다 학비 미납 등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귀속지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사건과 박탈 경험의 차이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후기 중년의 생애과정과 이질적 특성을 고려해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5-16〉 귀속지위와 주요 사건 경험의 관계(Linear probability model)

구분		1997 외환위기	2008 금융위기	2020 코로나19	주식 코인 문제
성별	여성	-0.03#	-0.02	0.06***	-0.04**
연령 (1차)	2차	0.06**	0.02	0.00	0.01
	X세대	0.04	0.06*	-0.01	0.04#
20세 이전 계층 (하)	중	-0.07***	-0.06**	-0.03	-0.02
	상	-0.08*	-0.04	-0.02	-0.02
Constant		0.59***	0.49***	0.58***	0.34***
사례 수		3,575	3,575	3,575	3,575

주: # p<.10,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표 5-17〉 귀속지위와 박탈 경험의 관계(Linear probability model)

구분		건강 (의료 미이용)	주거 (집세 연체, 이사)	교육 (미납, 학업중단)
성별	여성	-0.02	0.00	0.02
연령 (1차)	2차	0.02	0.03#	-0.01
	X세대	0.01	0.01	0.00
20세 이전 계층 (하)	중	-0.08***	-0.03	-0.10***
	상	-0.04	0.03	-0.11***
Constant		0.25***	0.18***	0.22***
사례 수		3,575	3,575	3,575

주: # p<.10,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 생애 경험과 이중과업, 사회적 불안의 관계

이어서 앞에서 확인한 사회경제적 사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박탈 경험과 중년기의 이중과업(가족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과 노후준비), 그리고 사회적 불안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과 박탈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경험

횡수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주식과 코인, 총 4회이며, 박탈은 건강, 주거, 교육 영역 박탈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에 못 간 적이 있는 경우, 월세 등이 연체되거나 주거비 때문에 이사한 경우, 교육비가 연체되거나 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경우로 측정하였다.

〈표 5-18〉과 〈그림 5-13〉은 생애 경험 횡수에 따른 이중과업 유형 분포이다.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박탈 경험 횡수가 적을수록 돌봄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박탈 경험 횡수가 증가할수록 이중과업으로 인한 부담 수준이 높은 유형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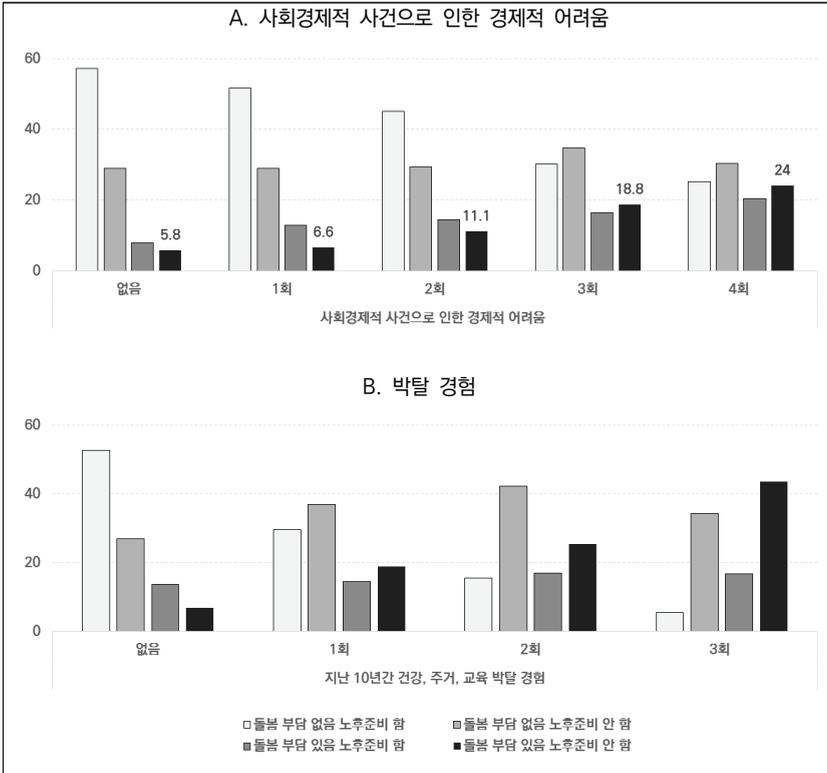
〈표 5-18〉 생애 경험 누적 횡수에 따른 이중과업 유형 분포

(단위: %)

구분	이중과업으로 인한 부담 수준				카이 검정	
	낮음 ← 돌봄 부담 없음 노후준비 함	→ 높음 돌봄 부담 없음 노후준비 안 함	→ 높음 돌봄 부담 있음 노후준비 함	← 낮음 돌봄 부담 있음 노후준비 안 함		
전체 (n=3,575)	42.7	30.6	14.3	12.5	-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없음	57.2	29.0	8.0	5.8	***
	1회	51.6	29.0	12.9	6.6	
	2회	45.0	29.4	14.5	11.1	
	3회	30.1	34.7	16.5	18.8	
	4회	25.1	30.4	20.5	24.0	
지난 10년간 건강, 주거, 교육 박탈 경험	없음	52.5	27.0	13.6	6.9	***
	1회	29.5	36.9	14.6	18.9	
	2회	15.5	42.1	17.0	25.4	
	3회	5.6	34.2	16.8	43.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5-13] 생애 경험 누적 횟수에 따른 이중과업 유형 분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주목할 부분은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박탈 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가족 돌봄 부담이 없으면서 노후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은 비중이었다는 점이다. 가족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 유형 중 일부는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가족을 돌보기 어렵거나 (이 때문에 가족 돌봄 부담이 없는 경우),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라는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다음 <표 5-19>는 생애경험과 돌봄 부담, 노후준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분석한 결과이다. 돌봄 부담이 있는 경우 사회적으로 불안하다

고 인식하는 비율은 83.7%로, 돌봄 부담이 없는 경우(77.9%)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사회경제적 어려움 횟수가 증가할수록 돌봄 부담 여부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의 차이는 줄어들고, 경제적 어려움 횟수가 4회인 경우에는 돌봄 부담이 없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이 더 높아졌다. 박탈 횟수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는데, 박탈 경험이 3회 이상인 경우 돌봄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92.2%가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하였다.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으며, 이는 사회경제적 어려움 경험 횟수와 박탈경험이 누적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5-19〉 생애 경험과 돌봄 부담 및 노후준비 여부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

구분	돌봄 부담			노후준비		
	없음	있음	카이 검정	하고 있음	하지 않음	카이 검정
전체 (n=3,575)	77.9	83.7	***	76.2	83.7	***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없음	69.6	77.2	68.2	75.4	-
	1회	77.9	85.8	76.8	84.1	
	2회	77.4	81.3	76.2	81.6	
	3회	81.5	84.9	79.4	85.5	
	4회	88.0	85.5	83.3	89.8	
지난 10년간 건강, 주거, 교육 박탈 경험	없음	75.8	84.5	75.6	81.5	-
	1회	81.9	81.7	77.0	85.7	
	2회	84.3	86.2	82.0	86.6	
	3회	92.2	80.4	77.8	87.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이어서 생애 경험 누적 횟수와 이중과업 유형을 교차하였을 때,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확인하였다(〈표 5-20〉, [그림 5-14] 참고). 이중과업 유형 중 돌봄 부담이 있고,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

우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이중과업 유형이 같더라도, 사회 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횟수가 많을수록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고,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66.8%였는데, 4번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에는 이 비율이 84.4%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생애경험의 누적과 이중과업으로 인한 부담이 증척될수록 사회적 불안 수준이 커질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표 5-20〉 생애 경험과 이중과업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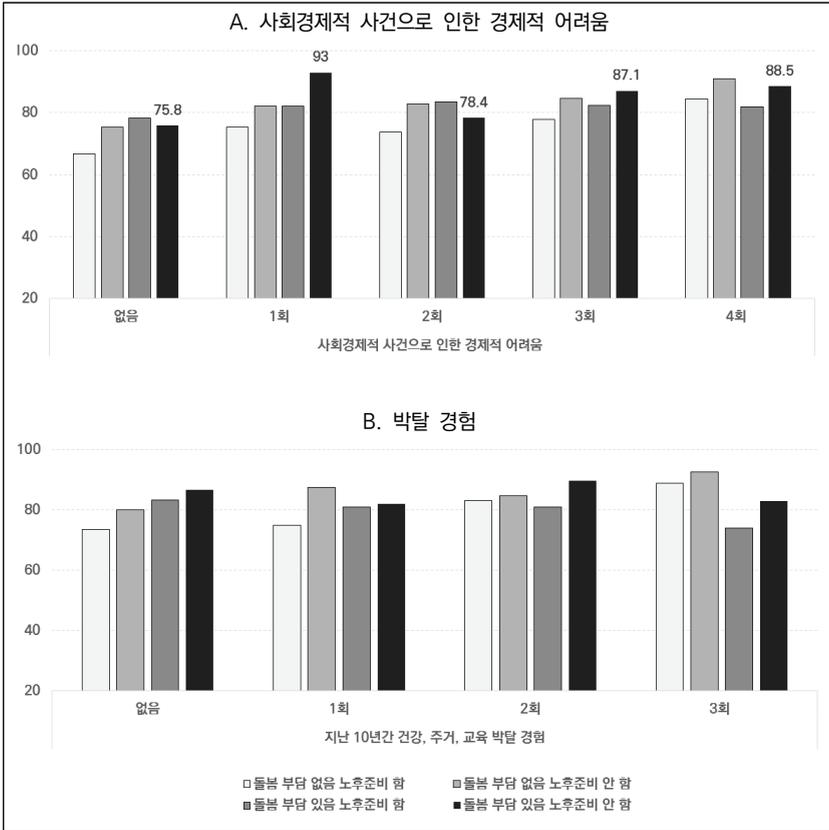
구분		이중과업으로 인한 부담 수준				카이 검정
		낮음 ← 돌봄 부담 없음 노후준비 함	→ 높음 돌봄 부담 없음 노후준비 안 함	→ 높음 돌봄 부담 있음 노후준비 함	← 낮음 돌봄 부담 있음 노후준비 안 함	
전체 (n=3,575)		74.2	83.0	82.2	85.4	***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없음	66.8	75.3	78.3	75.8	***
	1회	75.4	82.1	82.1	93.0	
	2회	73.8	82.9	83.5	78.4	
	3회	77.8	84.6	82.4	87.1	
	4회	84.4	90.9	82.0	88.5	
지난 10년간 건강, 주거, 교육 박탈 경험	없음	73.6	80.1	83.3	86.7	**
	1회	75.0	87.5	81.1	82.1	
	2회	83.0	84.7	81.0	89.7	
	3회	88.9	92.7	74.1	82.9	

주: 1) 경제적 어려움 경험 여부에 따른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2)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인식을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5-14] 생애 경험과 이종과업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주: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인식을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3.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생애 경험과 사회적 불안의 차이

이어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애 경험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확인하였다. <표 5-21>과 <표 5-22>는 귀속지위, 생애사건 경험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분석한 결과이다.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없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다. 남성보다 여성이, 최근 세대일수록, 20세 이전 소득하위계층인 경우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집단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났다.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고, 20세 이전에 소득하위계층이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85.0%였는데,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한 중층(80.5%), 상층(76.5%)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2008 금융위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코인, 주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하층이 경험한 경우보다 오히려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다.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다소 여력이 있는 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박탈도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표 5-21〉 귀속지위와 사회경제적 사건 경험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

구분		성별		연령			20세 이전 소득계층		
		남성	여성	1차 베이비붐	2차 베이비붐	X세대	하	중	상
1997 외환위기	없음	72.4	82.2	75.6	78.2	78.5	78.3	77.2	77.6
	있음	77.8	84.4	76.5	81.6	86.7	85.0	80.5	76.5
2008 금융위기	없음	72.0	81.3	73.3	77.8	79.5	75.8	77.0	75.6
	있음	79.5	86.1	79.6	83.1	86.6	89.0	81.5	78.7
코로나19	없음	70.8	77.8	72.2	74.2	76.6	77.0	73.6	71.9
	있음	79.2	86.9	78.7	84.4	87.7	85.9	82.9	80.5
코인 주식 문제	없음	73.6	82.9	74.4	79.4	82.1	83.0	77.5	76.7
	있음	79.4	84.6	79.9	81.8	84.9	81.3	82.5	77.9

주: 단문으로 측정한 사회적 불안 인식에서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표 5-22〉 귀속지위와 박탈 경험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

구분		성별		연령			20세 이전 소득계층		
		남성	여성	1차 베이비붐	2차 베이비붐	X세대	하	중	상
건강 (미충족)	없음	74.3	82.5	74.7	79.7	81.9	82.6	77.9	77.3
	있음	80.3	87.3	82.7	83.8	84.0	83.9	84.5	77.0
주거 (연체 이사)	없음	74.3	82.6	74.3	79.2	83.6	81.4	78.1	75.5
	있음	81.3	87.2	85.5	84.4	80.7	86.9	83.7	82.5
교육 (미납 중단)	없음	74.8	82.5	74.7	79.7	81.9	82.6	77.9	77.3
	있음	79.8	88.1	83.9	82.8	89.3	81.9	86.2	75.6

주: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인식에서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이종과업 유형,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박탈 경험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각 변수를 반영한 선형회귀모형을 마련해 분석하였다(〈표 5-23〉 참조). 본 분석은 인과모형이 아니라 변수 간 관계성을 탐색하기 위함이므로 변수 간 관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지위 모형은 귀속지위와 획득지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모형이다. 두 번째 모형은 사회경제적 지위 모형에서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횟수를 추가하였고, 세 번째 모형은 박탈 경험 횟수를 추가했다. 네 번째 모형인 이종과업 유형은 생애사건 변수를 제외하고, 이종과업 유형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합모형에는 모든 변수를 투입해 사회적 불안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남성보다 여성은 사회적 불안 수준이 일관되게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사회경제적 지위, 생애사건, 이종과업을 모두 통제하더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연령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귀속지위인 20세 이전 소득계층보다는 현시점 소득계층과 교육수준이 사회적 불안 수준과 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표 5-23) 사회경제적 지위, 주요 사건·박탈 중복경험과 사회적 불안(Linear probability model)

구분		사회경제적 지위	주요 사건 경제 어려움	박탈 경험	이중과업	통합 모형
성별	여성	0.08***	0.08***	0.08***	0.08***	0.08***
연령 (1차)	2차	0.02	0.02	0.02	0.02	0.02
	X세대	0.02	0.02	0.02	0.01	0.02
20세 전 소득계층 (하)	중	-0.03	-0.02	-0.02	-0.03	-0.02
	상	-0.04	-0.04	-0.04	-0.05#	-0.04
본인 교육(고졸)	대졸	0.06***	0.06***	0.06***	0.07***	0.06***
현재 소득(하)	중	-0.05*	-0.04*	-0.04	-0.03	-0.03
	상	-0.15***	-0.14***	-0.13***	-0.12***	-0.11**
경활상태 (상용직)	임시	0.00	-0.01	-0.01	0.00	-0.01
	자영	0.00	0.00	0.00	0.00	0.00
	실업	-0.04	-0.04	-0.04	-0.04	-0.04
	비경활	0.04#	0.04#	0.04#	0.04#	0.04#
주요 사건 경제적 어려움 (없음)	1회		0.08**	0.08**		0.07**
	2회		0.06*	0.06*		0.06*
	3회		0.09***	0.08***		0.08**
	4회		0.12***	0.12***		0.11***
박탈 경험 (없음)	1회			0.01		0.00
	2회			0.02		0.01
	3회			0.01		0.00
이중과업 유형 (하)	중하				0.06***	0.06***
	중상				0.06**	0.04*
	상				0.07***	0.06**
Constant		0.59***	0.55***	0.55***	0.56***	0.52***
사례 수		3,575	3,575	3,575	3,575	3,575

주: 1) # p<.10, * p<0.05, ** p<0.01, *** p<0.001.

2)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인식임.

3)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모두 통제함.

4) 이중과업을 구성하는 돌봄 부담과 노후준비 변수를 각각 투입한 경우, 돌봄 부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사회적 불안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기 중년은 그렇지 않은 고졸 이하 집단보다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6% 낮았으며, 현재 소득계층이 상층이면 하층보다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11~15% 낮아졌다. 주요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 경험 횟수가 많을수록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박탈 경험 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제5절 소결

본 장에서는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귀속지위와 획득지위로 구분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사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생애 박탈 경험, 그리고 생애과정 관점에서 중년기의 이중과업 특성을 노후준비 여부와 가족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유형화하여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성, 연령집단, 20세 이전 주관적 소득계층으로 측정한 귀속지위에 따라 사회적 불안 수준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남성보다 여성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고, 1차 베이비붐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보다 40대 후반인 X 세대의 사회적 불안이 높았다. 획득지위는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상태, 현재 소득계층에 관한 주관적 인식으로 측정하였는데, 2년제 대졸 이상인 경우보다 고졸 이하인 집단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으며, 임시일용직, 실업, 비경제활동 상태인 경우, 그리고 소득계층이 하층인 경우 상층보다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애 경험, 이중과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20세 이전 시점에 소득하위계층인 경우 사회경제적 사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고, 가족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과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집단에 속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불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소득계층 인식이 하층이고,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누적 횟수가 많은 경우, 그리고 이중과업으로 인한 부담 수준이 높은 집단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는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이 후기 중년이 위치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나아가 중년기에 경험하는 생애 과업으로 인한 부담으로 이어져 사회적 불안의 격차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년 집단 내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생애 경험의 차이와 이중과업의 이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6장

사회적 불안과 대처기제

제1절 분석의 목적과 방법

제2절 대처방식별 불안 비교

제3절 사회참여 및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불안

제4절 사회적 불안에 대한 사회관계의 영향 분석

제5절 소결



제 6 장 사회적 불안과 대처기제

제1절 분석의 목적과 방법

1. 분석의 목적

이번 장에서는 후기 중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사회적 불안을 대처하는 방식과 양상 그리고 사회관계와 사회적 불안에 대한 사회관계의 영향 분석을 목표로 한다. 이들의 사회적 불안은 개인의 노후 삶의 질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완화 혹은 낮출 수 있는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후기 중년의 불안과 대처기제

후기 중년은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에 있는 집단이다 (Choi, Lee, & Joshanloo, 2018). 생애 차원에서 볼 때, 후기 중년은 청년세대와 노인세대 중간에 놓인 집단이다(한경혜, 이정화, 옥선화, Ryff, Marks, 2002). 이에 따라, 이들은 독립하지 않은 자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부모를 보살펴야 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한경혜 외, 2002). 또한, 퇴직이나 은퇴를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며, 은퇴를 경험한 이들은 가족 내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야 한다(안지선, 전혜

정, 2012). 건강 측면에서도 본격적으로 노화 진행을 앞두고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김연숙, 허명행, 2021).

대처방식은 ‘개인이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해결하고 적응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현주 외, 2020, p. 187). Lazarus & Folkman(1984)은 개인이 이러한 내외부적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혹은 반응하느냐에 따라, 적응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후기 중년의 경우, 다른 세대와 달리 가족,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부여된 사회적 역할이 주위 외부 환경으로 인해 갈등이나 마찰을 빚게 되면서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최미경, 이영희, 2010). 실제로 후기 중년의 우울증은 유전적 요인 같은 내적 요인보다도 중년기의 과제 및 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생한다고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Nishizono, 1985). 다시 말하면, 외부 환경적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면 건강한 상태로 남게 되지만, 만약 변화의 대처가 실패한다면, 우울, 불안 등과 같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중년의 불안, 우울증 같은 지표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을 측정할 뿐, 대처방식, 대응방식, 대처기제와 관련된 연구를 다룬 것은 많지 않다. 또한 연구 대상이 주로 중년여성과 관련되어 있어, 중년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대처방식과 관련된 연구로는 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청소년 혹은 대학생의 특성을 살펴보았다(이영아, 정원철, 2010; 박창식, 이형수, 조병모, 2011; 정민선, 김현미, 권현용, 2012). 정리하자면,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 개인이 사회적 불안에 대처하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 후기 중년의 사회참여와 사회관계

사회적 불안을 완화시키는 주요 요인에는 사회참여와 사회관계가 제시되고 있다(곽윤경, 김세진, 황남희, 전지현, 이현주, 2021, p. 115). 사회참여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른데, 사회적 불안 2차 연도 연구에서는 ‘주로 정치활동, 종교 및 친목모임 활동 그리고 기타 모임 활동’으로 정의한 바 있다(이현주 외, 2020, p. 189). 사회참여는 개인의 자살 생각을 줄여주고, 또한 높은 수준의 여가활동 참여는 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예성, 하용용, 2015). 즉, 사회참여는 한 사회에서 개인의 노화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임정미, 2020).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고,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관계 혹은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와 혼용하여 사용하나 망의 크기, 구성원의 동질성이나 접촉의 빈도와 서로 간에 지지를 주고받는 기회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장혜경, 2021, p. 393). 사회적 관계망에는 주로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등을 포함하여 공적 관계에 있는 이들이 포함된다. 사회적 관계 혹은 관계망은 개인으로 하여금 우울감 등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경혜, 김주현, 김경민, 2003). 후기 중년의 경우, 자녀의 독립 및 결혼, 본인의 은퇴 및 퇴직,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축소되거나 차단되면서 사회관계, 즉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어 시기를 고려할 때(김연지, 이주희, 이영주, 2018), 적극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분석 방법

우선, 사회적 불안 관련 변수는 앞선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인분석으로 도출한 사회 불안 전체 및 영역별 불안 수준을 준용할 것이다. 그 외 본 장에서 활용할 변수는 아래와 같다.

활용된 변수는 아래 <표 6-1>과 같다. 사회참여 변수는 정치·사회모임, 종교모임, 친목모임 그리고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2021년에 진행한 제3차 연구(곽윤경 외, 2021)에서 사회참여를 정치·사회모임, 종교모임, 친목모임, 공공여가문화시설과 온라인 활동, 총 5가지 유형으로 세부 분류한 것에 비해 다소 축소 및 조정되었다. 또한, 사회관계망 변수로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모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여부와,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로 조작하였다.

<표 6-1> 사회참여와 사회관계망 활용 변수

구분		주요문항 및 세부설명
사회참여 (단체·모임활동)	정치·사회모임	정당, 시민운동단체, 노조,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종교모임	-
	친목모임	취미모임이나 동창모임 등
	주민참여나 활동· 학부모 모임	-
사회관계망	몸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	각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 및 명수
	큰돈 빌릴 수 있는 사람	
	낙심·우울 시 이야기 상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매개변수로는 자아존중감 변수를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2020년에 진행한 제2차 연구(이현주 외, 2020)와 2021년에 진행한 제3차 연구(곽윤경 외, 2021)에 사용된 문항과 대동소이하다. 4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2〉 매개변수

구분	주요문항 및 세부설명
자아 존중감	-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나는 어려운 일이 닦쳤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아챈다
	-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할 때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별로 없다
	- 나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 외 활용한 통제변수로는 성별(남/녀), 연령(45~54세/55~64세), 혼인상태(유배우자/무배우자), 교육수준(중졸 이하/고졸/대졸 이상), 주관적 건강상태(나쁨/보통/ 좋음), 거주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지역), 가구 균등화 소득 5분위, 그리고 종교(있음/없음)로 구성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후기 중년의 불안 대처방식을 확인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불안 대처방식, 그리고 불안 대처방식별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사회참여를 인구사회학적 특징별로 보고, 참여 유무별 사회적 불안 수준과 참여별 사회적 불안 인식의 상중하 분포를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관계망을 인구사회학적 특징별로 살펴보고, 사회관계망 유무 및 크기별 불안 수준, 사회적 불안의 상중하 분포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를 살펴본 후,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와 사회 불안 인식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 간의 관계에서 사회관계의 조절효과를 파악한다.

제2절 대처방식별 불안 비교

후기 중년들은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주로 수면, TV 시청 또는 PC·스마트폰 이용, 여가·문화·종교 활동, 사회적 교류(가족·지인 대화 및 만남) 등으로 대처하였다. 반면,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과 그냥 참는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 가지 특징점은 55~64세 집단은 여가·문화·종교 활동을 통해 불안에 대처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표 6-3〉 후기 중년의 불안 대처방식(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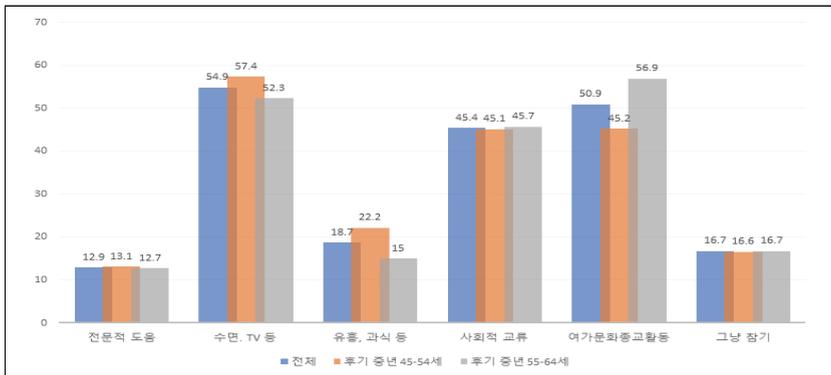
(단위: %)

	전체	후기 중년	
		45-54세	55-64세
전문적 도움(의료적 도움, 심리상담)	12.9	13.1	12.7
수면, TV 시청 또는 PC·스마트폰 이용	54.9	57.4	52.3
유희(흡연, 음주)·과식·폭식·미식	18.7	22.2	15.0
사회적 교류(가족·지인 대화 및 만남)	45.4	45.1	45.7
여가·문화·종교 활동	50.9	45.2	56.9
그냥 참기	16.7	16.6	16.7

주: 1, 2순위 응답을 합산하여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6-1] 후기 중년 연령별 불안 대처방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불안 대처방식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불안 대처방식을 살펴보면 아래 <표 6-4>와 같다. 성별의 경우, 수면, TV 시청 또는 PC·스마트폰 이용과 여가문화·종교 활동으로 대처한다는 응답은 여성이 약간 더 높았으나, 남성과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연령별로는, 수면, TV 시청 또는 PC·스마트폰 이용을 통해 불안을 대처한다는 응답은 45~54세에서 가장 높았고, 여가·문화·종교 활동은 55~64세 집단에서 높았다. 그냥참기는 두 집단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수면, TV 시청 또는 PC·스마트폰 이용을 통해 불안을 대처한다는 비율은 중졸 이하에서 가장 높았다. 전문적 도움은 중졸 이하에서 가장 높은 반면, 대졸 이상은 사회적 교류와 여가문화·종교 활동을 통해 대처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고졸의 학력을 지닌 집단은 그냥 참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은 수면, TV 시청 또는 PC·스마트폰 이용을 통해 불안을 대처하였고, 반면에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은 사회적 교류와 여가·문화·종교 활동을 통해 불안에 대처하였다. 거주지역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후기 중년은 수면, TV 시청 또는 PC·스마트폰 이용하는 반면, 유흥·과식·폭식·미식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에서 많았다. 여가·문화·종교 활동(55.8%)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서 높았다. 가구 균등화 소득 5분위의 경우, 소득 1분위는 수면, TV 시청 또는 PC·스마트폰 이용과 그냥 참기(22.6%)를 통해 불안에 대처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유흥(흡연, 음주)·과식·폭식·미식은 소득 3분위에서 높았고, 사회적 교류와 여가·문화·종교 활동은 소득 4분위에서 높았다.

178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45~64세 집단의 사회적 불안

〈표 6-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불안 대처방식

(단위: %)

구분	전문적 도움 (의료적 도움, 심리상담)	수면, TV 시청 또는 PC·스마트 폰 이용	유흥(흡연, 음주)·과식· 폭식·미식	사회적 교류 (가족·지인 대화 및 만남)	여가· 문화· 종교 활동	기타	그냥 참기	
전체	12.9	54.9	18.7	45.4	50.9	0.3	16.7	
성별	남성	14.0	54.3	28.1	36.8	50.7	0.2	15.5
	여성	11.8	55.5	9.0	54.1	51.1	0.3	17.8
연령	45~54세	13.1	57.4	22.2	45.1	45.2	0.2	16.6
	55~64세	12.7	52.3	15.0	45.7	56.9	0.3	16.7
혼인 상태	유배우	11.6	53.4	17.5	48.4	53.4	0.3	15.3
	무배우	17.2	59.6	22.6	35.7	43.0	0.2	20.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3.5	61.8	17.6	41.2	35.3	0.0	17.6
	고졸	15.5	53.4	18.9	43.6	45.6	0.1	22.2
	대졸 이상	11.7	55.2	18.6	46.1	53.3	0.3	14.6
주관적 건강 상태	나쁘다	22.0	58.0	23.9	36.3	35.7	0.1	23.4
	보통	11.8	55.5	19.7	43.7	50.7	0.4	18.0
	좋다	8.6	51.9	13.5	54.1	61.4	0.1	10.1
거주 지역	대도시	13.6	56.7	18.0	47.0	48.0	0.2	16.3
	중소도시	11.6	53.6	19.7	45.3	51.8	0.4	17.4
	농어촌	14.3	53.8	17.8	41.8	55.8	0.0	15.9
가구 균등화 소득 5분위	1분위	18.3	57.1	18.1	36.3	46.5	0.3	22.6
	2분위	13.5	54.3	18.9	45.8	50.8	0.3	16.1
	3분위	11.1	56.9	21.8	46.9	47.0	0.1	15.9
	4분위	12.0	53.0	14.5	49.6	55.8	0.0	15.1
	5분위	9.8	53.2	19.9	48.1	54.6	0.6	13.9

주: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주로 하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의 1~3순위 중복 응답을 합산하여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 불안 대처방식별 사회적 불안 수준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별로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보면 <표 6-5>와 같다. 불안 대처방식으로 전문적 도움(의료적 도움, 심리상담)을 받는다고 응답한 후기 중년은 사회 불안 인지가 조금 더 높다. 유흥(흡연, 음주)·과식·폭식·미식으로 불안에 대처하는 후기 중년은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냥 참는다’는 사회 불안 인지와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불안 대처방식별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개인 불안	개인 불안 인지
		사회적 불안 인식	불공정/정부 불신	경쟁/도태 불안	사건/사고 불안		
전문적 도움 (의료적 도움, 심리상담)	4.07	3.89	4.05	3.82	3.59	2.23	3.55
수면, TV 시청 또는 PC·스마트폰 이용	4.03	3.81	4.00	3.73	3.43	1.90	3.22
유흥(흡연, 음주)·과식·폭식·미식	4.06	3.91	4.12	3.82	3.48	2.01	3.39
사회적 교류 (가족·지인 대화 및 만남)	3.98	3.75	3.94	3.67	3.36	1.80	3.00
여가·문화·종교 활동	3.99	3.77	3.98	3.67	3.37	1.81	3.02
기타	4.22	3.88	4.06	3.68	3.75	1.81	3.44
그냥 참기	4.11	3.88	4.11	3.76	3.45	1.95	3.31

주: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주로 하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의 1~3순위 중복 응답 기준이며, 1~5점 중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함. 다만 개인 불안은 1~4점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다음으로, 사회적 불안의 상중하 분포별 대처방식의 사회적 불안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불공정/정부 불신이 ‘상’인 집단은 수면, TV 시청 또는 PC·스마트폰 이용(55.6%)을 통해 불안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 ‘하’인 집단은 여가·문화·종교 활동(57.3%)과 사회적 교류(55.7%)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도태 불안이 ‘상’인 집단은 수면, TV 시청 또는 PC·스마트폰 이용(56.9%)을 통해 대처하는 경향이 있었고, ‘하’인 집단은 여가·문화·종교 활동(60.4%)을 통해 불안에 대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건/사고 불안이 ‘상’인 집단은 수면, TV 시청 또는 PC·스마트폰 이용(55.9%)을, ‘하’인 집단은 여가·문화·종교 활동(55.9%)을 통해 불안에 대응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이 ‘상’인 집단은 수면, TV 시청 또는 PC·스마트폰 이용(56.3%)이 가장 많았고, ‘하’인 집단은 여가·문화·종교 활동(64.2%)이 가장 많았다.

정리하자면, 불안이 ‘상’인 집단은 주로 수면, TV 시청 또는 PC·스마트폰 이용을 통해 불안에 대처하는 경향을 보였고, ‘하’인 집단은 여가·문화·종교 활동을 통해 불안에 대처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6-6〉 불안 대처방식별 사회적 불안 상중하 수준

(단위: %)

구분	불공정/정부 불신				경쟁/도태 불안				사건/사고 불안				사회적 불안 인식			
	상	중	하	평균	상	중	하	평균	상	중	하	평균	상	중	하	평균
전문적 도움 (의료적 도움, 심리상담)	13.3	12.7	11.8	12.6	17.2	11.5	11.2	13.3	20.3	13.3	9.4	14.3	16.1	11.1	12.2	13.1
수면, TV 시청 또는 PC·스마트폰 이용	55.6	54.7	50.6	53.6	56.9	55.3	48.4	53.5	55.9	55.9	52.9	54.9	56.3	54.9	48.0	53.0
유희(흡연, 음주)·과식· 폭식·미식	21.8	16.6	9.8	16.1	24.8	17.4	12.4	18.2	21.5	19.8	15.7	19.0	23.7	16.8	10.2	16.9
사회적 교류 (가족·지인 대화 및 만남)	40.6	49.2	55.7	48.5	39.9	46.4	51.6	45.9	33.7	45.7	49.5	43.0	38.9	48.2	53.7	46.9
여가·문화·종교 활동	49.3	51.8	57.3	52.8	42.5	52.5	60.4	51.8	49.9	48.1	55.9	51.3	45.4	52.6	64.2	54.1
그냥 참기	19.1	14.2	14.5	15.9	18.5	16.2	15.3	16.7	18.6	16.6	16.0	17.1	19.5	15.6	11.4	15.5

주: 1)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주로 하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의 1~3 순위 중복 응답 기준임.

2) 응답 중 ‘기타’는 제외함.

3) 사회 불안 수준은 1~5점 척도에서 3.0점 미만은 ‘하’, 3~4점 미만 ‘중’, 4점 이상은 ‘상’으로 분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제3절 사회참여 및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불안

1. 사회참여별 사회적 불안

후기 중년의 단체·모임활동의 참여 특성은 <표 6-7>과 같다. 후기 중년들은 친목모임(61.6%)의 참여가 가장 높았다. 그 외 종교모임(26.9%), 주민참여나 활동, 학부모 모임(15.9%), 그리고 정당, 시민운동단체, 노조, 사업자 단체 또는 직업조합(10.6%) 순으로 나타났다. 즉, 후기 중년의 단체·모임활동은 친목모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단체·모임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보다 정치·사회모임과 친목모임 참여가 높은 반면, 여성은 종교모임과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연령별로는 45~54세 집단은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을 제외하고는 다른 단체·모임 활동은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은 편이었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없는 이보다 단체·모임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 후기 중년은 종교모임을 제외하고 기타 세부 유형별 단체·모임활동 참여율이 높은 편이었다. 중졸 이하 후기 중년은 종교모임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후기 중년은 세부 유형별 단체·모임활동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이들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후기 중년보다 전반적으로 단체·모임활동 참여율이 높았다. 가구 균등화 소득 5분위의 경우, 소득 4분위인 후기 중년이 친목모임을 제외하고 참여율이 높았고, 소득 5분위는 친목모임 참여가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표 6-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후기 중년의 단체·모임활동

(단위: %)

구분		단체·모임 활동 ¹⁾			
		정치·사회모임 ²⁾	종교모임	친목모임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
전체		10.6	26.9	61.6	15.9
성별	남성	13.4	20.1	56.6	12.9
	여성	7.2	24.9	52	19.6
연령	45-54세	10.1	18.2	47.3	16.5
	55-64세	10.6	26.9	61.6	15.9
혼인상태	유배우	10.7	23.6	59.2	18.4
	무배우	9.2	18.7	38.6	9.2
교육수준	중졸 이하	8.8	26.5	42.6	14.7
	고졸	9.6	19.4	46.5	13.6
	대졸 이상	10.7	23.4	57.4	17.2
주관적 건강상태	나쁘다	7.5	16.8	44.3	9.6
	보통	10.4	21.5	52.4	15.9
	좋다	12.1	27.7	63.9	21.1
거주 지역	대도시	9.7	21.2	55	16
	중소도시	10.4	22.2	53.6	14.5
	농어촌	11.8	25.9	54.2	20.8
가구 균등화 소득 5분위	1분위	7.9	23	37.4	12.5
	2분위	10.9	22	48	15.9
	3분위	8.1	23	55.8	13.8
	4분위	13.3	22.6	62.1	19.8
	5분위	11.5	21.6	67.7	19.1

주: 1) '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한다'와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비율의 합산임.

2) 정치·사회모임은 정당, 시민운동단체, 노조, 사업자 단체 또는 직업조합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단체·모임활동별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아래 〈표 6-8〉과 같다. 단체·모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사회 불안 인지와 사회 불안, 개인 불안, 그리고 개인 불안 인지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체·모임활동 참여자가 미참여자보다 사회 불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8〉 단체·모임활동에 참여한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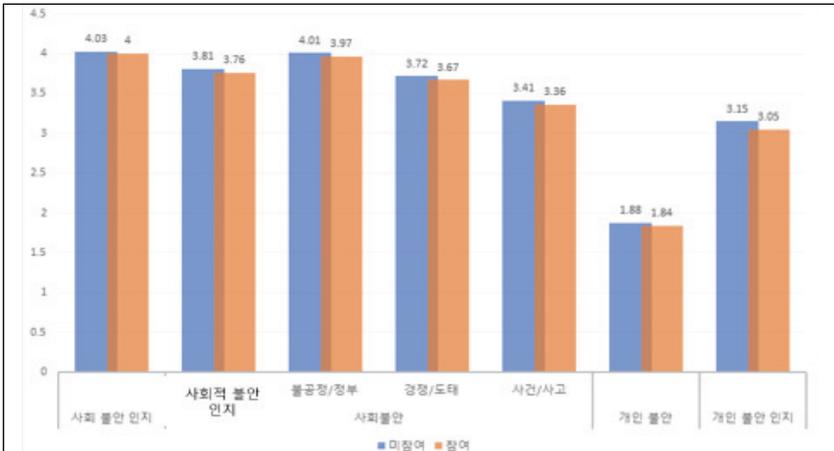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개인 불안	개인 불안 인지	
		사회적 불안 인식	불공정/정부 불신	경쟁/도태 불안	사건/사고 불안			
단체·모임활동 ¹⁾	미참여	4.03	3.81	4.01	3.72	3.41	1.88	3.15
	참여	4.00	3.76	3.97	3.67	3.36	1.84	3.05
정치·사회모임)	미참여	4.02	3.81	4.00	3.72	3.41	1.87	3.16
	참여	4.02	3.79	4.00	3.68	3.41	1.98	3.10
종교모임	미참여	4.02	3.82	4.03	3.73	3.42	1.90	3.21
	참여	4.01	3.73	3.92	3.65	3.37	1.84	2.95
친목모임	미참여	4.06	3.85	4.04	3.77	3.48	1.95	3.29
	참여	3.99	3.76	3.97	3.67	3.35	1.83	3.04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	미참여	4.02	3.81	4.01	3.72	3.41	1.88	3.17
	참여	4.02	3.77	3.96	3.69	3.42	1.91	3.07

주: 1) 정치·사회모임, 종교모임, 친목모임, 공공 여가문화시설 중 1개 이상 참여하는 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6-2] 단체·모임활동 참여 유무별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다음으로, 사회적 불안의 상중하 분포별 단체·모임활동 수준에 대해 살펴 보았다(〈표 6-9〉 참조). 사회적 불안 인식이 ‘상’인 집단과 불공정/정부 불신이 ‘상’인 집단에서는 정치·사회모임 참여가 높은 반면, 각 불안 수준이 ‘하’인 집단에서는 종교모임 참여가 많았다. 경쟁/도태 불안과 사건/사고 불안이 ‘상’인 집단에서는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경쟁/도태 불안이 ‘하’인 집단에서는 종교모임 참여가, 사건/사고 불안이 ‘하’인 집단에서는 친목모임 참여가 많았다.

정리하면, 정치·사회모임에 참여하는 이들의 사회적 불안 인식과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은 다른 영역의 불안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활동 참여가 불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아 보인다. 오히려 종교모임에 참여한 이들의 사회 불안 수준이 대체로 낮은 결과를 고려할 때, 사적 영역에서의 사회참여가 사회 불안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의 해석은 추정이며, 요인 간 상관관계는 확인되지만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분명하게 단언하기 어렵다.

〈표 6-9〉 단체·모임활동에 참여한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 상중하 수준

(단위: %)

구분	사회적 불안 인식			불공정/정부 불신			경쟁/도태 불안			사건/사고 불안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단체·모임활동 ¹⁾	31.8	60.3	7.9	47.8	44.3	8.0	23.0	63.9	13.1	11.6	52.4	36.0
정치·사회모임	32.4	59.7	7.8	49.7	41.4	8.9	22.2	64.6	13.2	12.2	55.1	32.7
종교모임	29.8	60.5	9.7	44.0	45.9	10.1	21.9	61.8	16.2	12.6	51.2	36.2
친목모임	31.2	60.9	7.9	47.6	44.7	7.7	22.8	64.1	13.1	11.6	52.1	36.3
주민참여나 활동· 학부모 모임	30.9	61.9	7.2	47.1	44.8	8.1	24.0	65.2	10.9	14.3	52.6	33.1

주: 1) 정치·사회모임, 종교모임, 친목모임, 공공 여가문화시설 중 1개 이상 참여하는 비율임.

2) 사회 불안 수준은 1~5점 척도에서 3.0점 미만은 ‘하’, 3~4점 미만 ‘중’, 4점 이상은 ‘상’으로 분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 사회관계망별 사회적 불안

후기 중년의 사회관계망별 사회적 불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관계망을 세부적으로 ㄱ)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ㄴ)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ㄷ)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에게 부탁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후기 중년은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가 있었고,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은 2.49명으로 확인되었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77.5%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1.85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62.1%였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1.35명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위의 3가지 경우 모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후기 중년은 52.6%로 나타났다. 특히, 45~54세 집단은 55~64세 집단보다, 유배우자는 무배우자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은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보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가구 균등화 소득의 경우, 소득 5분위인 후기 중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소득 분위보다 높았다.

〈표 6-1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관계망

(단위: %, 명)

구분		사회관계망 유무 및 크기 ¹⁾			
		몸 아파 집안일 부탁(A)	큰돈 빌림(B)	이야기 상대 필요(C)	A~C 모두 해당2)
전체		77.5 (1.85)	62.1 (1.35)	84.3 (2.49)	52.6
성별	남성	77.1 (1.93)	61.4 (1.38)	81.0 (2.4)	49.8
	여성	77.9 (1.77)	62.8 (1.32)	87.6 (2.59)	50.2
연령	45-54세	77.3 (1.78)	64.9 (1.37)	83.6 (2.48)	53.1
	55-64세	77.7 (1.92)	59.2 (1.33)	84.9 (2.5)	46.9
혼인상태	유배우	81.4 (1.98)	65.0 (1.44)	87.4 (2.59)	81.6
	무배우	65.0 (1.45)	53.0 (1.06)	74.4 (2.17)	18.4
교육수준	중졸 이하	63.2 (1.57)	48.5 (0.90)	66.2 (1.82)	1.2
	고졸	73.4 (1.65)	56.6 (1.18)	80.2 (2.25)	22.9
	대졸 이상	79.4 (1.93)	64.4 (1.42)	86.2 (2.6)	75.8
주관적 건강상태	나쁘다	67.9 (1.32)	49.1 (0.93)	76.5 (2.11)	15.4
	보통	77.5 (1.83)	61.3 (1.28)	84.0 (2.28)	48
	좋다	84.0 (2.24)	72.0 (1.75)	89.8 (3.08)	36.6
종교	없음	76.3 (1.71)	59.6 (1.26)	81.7 (2.26)	43.4
	있음	78.6 (1.97)	64.2 (1.43)	86.4 (2.69)	56.6
거주지역	대도시	76.6 (1.82)	62.8 (1.38)	84.3 (2.46)	41.3
	중소도시	79.1 (1.81)	61.4 (1.29)	84.9 (2.45)	41
	농어촌	75.9 (2.03)	62.1 (1.43)	82.7 (2.67)	17.7
가구 균등화 소득 5분위	1분위	65.9 (1.48)	49.4 (0.93)	72.7 (1.93)	13.9
	2분위	74.8 (1.71)	62.9 (1.22)	83.3 (2.27)	19.8
	3분위	79.3 (1.79)	62.6 (1.31)	85.3 (2.57)	20.7
	4분위	84.6 (2.12)	65.3 (1.6)	89.1 (2.81)	21.7
	5분위	82.7 (2.16)	69.9 (1.68)	90.6 (2.88)	23.9

주: 1) 다음 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있는 비율이며, ()는 해당 사람 유무와 관련 없이 전체 응답자의 상황별 도움 요청 가능한 사람의 평균수를 의미함.

2) A, B, C 상황에서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다음으로, 사회관계망 특성별 후기 중년의 불안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표 6-11〉과 [그림 6-3]과 같다. 대체로 사회관계망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 불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1〉 사회관계망 유무별 불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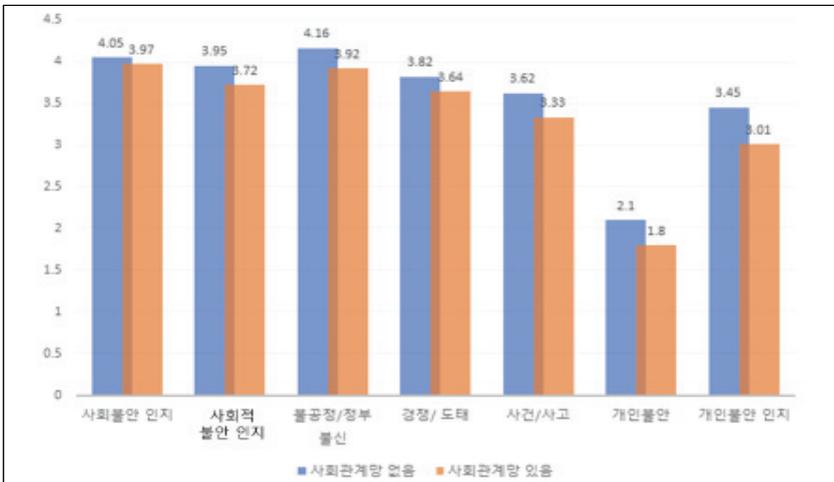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개인 불안	개인 불안 인지
		사회적 불안 인식	불공정/정부 불신	경쟁/도태	사건/사고			
사회관계망 ¹⁾	없음	4.05	3.95	4.16	3.82	3.62	2.10	3.45
	있음	3.97	3.72	3.92	3.64	3.33	1.80	3.01
몸 아파 집안일 부탁할 사람(A)	없음	4.07	3.91	4.11	3.81	3.53	2.02	3.36
	있음	4.01	3.77	3.97	3.69	3.38	1.85	3.09
큰돈 빌릴 수 있는 사람(B)	없음	4.08	3.90	4.10	3.81	3.51	1.99	3.33
	있음	3.98	3.75	3.94	3.66	3.35	1.82	3.05
낙심·우울 시 이야기 상대(C)	없음	4.06	3.94	4.14	3.84	3.58	2.09	3.45
	있음	4.01	3.78	3.98	3.69	3.38	1.85	3.10

주: 1) A, B, C 상황에서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유무로 계산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6-3〕 사회관계망 유무별 불안 수준

(단위: 점)



주: 몸이 아플 때 집안일 부탁할 사람,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낙심·우울 시 이야기 상대가 있는 경우 사회관계망 있음으로 계산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후기중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별 사회관계망이 있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6-12>와 같다. 사회적 불안 인식,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 경쟁/도태 불안, 사건/사고 불안 수준이 '상'인 집단은 낙심·우울 시 이야기 상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 사회적 불안 인식,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 경쟁/도태 불안, 사건/사고 불안 수준이 '하'인 집단은 큰 돈 빌릴 수 있는 사람이나 다른 유형의 사회적 관계망보다 높았다.

<표 6-12> 사회관계망이 있는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 상중하 수준

(단위: %)

구분	사회적 불안 인식			불공정/정부 불신			경쟁/도태			사건/사고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사회관계망 ¹⁾	28.4	62.9	8.8	44.3	47.1	8.6	19.8	65.9	14.3	10.1	52.8	37.1
몸 아파 집안일 부탁할 사람(A)	31.7	60.9	7.4	47.7	44.8	7.5	22.7	64.8	12.5	11.5	54.0	34.5
큰돈 빌릴 수 있는 사람(B)	30.0	61.8	8.2	46.0	45.8	8.2	21.1	65.5	13.3	10.6	53.7	35.6
낙심·우울 시 이야기 상대(C)	32.1	60.8	7.1	48.1	44.7	7.2	23.2	64.7	12.1	11.6	54.2	34.2

주: 1) A, B, C 상황에서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유무로 계산함.

2) 사회 불안 수준은 1~5점 척도에서 3.0점 미만은 '하', 3~4점 미만 '중', 4점 이상은 '상'으로 분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제4절 사회적 불안에 대한 사회관계의 영향 분석

1. 기초통계

이번 절에서 활용되는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아래 <표 6-13>과 같다. 사회참여의 세부 종류인, 정치·사회모임, 종교모임, 친목모임, 그리고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은 최소 1점에서 최대 4점이

며, 친목모임의 평균은 2.42로 가장 높고, 정치·사회모임은 1.38점으로 가장 낮았다. 사회관계망의 경우, 사회관계망 유무는 최소 0, 그리고 최대 1이며, 평균은 0.53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망 크기는 최소 0명, 최대 70명이고, 평균은 1.90명이었다. 자아존중감은 최소 1점, 최대 4점이고, 평균은 2.94였다.

〈표 6-13〉 기초통계

구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사회 참여	정치·사회모임	1	4	1.38	0.73
	종교모임	1	4	1.73	1.00
	친목모임	1	4	2.42	1.02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	1	4	1.53	0.84
사회 관계망	사회관계망 유무	0	1	0.53	0.50
	사회관계망 크기	0	70	1.90	2.08
자아존중감		1	4	2.94	0.4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가. 후기 중년 전 집단

후기 중년의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6-14〉와 같다. 모형 1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은 사회 불안 인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성별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성에게서 사회 불안 인지가 더 높았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이 좋은 집단보다 사회 불안 인지가 더 높았다. 소득분위의 경우, 소득 1분위가 5분위 집단보다 사회 불안 인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2의 경우, 종교모임의 참여도가 적을수록,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불안 인식은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주관적 건강상태와 소득 5분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분위의 경우, 3분위가 1분위보다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았다.

모형 3의 경우, 종교모임이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과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즉 종교모임 참여가 저조할수록,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과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 역시 앞선 모형들과 마찬가지로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주관적 건강상태와 소득분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불공정/정부 불신이 더 높았다. 또한, 소득 3분위가 소득 1분위보다 불공정/정부 불신이 더 높았다.

모형 4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은, 경쟁/도태 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소득분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이 경쟁/도태 불안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2분위와 3분위가 소득 1분위보다 경쟁/도태 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5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사건/사고 불안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제변수 중 여성이 사건/사고 불안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이 좋은 집단보다 사건/사고 불안 수준이 더 높았다.

정리하자면,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불안에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 중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소득분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공통점이 있었다.

<표 6-14> 후기 중년의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구분	사회 불안 인지 (모형 1)		사회 불안							
	사회적 불안 인식 (모형 2)		불공정/장부 불신 (모형 3)		경쟁/도태 (모형 4)		사건/사고 (모형 5)			
	B	β	B	β	B	β	B	β		
상수	3.977***		4.211***		4.254***		4.200***		4.109***	
사회 참여	정치·사회모임	.098	.067	.042	.079	.042	.048	.029	.068	.032
	종교모임	.039	.020	-.057*	-.079*	-.057	-.046	-.038	-.018	-.012
	친목모임	7.648E-05	.000	-.023	-.022	-.018	-.007	-.007	-.055	-.040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	-.006	-.003	.008	-.016	-.011	.036	.028	.026	.016
인구 사회학적 요인	자이론·중감	-.095*	-.061	-.143***	-.108***	-.098	-.164***	-.167	-.203***	-.163
	성별(ref = 남성)	.176***	.107	.010	-.011	-.009	-.009	-.009	.098**	.074
	교육수준	.136	.069	.012	.097	.069	-.053	-.043	-.110	-.069
	(ref=중졸 이하)	.211	.110	.069	.162	.117	-.018	-.015	-.037	-.023
	주관적 건강상태	-.086	-.052	-.091**	-.113**	-.095	-.070*	-.067	-.069	-.052
	(ref=나쁨)	-.194**	-.113	-.154***	-.152***	-.123	-.136***	-.125	-.194***	-.140
	2분위	.061	.030	.048	.062	.041	.087*	.066	-.055	-.033
	3분위	.014	.007	.086*	.110*	.075	.088*	.068	.016	.010
	4분위	-.060	-.030	.000	.025	.017	.010	.008	-.087	-.054
	5분위	-.141*	-.073	-.054	-.034	-.024	-.062	-.050	-.098	-.063
F(p)	4.927***		8.766***		5.051***		8.934***		9.576***	
R2(수정된 R2)		.036(.028)		.062(.055)		.037(.029)		.063(.056)		.067(.060)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나. 45~54세 집단

45~54세 집단의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6-15>와 같다. 모형 1의 경우, 통제변수 중 성별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사회 불안 인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여성이 사회 불안 인지 수준이 더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나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사회 불안 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의 경우, 사회참여 중 종교모임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종교모임 참여가 적을수록,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낮은 자아존중감 역시 사회적 불안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이 상대적으로 불공정/불신 불안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3의 경우, 종교모임 참여가 적을수록, 불공정/정부 불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자아존중감 역시, 불공정/정부 불신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소득분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이 불공정/정부 불신이 더 높았다. 소득 2분위 집단이 1분위 집단보다 불공정/정부 불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4의 경우, 종교모임 참여가 저조할수록, 경쟁/도태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낮은 자아존중감이 경쟁/도태 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소득분위가 경쟁/도태 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이, 그리고 소득 1분위 집단이 5분위 집단보다 경쟁/도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5의 경우, 사회참여 중, 친목모임 참여가 낮을수록,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 참여가 활발할수록, 사건/사고 불안은 증가하였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사건/사고 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소득분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사건/사고 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이 사건/사고 불안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소득 1분위 집단이 소득 3, 4, 5분위 집단보다 사건/사고 불안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리하자면, 자아존중감은 대체로 사회적 불안에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변수 중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공통점이 있었다.

〈표 6-15〉 45~54세 집단의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만에 미치는 영향

구분	사회 불안 인지 (모형 1)		사회적 불안 인식 (모형 2)						불공정/장부 불신 (모형 3)						경쟁/도태 (모형 4)						사건/사고 (모형 5)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상수	4.377***		4.592***		4.720***		4.586***		4.249***													
사회 참여	정치·사회보임	.053	.020	.028	.016	.022	.011	.003	.001	.087	.038											
	종교모임	-.050	-.025	-.095**	-.073	-.133***	-.088	-.069*	-.050	-.040	-.022											
	친목모임	.017	.010	-.024	-.023	-.012	-.010	-.004	-.004	-.090**	-.065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	.023	.011	.009	.006	-.018	-.012	.005	.004	.089*	.048											
인구 사회학적 요인	자이즌증감	-.066	-.047	-.152***	-.171	-.113***	-.109	-.183***	-.195	-.207***	-.171											
	성별(ref = 남성)	.201***	.127	.067**	.066	.024	.020	.079**	.074	.163***	.118											
	교육수준	-.153	-.082	-.178	-.150	-.180	-.131	-.173	-.139	-.182	-.112											
	(ref=중졸 이하)	-.062	-.034	-.077	-.066	-.074	-.055	-.109	-.088	-.032	-.020											
	주관적 건강상태	-.176***	-.111	-.154***	-.152	-.161***	-.138	-.136***	-.128	-.167***	-.121											
	(ref=나쁨)	-.248***	-.143	-.202***	-.183	-.182***	-.142	-.192***	-.165	-.278***	-.185											
	2분위	.050	.026	.064	.052	.092*	.065	.061	.047	-.008	-.005											
	3분위	-.006	-.003	.011	.010	.051	.037	.018	.015	-.109*	-.067											
	4분위	-.100	-.050	-.029	-.023	.026	.018	-.055	-.041	-.133*	-.077											
	5분위	-.127	-.060	-.078	-.058	-.041	-.026	-.093*	-.066	-.153***	-.084											
F(p)	5.469***		12.861***		7.300***		13.282***		14.454***													
R2(수정된 R2)	.041(.033)		.090(.083)		.053(.046)		.093(.086)		.100(.093)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다. 55~64세 집단

55~64세 집단의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6-16>과 같다. 모형 1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은, 사회 불안 인지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변수로는, 성별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이 사회 불안 인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2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불안 인식을 높였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이 사회적 불안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의 경우, 소득 1분위가 소득 5분위보다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3의 경우, 역시 낮은 자아존중감이, 불공정/정부 불신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제 변수 중에서는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소득분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에서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분위의 경우, 소득 1분위가 소득 5분위보다 불공정/정부 불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경쟁/도태 불안과 부적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은 경쟁/도태 불안 수준이 높았다.

모형 5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이 사건/사고 불안 수준을 증가시켰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이 좋은 집단보다 사건/사고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의 경우, 소득 1분위가 소득 5분위보다

사건/사고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해보면,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 중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공통점이 있었다.

〈표 6-16〉 55~64세 집단의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만에 미치는 영향

구분	사회 불안 인지 (모형 1)		사회적 불안 인식 (모형 2)		불공정/정부 불신 (모형 3)		경쟁/도태 (모형 4)		사건/사고 (모형 5)	
	B	β	B	β	B	β	B	β	B	β
	사회 불안		사회적 불안		불공정/정부 불신		경쟁/도태		사건/사고	
상수	4.334***		4.335***		4.473***		4.324***		3.975***	
사회 참여	정치·사회모임	.052	.019	.012	.040	.020	-0.005	-0.003	.004	.002
	종교모임	.048	.025	-0.014	-0.021	-0.015	-0.012	-0.010	-0.002	-0.001
	친목모임	-0.011	-0.006	-0.041	-0.035	-0.028	-0.050	-0.045	-0.041	-0.030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	-0.032	-0.014	.020	.003	.002	.036	.024	.039	.021
	자이즌증강	-0.143***	-0.094	-0.135***	-0.113***	-0.105	-0.157***	-0.165	-0.159***	-0.135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ref = 남성)	.179***	.105	-0.041	-0.073*	-0.060	-0.042	-0.039	.050	.037
	교육수준	.020	.010	.007	.035	.026	-0.031	-0.026	-0.004	-0.003
	(ref=중졸 이하)	.093	.050	.028	.055	.042	-0.028	-0.024	.053	.037
	대졸 이상									
	주관적 건강상태	-0.140*	-0.081	-0.098**	-0.126**	-0.103	-0.082*	-0.076	-0.049	-0.037
	(ref=나쁨)									
	좋다	-0.181**	-0.098	-0.165***	-0.170***	-0.130	-0.148***	-0.128	-0.185***	-0.130
	2분위	.103	.047	.009	.005	.003	.070	.051	-0.087	-0.052
	3분위	-0.059	-0.026	.024	.026	.016	.056	.039	-0.040	-0.022
	4분위	-0.047	-0.022	-0.044	-0.055	-0.036	.003	.002	-0.096	-0.058
5분위	-0.090	-0.045	-0.089*	-0.092*	-0.064	-0.067	-0.052	-0.120*	-0.077	
F(p)	5.012***		8.694***		5.477***		8.885***		6.968***	
R2(수정된 R2)	.039(.031)		.066(.058)		.042(.035)		.067(.059)		.053(.046)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3.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

후기중년의 사회참여가 단문으로 측정한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17>과 같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67.816$, $p<.001$), 2단계($F=3.136$, $p<.05$), 3단계($F=5.877$,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7.1%, 2단계에서 0.4%, 3단계에서 0.8%로 나타났다.

유의성 검증 결과, 1단계에서는 종교모임과 친목모임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모임, 친목모임 참여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단계에서는 친목모임이 단문으로 측정한 사회적 불안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목모임 참여가 저조할수록, 단문으로 측정한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단문으로 측정한 사회적 불안 인식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단문으로 측정한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친목모임 참여가 단문으로 측정한 사회적 불안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에서보다 좀 더 낮게 나타났다($\beta=-.060 \rightarrow -.045$). 정리하자면, 친목모임 참여가 단문으로 측정한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아존중감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7〉 사회참여와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인식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검증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상수		2.646***	.	4.118***	.	4.494***	.
사회 참여	정치·사회모임	-.016	-.028	.014	.012	.011	.010
	종교모임	.058***	.140	.003	.004	.011	.014
	친목모임	.085***	.211	-.049**	-.060	-.037*	-.045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	.004	.009	-.002	-.002	-.002	-.002
매개 변수	자아존중감					-.142***	-.071
F(p)		67.816***		3.136*		5.877***	
R2(수정된 R2)		.071(.070)		.004(.002)		.008(.007)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앞에서 친목모임 참여가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인식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로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친목모임 참여와 사회 불안 인식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6-18〉 참조).

〈표 6-18〉 소벨 테스트를 통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Z	p
친목모임 → 자아 존중감 →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인식	-3.848***	<.001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다음으로,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19〉와 같다. 그 결과, 회귀 모형은 1단계($F=42.6316$, $p < .001$), 2단계($F=11.473$, $p < .001$), 3단계

($F=35.589$,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4.6%, 2단계에서 1.3%, 3단계에서 4.7%로 나타났다.

유의성 검증 결과, 1단계에서는 종교모임과 친목모임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모임과 친목모임 참여가 활발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단계에서도 종교모임과 친목모임이 사회적 불안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모임과 친목모임 참여가 저조할수록,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불안 인식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목모임 참여가 사회적 불안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에서보다 좀 더 낮게 나타났다($\beta=-.088 \rightarrow -.053$). 그리고 종교모임 참여가 사회적 불안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역시 2단계보다 작게 나타났다($\beta=-.081 \rightarrow -.051$). 즉, 친목모임과 종교모임 참여가 사회적 불안 인식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9〉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 인식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상수		2.459***		4.017***		4.616***	
사회 참여	정치·사회모임	-.022	-.012	.016	.010	.013	.008
	종교모임	.119***	.087	-.081***	-.067	-.051*	-.042
	친목모임	.206***	.181	-.088***	-.087	-.053**	-.052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	.033	.022	.003	.002	.011	.008
매개 변수	자아존중감					-.236***	-.192
F(p)		42.631***		11.473***		35.589***	
R2(수정된 R2)		.046(.045)		.013(.012)		.047(.046)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앞선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친목모임 참여와 사회적 불안 인식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20>과 같이 친목모임 참여 및 종교모임 참여와 사회적 불안 인식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6-20> 소벨 테스트를 통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Z	p
친목모임 → 자아 존중감 → 사회적 불안 인식	-7.803***	<.001
종교모임 참여 → 자아 존중감 → 사회적 불안 인식	-4.700***	<.001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4. 사회관계 조절효과 분석

가. 사회관계 유무

사회참여가 사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사회관계 유무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21>과 같다.

모형 1의 경우, 후기 중년의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 인지 관계에서 사회참여와 사회관계의 사회작용항, 사회관계를 투입한 결과, 사회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친목모임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친목모임 참여가 저조할수록 사회 불안 인지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관계는 사회 불안 인지 수준에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형 2의 경우, 종교모임과 친목모임은 사회적 불안 인식에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즉, 종교모임과 친목모임 참여가 저조할수록, 사회적 불안 인식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사회관계만이 부적으로 유의하나, 사회참여와 사회관계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3의 경우, 정치·사회모임과 종교모임이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정치·사회모임 참여가 높을수록,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은 낮아졌고, 종교모임 참여가 저조할수록,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관계는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에 통계적으로 부적으로 유의하나, 사회참여와 사회관계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모형 4의 경우, 종교모임과 친목모임은 경쟁/도태 불안의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즉, 종교모임과 친목모임 참여가 저조할수록, 경쟁/도태 불안은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사회관계는 경쟁/도태 불안과 부적 관계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치·사회모임과 사회관계의 상호작용항은 경쟁/도태 불안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정치·사회모임 참여와 사회관계 상호작용은 경쟁/도태 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5의 경우, 사회관계는 앞선 모형들과 마찬가지로 사건/사고 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 변수 중에서는, 친목모임과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친목모임 참여가 저조할수록,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이 활발할수록, 사건/사고 불안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사회관계와 사회참여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6-21〉 후기 중년의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 간의 사회관계 조절효과: 사회관계(망) 유무

	사회 불안 인지 (모형 1)		사회 불안								
	사회적 불안 인식 (모형 2)		불공정/정부 불안 (모형 3)		경쟁/도태 (모형 4)		사건/사고 (모형 5)				
	B	β	B	β	B	β	B	β			
상수	4.021 ^{****}		3.805 ^{****}		4.004 ^{****}		3.714 ^{****}		3.416 ^{****}		
사회 참여	정치·사회모임	.008	.010	.016	.031 ^{**}	.052	-.002	-.003	.005	.007	
	종교모임	.005	.006	-.032 ^{****}	-.063	-.042 ^{****}	-.071	-.024 ^{**}	-.045	-.025	
	친목모임	-.042 ^{**}	-.051	-.032 ^{****}	-.063	-.016	-.027	-.039 ^{****}	-.073	-.093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	.001	.001	.005	.009	-.015	-.025	.013	.024	.043 ^{**}	
조절 효과	사회관계	-.043 ^{**}	-.052	-.077 ^{****}	-.151	-.079 ^{****}	-.132	-.072 ^{****}	-.135	-.079 ^{****}	
	정치·사회모임×사회관계	.026	.031	.015	.029	.012	.021	.038	.010	.014	
	종교모임×사회관계	.014	.017	-.005	-.010	-.006	-.010	-.007	-.012	-.003	
	친목모임×사회관계	-.008	-.010	.000	.000	-.002	-.003	.007	.012	-.006	
F(p)	주민참여×사회관계	.003	.003	-.007	-.013	-.006	-.010	.002	.004	-.024	
		2.987 ^{**}		15.085 ^{****}		12.003 ^{****}		13.069 ^{****}		10.865 ^{****}	
R2(수정된 R2)		.007(.005)		.037(.034)		.029(.027)		.032(.029)		.027(.024)	

주: *p<0.05, **p<0.01, ***p<0.001, ****p<0.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나. 사회관계 크기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사회관계 크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모형 6의 경우, 친목모임만 사회 불안 인지에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친목모임이 저조할수록, 사회 불안 인지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7의 경우, 종교모임과 친목모임이 사회적 불안 인식에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종교모임 참여가 저조할수록, 친목모임 참여가 저조할수록,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사회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사회참여와 사회관계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사회관계의 크기가 클수록,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8의 경우, 정치·사회모임과 종교모임이 불공정/정부 불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사회모임 참여가 활발할수록, 종교모임 참여가 저조할수록, 불공정/정부 불신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관계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즉 사회관계의 크기가 클수록, 불공정/정부 불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9의 경우, 종교모임과 친목모임이 경쟁/도태 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사회관계 크기가 클수록, 경쟁/도태 불안을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정치·사회모임과 사회관계 상호작용항의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모형 10의 경우, 친목모임이 사건/사고 불안에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목모임은 사건/사고 불안과 부적 관계를,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은 정적 관계로 나타났다. 즉, 친목모임 참여가 활발할수록, 사건/사고 불안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의 참여가 활발할수록, 사건/사고 불안은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사회관계는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즉, 사회관계 크기가 커질수록, 사건/사고 불안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참여와 사회관계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6-22〉 후기 중년의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 간의 사회관계 조절효과: 사회관계 크기

	사회 불안 인지 (모형 6)		사회 불안						사건/사고 (모형 10)	
	사회적 불안 인식 (모형 7)		불공정/정부 불신 (모형 8)		경쟁/도태 (모형 9)					
	B	β	B	β	B	β	B	β	B	β
상수	54.021***		3.804***		4.003***		3.713***		3.415***	
사회 참여	정치·사회모임	.009	.016	.032	.032***	.053	-.002	-.003	.005	.007
	종교모임	.004	-.031***	-.061	-.042***	-.070	-.023*	-.042	-.016	-.023
	친목모임	-.046**	-.035***	-.068	-.021	-.035	-.040***	-.075	-.064***	-.094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	-.001	.002	.004	-.018	-.030	.011	.021	.041**	.061
조절 효과	사회관계 크기	-.016	-.020	-.058***	-.114	-.050***	-.063***	-.118	-.068***	-.101
	정치·사회모임×사회관계 크기	.025	.031	.014	.028	.020	.020*	.038	.009	.014
	종교모임×사회관계 크기	.015	.018	-.004	-.008	-.005	-.008	-.005	-.009	-.001
	친목모임×사회관계 크기	-.008	-.009	.001	.003	-.001	-.001	.008	.015	-.004
주민참여×사회관계 크기	.004	.005	-.004	-.007	-.003	-.005	.005	.009	-.021	-.030
F(p)	2.117*		11.053***		7.908***		11.331***		9.479***	
R2(수정된 R2)	.005(.003)		.027(.025)		.020(.017)		.028(.025)		.023(.021)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제5절 소결

이번 장에서는 후기 중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대처하는 방식과 불안 대처방식별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참여와 사회관계에 대해 주목하였는데, 여기서 사회참여는 정치·사회모임, 종교모임, 친목모임, 그리고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을 말하고, 사회관계망은 관계망 유무, 유형별 크기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적 불안에 대한 사회관계의 영향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후기 중년은 전문적 도움(의료적 도움, 심리상담)과 여가·문화·종교활동을 통해 불안을 대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불안 대처방식별 사회적 불안 상중하 수준의 경우, 사회 불안이 '상'인 집단은 주로 수면, TV 시청 또는 PC·스마트폰 이용을 통해 불안에 대처하는 경향이 있었고, '하'인 집단은 여가·문화·종교 활동을 통해 불안에 대처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적 불안을 완화시키는 사회관계 특성과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후기 중년은 친목모임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종교모임,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 그리고 정치·사회모임 순으로 참여하였다. 대체로 단체·모임활동에 참여한 자가 미참여한 자에 비해 사회적 불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관계망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 불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사회관계망 유형별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보면,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 수준이 '상'인 집단은 낙심·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가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 결과는 불공정/정부 불신 영역의 불안 인식은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 불안을 인식하는 집단은 사회경제적으로 하위 집단에 한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사회관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후기 중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불안은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한편,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인식과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친목모임 참여와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 인식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검증되었다. 또한,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친목모임 참여와 종교모임 참여는 사회적 불안 인식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참여가 사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 사회관계(망) 유무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치·사회모임과 사회관계의 상호작용항만 경쟁/도태 불안과 양의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정치·사회모임 참여와 사회관계 상호작용은 경쟁/도태 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 사회관계 크기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치·사회모임과 사회관계 상호작용항 그리고 경쟁/도태 불안 간의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도출한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방안과 더불어, 친목모임과 사회관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 코로나19 이후 사회서비스에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후기 중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사회참여와 사회관계망 구축 및 확대 등과 관련된 사업들을 상당수 개발 및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유형은 단지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등의 이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이러한 이점을 넘어 개인이 경험하는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불안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몸이 아플 때 돌봐 줄 사람을 제공한다든지, 우울

하거나 낙심할 때 말벗을 제공하는 등의 사회서비스의 개발의 중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또 다른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하겠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7장

결론

제1절 주요 결과와 시사점

제2절 정책 과제



제 7 장 결론

제1절 주요 결과와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

사회적 불안 인식은 단순히 개인의 경험이나 문제로 치환되기 어려운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사회적 불안 인식을 초래하는 요인은 다분히 사회경제적인 것이고, 사회적 불안 인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고조될 때 사회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치적 태도의 왜곡, 극단적인 인식과 태도, 사회적 통합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우려되는 내용은 다양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기구들도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불안, 주관적 사회적 불안 인식, 주관적인 고용 불안 인식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과 요인에 대하여 규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 인식을 귀납적 방식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간주하고, 설문조사와 조사자료의 분석을 추진하여왔다. 2022년에는 45~64세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을 조사하고 계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45~64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이 높았다. 척도화된 불안 인지의 수준은 평균 3.8로 '불안하다'에 가까웠다. 추상적인 질문,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단문에 대한 답은

평균 4점이 넘었다. 그리고 ‘불안하다’에 4점 이상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38.2%였다. 그리고 연령을 구분하여 보자면 45~54세 집단의 불안 인식 수준이 55~64세 집단의 불안 인식 수준보다 높았다.

불안의 영역별로 보면,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이 가장 높아 평균 4.00점이었고 45~54세 집단의 불안 인식 수준은 4.03점이었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문항에는 불안 인식 수준이 4.44점, ‘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고 연출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점에는 불안 인식 수준이 평균 4.19점이나 되었다. 앞의 불안 영역별 불안 인식의 수준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 인식을 해석하여 보면 ‘빈부격차가 심각한데 법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쟁이 심화될 때 우리 사회구성원은 노력만으로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업과 주거는 경쟁에서 가장 첨예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이 영역에서의 도태는 불안을 높이는 데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정서적 불안은 불안의 영역 중 ‘경쟁/도태 불안’과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고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과 관련한 불안이 개인적 불안을 높인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한편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회 발전에 이러한 사회적 불안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적 불안 인식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적 불안은 대개 자신이 직접 및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사건들로 유발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사회 불안이 반영되어 개인 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사회적 불안 인식과 개인 심

리·불안의 관계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차원에서의 심리·불안 유형과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봤다. 약 59%의 대상자가 개인 불안에 있어 안정형 집단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류에서 주목할 점은 소수이긴 하나 약 3.1%가 자존감 및 회복성 등 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은 특성과 함께, 높은 개인 불안 수준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약 32%가 개인 불안 수준과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모두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 수준보다 높은(불안정한) 경계선상에 위치한 특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인 심리·불안 유형과 사회적 불안 인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개인의 심리·불안이 높은 사람이 사회적 불안 인식이 안정적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고 개인 수준에서의 심리·불안 상태가 안정적인 사람들도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관해서는 불안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둘째, 사회적 사건과 차별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개인 심리·불안 수준이 부정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 중 주목할 점은 불안 영역 중 경쟁/도태 불안과 관련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개인 불안 수준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 재산이 낮고, 일한 경험이 없으며, 가구원 수가 많고,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관계망 크기가 작고, 건강이 나쁘다는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들은 본인이 가진 불안 인식의 수준이 개인 삶/사회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특정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전 과정에서 사회적 기피 현상과 불안,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기 이해가 필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불안 인식과 개인 심리·정서적

불안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불안의 근본 원인이 본인 내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사건의 경험, 박탈 및 차별의 경험 등 사회 환경적 요소에 있으면 개인 차원의 대응만으로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건강을 살피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 변화와 개선,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 및 개선이 중요하게 작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귀속지위와 획득지위로 구분한 사회경제적 지위(20세 이전 소득계층, 현시점 소득계층,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사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생애 박탈 경험, 그리고 생애과정 관점에서 중장년기의 이중과업 특성을 노후 준비 여부와 가족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애 경험, 이중과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20세 이전 시점에 소득하위계층인 경우 사회경제적 사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고, 가족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과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집단에 속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불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소득이 하위계층이고,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누적 횟수가 많은 경우, 그리고 이중과업으로 인한 부담 수준이 높은 집단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는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이, 이들이 위치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나아가 후기 중년기에 경험하는 생애 과업으로 인한 부담으로 이어져 사회적 불안의 격차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6장에서는 후기 중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대처하는 방식과 양상, 그리고 사회관계와 사회적 불안에 관한 사회관

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후기 중년은 전문적 도움(의료적 도움, 심리상담)과 여가·문화·종교 활동 등을 통해 불안을 대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참여 중에서, 후기 중년은 친목모임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종교모임, 주민참여나 활동·학부모 모임, 그리고 정치·사회모임 순으로 참여하였다. 대체로 단체·모임활동에 참여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자에 비해 사회적 불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관계망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 불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사회관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후기 중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불안은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 자아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검증되었다. 사회참여가 사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사회관계(망) 유무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치·사회모임과 사회관계의 상호작용항만 '경쟁/도태 불안'과 양의 관계를 보였다.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 사회관계 크기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치·사회모임과 사회관계 상호작용항, 그리고 경쟁/도태 불안 간의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2. 정책적 시사점

앞의 주요 분석 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근로연령층의 불안 인식 수준이 낮지 않았다. 후기 중년 중에서도 45~54세의 불안 인식이 55~64세의 불안 인식보다 오히려 높았다. 근로연령층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이해, 사회적 불안 인식과 관련된 요인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적 불안 인식의 영역 중 ‘불공정/정부 불신 불안’ 인식이 매우 높다. 불안 인식을 불안 영역별로 종합하여 해석해보면,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법 등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낮고, 결국 개인의 노력만으로 각종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인의 불안은 사회적 불안의 영역 중 ‘경쟁/도태 불안’과 관련이 높았다. 즉 사회정책을 비롯한 정부 정책은 공정성 회복, 정부 신뢰 회복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기 위하여 불평등의 심화에 대응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인 노력으로 개인의 각자도생이 초래하는 불안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인의 정서적 불안은 사회적 불안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사건의 경험, 박탈 및 차별의 경험 등 사회 환경적 요소가 개인의 정서적 불안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의 내면적 측면만에 한정하여 정책을 펴기보다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넷째, 후기 중년의 경우 주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건의 경험과 더불어 돌봄 부담과 노후준비가 사회적 불안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사회서비스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돌봄 부담과 노후준비의 부족은 더 큰 불안의 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사회정책은 자녀 및 고령의 부모에 대한 돌봄 부담을 낮추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이러한 부담이 낮아진 상태에서도 남게 되는 노후보장을 목표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확충 없이는 노후보장의 충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이며, 높은 경제력을 확보한 중년 또는 노년의 사회구성원도 돌봄으로 초래되는 경제적, 사회적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향후 노후소득보장은 돌봄이나 건강 등의 지출부담을 낮추는 것을 전

제로 제도의 영역들 간의 유기적 관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구성원의 건강한 여가활동,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의 강화도 필요하다.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은 집단은 불안할 때 ‘TV 시청 또는 PC·스마트폰 이용’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보였고, 사회적 불안 인식이 낮은 집단은 ‘여가·문화·종교 활동’을 통해 불안에 대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양호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사회적 불안 인식이 낮았다. 더불어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불안을 낮추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개인의 여가, 사회활동과 사회적 불안 인식, 개인의 불안이 관계가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후기 중년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넓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정치·사회 모임의 참여는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하여 ‘경쟁/도태 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여러 지점에서 정치·사회적 모임은 사회적 문제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분석 결과들이 있었다. 정치·사회적 모임이 개인의 불안 인식, 사회적 불안 인식을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모임이 사회적 문제인식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 참여로 이어지는 경로가 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건강한 정치 및 사회적 참여기회를 넓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념적 구분을 두는 것은 아니고, 각 참여자의 이념적 지향이 다르다 하여도 건강한 참여와 활동을 지켜낼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활동 문화를 조성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정책 과제

사회적 불안 인식을 낮추고 사회구성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크게 아래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사회정책의 확충 방향 재설정

둘째, 사회정책의 기획, 운영 방식 개혁

셋째, 관련 사회정책의 강화

사회구성원의 불안 인식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비단 특정 사회정책을 개발, 강화하는 노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정책의 운영방식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병행 추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물론 정치권을 포괄하여 사회 주요 주체들의 결정과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며, 사회구성원의 활동에서 공정성이 확인되는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사회구성원의 불안 인식이 실제 불안 요인보다 크다면, 그 이유는 불안 인식을 조장하는 정책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차정책설정의 방향, 운영 방식, 그리고 정책 자체의 내용 변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정책내용 개선안은 사회 정책적 노력에 초점을 맞춰 제안하고자 한다.

1. 사회정책의 확충 방향 재설정: 보편적 제도의 보강

우리나라 사회정책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도모할 단계에 있다.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경제성장 우선·완전고용·남성가장 중심의 가계 운영을 전제로 하는 사회정책의 효력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고

용불안이 심화되었고, 고령화·저출산의 환경에서 가구규모가 작아지고 있으며,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미래의 우리나라는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의 환경과 다른, 최근 경험하는 조건들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특징은 극빈층을 정책 대상으로 한정하는 선별주의적 정책, 낮은 급여수준의 수많은 지원제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기준의 제도로 요약된다. 국민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기 어렵고, 지원받더라도 해당 급여가 당연한 위험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을 반복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과거와 달리 가족과 친지가 사회적 위험을 막아줄 수 없고, 국가도 아직 사회적 위험을 막아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사회구성원은 당연히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미래의 사회정책은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쉬운 제도,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이 확보된 보편적 제도로서의 측면이 크게 보장되어야 한다. 보편적 지원은 제도 운영과 제도 신청의 비용을 낮출 뿐 아니라 제도가 주는 급여 이상으로 구성원의 안정성을 높인다. Behrendt & Nguyen은 전 인구를 포괄하는 강력한 사회적 보호제도층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Behrendt & Nguyen, 2018, p. 2).

더불어 사회보장제도를 단순화하면서 급여의 충분성과 대상자 포괄성을 높이는 실효적 제도로 구성할 필요성이 크다. 수많은 제도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고 제도 합리화 또는 체계화를 도모할 때이다. 급여가 분절화 되면 정보비용이 높아져서 수급률은 더 낮아지고, 결국 정부 지원으로부터 누락될 위험이 커진다. 제도의 구성을 단순화하고 각 제도의 급여는 높여서 제도 수급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공적 지원이 필요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공적 지원의 대상인지를 확신할 수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74%로 나타나, 우리나라는 이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다. 참고로, 조사한 회원국의 평균 응답률은 57.6%였다(OECD, 2021, p. 39). 동 조사에서는 필요할 때 공적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는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지 않았다(OECD, 2021, p. 38). 국민의 이러한 불안은 사회정책을 확충하더라도 확충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선별적 제도는 극빈층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층 바로 위의 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집단에 대한 예방적, 준보편적 제도를 보강하여야 한다. Joubert(2021)는 World Bank의 블로그를 통하여 '비빈곤 비공식(non-poor informal, NPI)' 부문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집단을 '잃어버린 중간층(missed middle)'이라 칭하고, 그동안 사회보장제도는 빈곤집단과 공식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사회부조와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제도운영 방식이 인구의 상당수인 중하위집단, 즉 비빈곤, 비공식집단을 사회보장제도의 보호 밖에 방치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 집단은 환경에 따라 빈곤화될 위험이 크고, 이 집단의 상황 악화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취약하게 하며, 경제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경고하였다.

2. 사회정책의 기획·운영 방식 개혁: 투명성·정당성 강화와 체계화

사회정책의 기획과 운영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형평성,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회정책의 확충만으로 국민의 정부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불안 인식을 낮추지 못할 수 있다. 사회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 과정보다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사회적 불안 인식을 완화하기 위하여 역할을 하여야 하는 주요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대통령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 중 37.5%가 대통령이 주요 주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이 정치인으로 응답 비율은 21.5%였다. 시민사회, 사회단체라는 응답은 1.4%에 불과하다. 언론이라는 응답도 10%가 되지 않는다. 사회적 불안이 높은 집단일수록 대통령이 주요 주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정부 정책의 기반 조성이나 정부 정책의 변화를 추동하는 힘, 그리고 정부 정책을 견제하는 힘이 정부 밖에 있고,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지배력을 갖는 사회는 안정성을 확보한 사회라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구성원의 다수는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다른 주체들이 잘 보이지 않고, 힘의 균형도 확인되지 않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표 7-1〉 사회적 불안 완화의 주요 주체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대통령	정부	정치인	사법부	기업 및 경제계	언론계	시민, 사회 단체	종교계	국민 개개인	기타	전체
전체	빈도	1,342	600	767	37	47	319	50	19	388	6	3,575
	비중	37.5	16.8	21.5	1.0	1.3	8.9	1.4	0.5	10.9	0.2	100.0
사회적 불안 수준	저	24.3	18.8	22.3	1.0	1.5	13.9	1.5	1.0	15.8	0.0	100.0
	중	34.7	18.0	22.4	1.1	1.5	8.9	1.6	0.5	11.2	0.3	100.0
	고	43.7	14.7	20.0	1.0	1.0	8.3	1.1	0.5	9.7	0.1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정책은 많은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모하면서 기획 및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정책은 시민사회와 국민들, 전문가집단, 언론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의 추동으로 비롯되는 것이 상례이기도 하다. 쉽게 변화하는 정책은 당연히 사회적 안정성을 훼손한다. 논의를 거듭하고 논거를 견고하게 하는 과정에서 정책은 변화하고, 개선되어야 한다.

일선 담당자의 결정을 윗선에서 쉽게 번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고, 정책은 누구든 함부로 쉽게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숙고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시민사회와 사회단체, 종교계, 언론계도 사회적 논의, 변화 추동의 측면에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을 배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정책운영은 체계화된 구조에서 기준과 규칙에 따라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담당자마다, 정치인마다, 또는 정책 대상자마다 달리 운영하거나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일선 복지 현장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민원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제도도 허용되고, 순응적인 민원인에게는 제도 적용을 거부하는 방식은 수정되어야 한다. 사회적 위험에

체계화된 정책과 기준이 대응하는 안정적 환경이 조성되면, 사회적 규칙에 대한 구성원의 수용도가 높아지고, 이러한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3. 관련 사회정책의 강화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과 관련하여 강화가 필요한 정책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심화하는 불평등에 대한 대응
- ② 중년과 청년의 고용안정화 및 중년의 재교육 강화
- ③ 자녀교육과 노인인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 등 지출보전을 위한 서비스 강화
- ④ 고립의 예방과 공동체 강화
- ⑤ 생계형 사고에 대한 대응 보강
- ⑥ 정신보건서비스 강화 및 여가 및 각종 사회활동 지원

사회적 불안 인식의 저변에는 심화되는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다. 적어도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느끼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2021년 OECD 조사에 따르면(OECD, 2021, p. 47), 우리나라는 정부가 소득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세금을 더 걷고 사회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조사된 25개국 중 정부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0위 정도로 높았다. 많은 연구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불평등이 낮으면 사회구성원의 경쟁이나 갈등도 영향을 받는다. 불평등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은 불안 인식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기제라 하겠다. 불

평등은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임금불평등, 재산불평등 등 다양한 측면의 불평등을 고루 살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소득불평등도 지니계수로 대변되는 것만은 아니다. 불평등의 문제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과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모색되어야 한다.

불평등은 노후준비의 수준에서도 이슈가 된다. 노후준비의 부족은 사회적 불안 인식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이다.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가장 대표적이다. 노후에 필요한 지출을 줄여주는 서비스 정책 강화도 대응 제도가 될 것이다. 이 밖에 노후에도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부족한 노후준비로 인한 불안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년은 노인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 경제활동으로부터 안정을 느끼는 것으로 추정된다. 젊은 연령의 집단에서는 자영업 종사가 불안을 높이는 경제활동 형태이지만, 후기 중년에서는 자영업을 노인이 되어도 경제활동을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기 중년 집단의 사회적 불안 인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녀의 경제활동과 경제적 독립은 부모인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자녀의 취업이나 경제적 독립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인 집단은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이 낮다. 즉 청년의 취업, 고용안정은 청년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인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도 영향을 준다. 한편 후기 중년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도태 여부를 판단, 예상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기타 일상생활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을 직면하면서 도태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도태 불안은 사회적 불안 인식 중 개인 불안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후기 중년의 도태위험을 낮추고, 이로써 일자리 유지의 가능

성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은 사회적 불안 인식을 낮추는 데, 그리고 개인의 정서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는 부양 부담이 원인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다. 심지어 가구규모가 크면 오히려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자녀의 교육비가 높고 노인인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고가의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사회정책에서 노인 돌봄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후기 중년의 경제적, 정서적 부담이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담은 극빈층에 한정된 것도 아니다. 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서비스의 질과 충분성에서는 적지 않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보면, 자녀들의 졸업 후 취업전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면 필요 이상으로 과열된 교육비 지출경쟁도 덜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러한 변화 이전에 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교육계의 대안 모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의료비 부담, 주거비 부담은 자녀 및 부모 부양 부담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 부모의 의료비 부담은 주로 후기 중년에 집중되고 자녀의 성장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이 주거와 의료 같은 기초재 성격의 서비스 이용에서 접근성을 확보하고 생활안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 보장은 어쩌면 소득보장에 버금가는, 또는 그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소득보장보다 더 많은 정책적 준비와 협의 과정이 소요되는 서비스보장에 정부의 정성이 더 필요하다. 국민의 필요를 고려한 진지한 서비스 보장의 강화가 절실하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립의 문제가 심각하다. 사회적 불안 인식은 사회적 관계와 관련성을 갖고 있고 사회적 관계가 양호할수

록 불안 인식 수준이 낮다. 고립을 예방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적 불안 인식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임에 분명하다. 고립은 가구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구성원에게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동반하는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조성하여야 하고, 민간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한편 지역사회 단위로 공동체를 강화하는 각종 정책적 기획이 보강되어야 한다. 정책적 슬로건으로서의 공동체 복원, 강화가 아니라, 실제 정치적, 이념적인 활동에서 자유로운 주민의 자율적 공동체를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공동체 강화는 당연히 지역사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지역으로 이양하는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 지방분권 등 지역의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과 지역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 장려, 자생적 공동체에 대한 공공의 관여 방지 등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 복원하여야 한다. 정부가 공동체를 육성하는 방식은 오히려 기존의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이후 자체적인 역량을 훼손하기도 하며, 지역사회에 공공을 배경으로 하는 위계적 집단을 배양하는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더불어 각종 사회정책 수립 및 집행 시 다수의 구성원이 함께 거주, 생활할수록 유리한 정책이 되도록 점검하고, 기준 등을 수정하여야 한다. 적지 않은 제도들은 1인 가구일수록 정책 수급에서 유리하다. 정책이 사회구성원의 고립을 장려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할수록 유리한 정책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혈연관계의 가족으로 한정하는 가구구성을 염두에 둘 필요도 없다. 소규모 집단공동체가 지역공동체라는 더 큰 공동체의 중요 단위가 될 수 있다.

반복되는 생계형 사고는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불안 인식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나도 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찌나?’, ‘정부가 어떤 역할

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힘들 때 도움을 기대할 수 없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확산될 수 있다. 앞의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필요할 때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 않다. 생계형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적지 않은 보강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보강은 생계형 사고의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정부가 이 원인에 대하여 수용하고, 원인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관성적인 ‘사례의 발굴 강화’ 방식은 이미 그 효과가 충분하지 않음이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반복되는 위험을 앞에 두고 정부가 같은 대응을 고수한다면 정부의 입장에 대한 의혹이 생길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부가 원인에 대한 투명한 분석과 정확한 정책 대응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신보건서비스를 확충하여야 한다. 개인의 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 인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서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을 낮추려면 사회적 요인에 대응하는 정부정책, 주요 사회 주체들의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정서적 불안을 낮추는 정신보건서비스의 확충도 병행되어야 한다. 일선 실무자들과의 논의에서, 많은 참여자들은 정부의 정신보건서비스의 부족을 안타까워하였다. 정신보건서비스의 확충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구성원이 쉽게 정신보건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신보건서비스는 사후적인 치료서비스와 예방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신보건서비스 외 건강한 여가활동과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보강하여야 한다. 이미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의 폭을 넓히고 내용의 다양성을 높이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한 여가활동은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적 불안의 심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에는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그 동안의 조사 및 분석을 종합하고, 우리나라 성인의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과 원인을 규명하여 정책과제를 최종 정리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종합적인 정리 연구에서, 우선 2020년, 2021년, 2022년 이루어진 각 연령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나의 자료로 종합하고 이를 분석하되, 조사시점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한계를 면밀하게 살펴, 해석의 왜곡을 방지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안 인식을 전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 또는 연령별로 비교 분석하여 더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연령과 계층 등 다양한 차원의 집단 구분이 사회적 불안 인식의 상이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밝히고, 정책과제의 새로운 면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존의 사회정책 및 관련 정책의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정책 대응의 적절성, 한계 등을 검토하고 정책과제를 좀 더 구체적 수준에서 정리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정책대안의 편향을 극복하고 포괄성을 높이고자 한다.

2023년의 연구 방향을 참고할 때 45~64세 집단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관한 2022년 연구는 후기 중년 집단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적 불안 인식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이 영역별로 상이한데 전 연령에서 공정성과 정부 신뢰에 대한 불안이 낮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불안 인식에 사회경제적 안정성이라는 객관적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사건사고의 경험과 이로 인한 태도의 형성,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관계와 활동이 영향

을 주고 있다는 공통점을 확인시켜주었기 때문이다. 한편 연령집단별 사회적 불안 인식과 관련 요인이 서로 맞물려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경제적인 전반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정책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정책적 노력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가 후기 중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책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후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 인식을 둘러싼 제반 과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고용노동부. (2021). 2021년 6월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
- 곽윤경, 김세진, 황남희, 전지현, 이현주. (2021).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노인의 사회적 불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구혜란, 구서정. (2018). 우울한 청년, 불안한 장년의 나라: 연결망 접근을 통해 본 세대별 마음의 형상. 한국사회학, 53(2), 251-290.
- 권희선, 전귀연. (2020). 중년세대의 성인자녀 지원 부담과 긍정심리자본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9(2), 171-185.
- 김리영. (2013). 시기별 자가로 이동한 임차가구의 생애주기 특성 연구. 국토계획, 48(2), 341-356.
- 김승권, 김유경, 김혜련, 박종서, 손창균, 최영준, ...윤아름. (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임성은. (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도세록, 이진우. (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박세경, 이진우. (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연숙, 허명행. (2021). 중년부부의 갱년기증상 인지, 자기효능감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형.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33(3), 247-258.
- 김연지, 이주희, 이영주. (2018). 중년 후기 성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8(2), 90-97.
- 김예성, 하용용. (2015). 독거노인의 생산적여가 활동 참여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 35(4), 344-374.

- 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 (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경, 이진숙,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경. (2018). 성인자녀 부양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8(6), 79-98.
- 김유경. (2019).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과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71, 74-92.
- 김종남. (2014). 베이비붐 세대 부모의 부양 기대와 에코붐 세대 자녀의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혜미, 문혜진, 장혜림. (2015). 성인기 자아존중감 변화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7(1), 83-107.
- 김현진. (2016. 11. 3). 불안을 통해 진단하는 현대사회, 21세기 유럽을 말한다-불안사회: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가. 대학원신문. <http://gspres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329>에서 인출.
- 노연경, 이현정, 이은수, 홍세희. (2017).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및 가해경험의 변화 양상: 다변량 다층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개인 및 학교효과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8(1), 37-65.
- 노연경, 홍세희. (2012).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목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3(3), 51-76.
- 문혜진. (2013). 외환위기 전후 청년 코호트의 노동경력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65(1), 201-226.
- 박성준. (2011). 베이비부머 라이프스타일 기반 복합노인복지시설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성훈. (2021).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범죄 두려움 인식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통합연구, 2(2), 1-38.
- 박수애, 송관재. (2005). 사회적 불안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1(2), 1-29.

- 박순희. (2021). 중년여성의 위기감, 가족기능, 나이듦에 대한 태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3(1), 389-402.
- 박재홍. (1996). 한국 신세대의 세대경험과 의식구조. *현대사회*, 43, 24-43.
- 박창식, 이형수, 조병모. (2011).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 15(4), 325-349.
- 백경훈, 송다영, 장수정. (2018). 이중돌봄 맥락에서 본 부정의한 세대 간 돌봄책임 재분배. *한국여성학*, 34(2), 33-69.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1).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 서성만, 이미숙. (2016). 은퇴를 앞둔 장년남성의 우울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6(10), 265-265.
- 손정남. (2018). 중년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갱년기 삶의 질을 중심으로. *보건정보통계학회지*, 43(2), 148-157.
-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 (2004). 사회적 상황에서의 사회적 불안의 실태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 송기숙. (2007). 노인의 자아존중감 영향요인.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영중. (2000). 한국의 IMF 경제 위기 전후의 질병이환율, 의료이용 및 사망률의 변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지선, 전혜정. (2012). 중년기 은퇴로의 전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 가족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65-85.
- 에른스터 디터 란터만. (2019). 불안사회: 혐오와 광신으로 물든 현대사회를 말하다(이덕임, 역). *책세상*.
- 유창민. (2018).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10 년간의 변화과정: 성인초기, 중년기, 노년기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3), 7-44.
- 윤경자, 임주영. (2011). 베이비붐 세대 분거가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아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193-208.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영아, 정원철 (2010). 청소년의 학업 및 가족갈등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대처능력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257-277.
- 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곽윤경, 전지현, 구혜란, 변금선. (2020).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훈구. (2004). 사회심리학적 안녕-사회 불안, 신뢰 그리고 행복. 법문사.
- 임정미. (2020). 신중년의 사회참여 실태와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9월호, 45-55.
- 장혜경. (2021) 중년후기 성인의 건강상태, 노화불안, 사회관계망, 생성감 및 행복.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7(4), 392-401.
- 정규형, 박서영. (2014). 중년기의 가족부양부담이 개인의 노후준비정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3, 115-147.
- 정기선. (2000). 경제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4, 389-416.
- 정민선, 김현미, 권현용. (2012). 청소년의 기본욕구충족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대처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20(1), 159-174.
- 정익중. (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 조지민, 김문근. (2021). 베이비붐세대의 이중부양부담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4(2), 49-75.
- 최미경, 이영희. (2010). 중년성인의 우울과 무력감, 사회적 지지 및 사회경제적 상태. 정신간호학회지, 19(2), 196-204.
- 최은영. (2015). 1,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인철, 김범준. (2005). 정보화시대의 사회적 불안의 특성과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서울대학교.

- 최효식, 연은모, 윤영, 홍윤정. (2013).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사회 환경 변인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83, 51-75.
- 통계청 KOSIS. 주민등록 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vw_cd=MT_ZTITLE&list_id=A_7&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 2022. 10. 12. 인출.
- 통계청. (2021). 한국의 사회동향 2021.
- 통계청. (2022a). 2022 고령자 통계.
- 통계청. (2022b).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 하채림. (2020. 10. 14.). 잦은 불안감, 40·50대가 60대보다 느끼는 사람 더 많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4017900002>에서 인출.
- 한경혜, 김주현, 김경민. (2003) 중년기 남녀의 사회적 관계망과 정신건강. *한국노년학*, 23(2), 155-170.
- 한경혜, 이정화, 옥선화, Ryff, C., Marks, N. (2002). 중년기 남녀의 사회적 역할과 정신건강. *한국노년학*, 22(2), 209-225.
- 한준규. (2015. 3. 23.). 복지는 빈곤 아닌 불안을 해결해야.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503231899040681>에서 인출.
- 허수진, 허재홍. (2017). 중년여성의 긍정정서와 우울 및 불안의 관계-문화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상담학연구*, 18(2), 375-391.
- 현대경제연구원. (2017). 경제행복지수 5년만에 최저치-‘경제적 평등’, 10년래 최저수준. *현안과 과제*, 17-1호.
- Akaeda, N., & Schöneck, N. M. (2022). Socio-economic insecurity perceptions and their societal determinants: Europe in the aftermath of the Great Recession. *European Societies*, 24(3), 310-332.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cation.

- Behrendt, C., & Nguyen, Q. A. (2018). *Innovative approaches for ensuring universal social protection for the future of work*. ILO. Future of Work Research Paper Series
- Branden, N. (2021). *The power of self-esteem*. Health Communications, Inc..
- Choi, Y. K., Lee, J. H., & Joshanloo, M. (2018).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A focus group Interview study with middle-aged Koreans*. 2018 annual conference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hung, H., & Mau, S. (2014). Subjective insecurity and the role of institution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4(4) 303-318.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41, 22-23.
- Danneel, S., Nelemans, S., Spithoven, A., Bastin, M., Bijttebier, P., Colpin, H., ... Goossens, L. (2019). In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Linking loneliness, social anxiety symptoms, and depressive symptoms over tim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7, 1691-1705.
- Elder Jr, G. H., & Pavalko, E. K. (1993). Work careers in men's later years: Transitions, trajectories, and historical change. *Journal of Gerontology*, 48(4), S180-S191.
- Fox, G. L., & Chancey, D. (1998). Sources of economic distress: Individual and family outcomes. *Journal of family issues*, 19(6), 725-749.
- Green, F., Dickerson, A., Carruth, A., & Campbell, D. (2001). *An Analysis of Subjective Views of Job Insecurity*. Department of Economics Discussion Paper 01/08, Canterbury, University of Kent.
- Hadarics, M., Kende, A., & Szabó, Z. P.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the palliative function of Meritocracy belief:

- the micro- and the macro-Levels both count. *Frontiers in Psychology*, 12:709080. doi: 10.3389/fpsyg.2021.709080.
- Helbling, L., & Kanji, S. (2018). Job insecurity: differential effects of subjective and objective measures on life satisfaction trajectories of workers aged 27-30 in German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7), 1145-1162.
- Huber, C. (2019). *Latent class analysis using stata*. University College London(October, 16, 2019.)
- Hüther, G. (2019). 존엄하게 산다는 것: 모멸의 시대를 건너는 인간다운 삶의 원칙. (박여명, 역). ㈜인플루엔셜, 서울.
- Jedidi, K., Jagpal, H. S., & DeSarbo, W. S. (1997). Finite-mixture structural equation models for response-based segmentation and unobserved heterogeneity. *Marketing Science*, 16(1), 39-59.
- Joubert, C. (2021). Not poor and not formal: Who are the 'missed middle' of social protection?. World Bank, World Bank Blogs, <https://blogs.worldbank.org/african/not-poor-and-not-formal-who-are-missed-middle-social-protection>에서 2022. 11. 1. 인출.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 302-317.
- Kelley, J., Zayac, R., & Correia, C. (2008). Curvilinear relationships between statistics anxiety and performance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Evidence for optimal anxiety. *Statistics Education Research Journal*, 7(1), 4-15.
- Kim, D., & Lee, J. (2021). Differences between self-referential attention bias and memory bias according to early adult social anxiety level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0(3), 115-129.

- Kinnunen, U., & Pulkkinen, L. (1998). Linking economic stress to marital quality among Finnish marital couples: Mediator effects. *Journal of family issues, 19*(6), 705-724.
- Kstat. (2020a). 국민 '불안 의식' 진단 및 분석. Kstat Report, 16호, 2020. 11. 12.
- Kstat. (2020b). '불안사회' 해소 관련 국민 의식 분석. Kstat Report, 17호, 2020. 11. 26.
- Lauterbach, A. (1952). Socio-Economic Instability and Personal Insecurity.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12*(1), 35-48.
- Lazarsfeld, P. F. (1950). The logical and mathematical foundation of latent structure analysis.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in World War II. Vol. IV: Measurement and Prediction, 362-412.*
- Lazarsfeld, P., & Henry, N. (1968). *Latent structure analysis*. Boston: Houghton Mill.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linger Publishinging Co.
- Mau, S., Jan, M., Nadine, M. S. (2012). What determines subjective social-economic insecurity: context and class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cio-Economic Review, 10*, 655-682.
- Nishizono, H. N. (1985). Depression and neurosis in middle aged. *Japanes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14*(9), 1301-1307
- OECD. (2015). *OECD insights income inequality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 OECD. (2021). *Main Findings from the 2020 Risks that Matter Surve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9e85cf5-en>.
- Petras, H., & Masyn, K. (2010). General growth mixture analysis with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change. *Handbook of quantitative criminology* (pp. 69-100). Springer, New York, NY.

- Ranci, C., Parma, A., Bernardi, L., & Beckfield, J. (2017). *The Rise of Economic Insecurity in the EU: Concepts and Measures*. Lives Working Paper 2017/62, Bern, Switzerland: Swis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Rodriguez-Bailon, R., Bratanova, B., Willis, G. B., Lopez-Rodriguez, L., Sturrock, A., & Loughnan, S. (2017). Social Class and Ideologies of Inequality: How They Uphold Unequal Societies, *Journal of Social Issues*, 73(1), 99-116.
- Steiger, A. E., Allemand, M., Robins, R. W., & Fend, H. A. (2014). Low and decreasing self-esteem during adolescence predict adult depression two decades lat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6(2), 325.
- Stephens, M. (2004). Job Loss Expectations, Realizations, and Household Consumption Behavior.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6, 253-269.
- Tan, P. L. (2018). Dual burdens of care: "Sandwiched couples" in East Asia. *Journal of Aging and Health*, 30(10), 1574-1594.
- Trzesniewski, K. H., Robins, R. W., Roberts, B. W., & Caspi, A. (2004). Personality and self-esteem development across the life span. *Recent Advances in Psychology and Aging*. edited by Costa, P. T., & Siegler, I. C., Amsterdam: The Netherlands Elsevier Science.
- Van Eck, K., Johnson, S. R., Bettencourt, A., & Johnson, S. L. (2017). How school climate relates to chronic absence: A multi-level latent profile analysi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61, 89-102.
- Wilkinson, R., & Pickett, K. (2011).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Bloomsbury Publishing USA.
- Wylie, R. C., (1979). *The Self-Concept Volume 2: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Zimmerman, M. A., Copeland, L. A., & Shope, J. T. (1997). A longitudinal study of self-esteem: implications for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2), 117-141.



[부록 1] 면담 가이드

□ 참여자 선정기준

- 중년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집단 구성
 - 연령(45~54, 55~64), 가족구성(독거, 자녀의 성인 여부), 취업상태를 고려하여 사례를 구성
 - 빈곤층과 비빈곤층을 포괄

□ 인터뷰 내용 구성

- 중년의 불안 요인을 중심으로 인터뷰의 본론을 구성
 - 생애 중요한 사회경제적 이벤트의 경험, 특히 외환위기, 금융위기, 고용불안정 심화기 등의 경험
- 도입부에서 면담 참여자가 일상을 구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면담자의 배경을 이해하고 면담자의 긴장을 완화하도록 진행
- 사회적 불안의 요인을 개인의 불안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면담을 진행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구성 포괄

□ 질문에서 고려하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요인들

- 신체적 변화와 이로 인한 정서의 변화

○ 가족구성의 변화와 그로 인한 정서의 변화

- 변화의 예상 여부와 영향, 대처 파악
 - 자녀의 뒷바라지와 그 부담
 - 자녀의 독립과 빈둥지증후군
 - 부모의 돌봄, 부양 부담과 그 영향, 가족의 상실 경험과 영향
 - 부부관계의 변화와 영향

○ 경제적 변화와 그로 인한 정서의 변화

- 본인 또는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 그동안의 변화와 변화 전망
 - 변화의 예상과 자발적 선택 여부
- 경제활동 변화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영향
-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과 정서적 반응
- 노후준비와 이와 관련된 부담과 불안

○ 사회적 관계의 변화와 영향

- 도태의 경험과 불안
- 중년의 배제 경험과 정서
- 사회적 존중과 자존감

□ 질문 예시

- 간단히 하루 일상을 소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본인의 생애주기별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대까지의 아동기)--(20대 청년기)-----(30대)------(40대)------(50대 이후)
 () () () () ()

- ① 생활이 어려운 하층
- ② 중산층
- ③ 부유한 상층

- 계층 이동이 있던 시기의 이유와 당시 대처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 최근 5년간 가족,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변화를 경험하신 바 있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자주 떠올리게 되는 변화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 예상된 변화 또는 선택한 변화였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그 경험이 왜 큰 영향을 주었나요?

○ 살면서(생애) 가장 불안했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 그 당시 어떻게 극복, 대응하셨습니까?

○ 최근 불안을 느낀 일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 불안할 때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여가 활용, 술과 담배를 하시나요? 이러한 시간이 불안할 때 어떻게 변하나요?

○ 지금 본인(또는 가구주)이 생계를 위하여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 그 일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요? 그 전망에 대하여 본인은 어떻게 느끼는지요?

○ (자녀나 부모 돌봄·부양을 하는 경우) 자녀 뒷바라지 그리고 부모

[부록 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설문지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응답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현재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불안과 그 원인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사회의 불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생명윤리위원회(IRB) 제2022-069호]를 받아 진행되며 응답해 주시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비밀이 보장됨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동의서에 작성해주시는 귀하의 성함과 연락처는 조사에 대한 사례비 지급을 위해 활용될 뿐이며, 조사와 관련된 모든 과정(자료의 수집과 보관, 결과 분석 및 해석 등)에서 귀하의 모든 개인적 정보 및 기타 정보는 코드화되어 오직 코드번호로만 식별됩니다. 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현황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조사 관련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코드화되어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되며, 보관기간 종료 후 완전 삭제되어 폐기됩니다. 연구의 결과물(연구보고서, 마이크로데이터 등)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에 의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절차를 거친 이후 공개될 수 있습니다.

조사의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귀하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귀하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언제든지 조사 참여 동의를 철회하고 조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응답 거부 및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조사를 중단하는 경우 응답하신 데이터도 삭제됩니다.

조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로 답례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연구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선임연구위원
- ◇ 조사기간: 2022년 8월 4일 ~ 8월 18일
- ◇ 조사기간: ㈜비에프리서치

본인은 위 사항에 따라 조사 사실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으며,
조사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후 조사참여에 동의합니다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I. 우리사회에 대한 인식

문1.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불안하지 않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2.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나만 모르게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라 여유있는 삶을 누리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현재의 취업불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고 연줄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7) 직장, 학교 등 소속된 조직이나 모임에 적응하기 어려울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사회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보다는 편법이 더 잘 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나라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른 사람과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하는 일을 믿을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4)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가끔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5) 범죄의 대상이 될까봐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사회는 변하는 것이 많고 변화속도가 빨라서 적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사회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뛰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집단이기주의가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을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1) 정부가 하는 일은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2) 정부의 위협/위기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3) 우리나라의 정치는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에게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50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45~64세 집단의 사회적 불안

문3.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불안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발전을 매우 저해할 것이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사회발전에 매우 기여할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0

문4. 우리사회의 불안을 완화하는데 있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통령
- ② 정부(지방정부 포함)
- ③ 정치인(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 ④ 사법부(대법원, 법원 등)
- ⑤ 기업 및 경제계
- ⑥ 언론계(신문사, TV 방송국 등)
- ⑦ 시민, 사회단체
- ⑧ 종교계
- ⑨ 국민(주민) 개인
- ⑩ 기타 _____

문5. 귀하의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와 비교해볼 때 귀 자녀(자녀가 없는 경우 다음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아질 것이다	약간 낮아질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매우 높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6.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보통이다	믿을 수 있다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7. 우리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차별이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 성별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⑤
(2) 연령으로 인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3) 장애로 인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로 인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5) 학력으로 인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6) 교육 기회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7) 취업 기회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8) 승진 기회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9) 소득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10) 자산(부동산 등 재산)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문8. 귀하는 평소 노인세대와 청년세대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노인세대와 청년세대에 대해 모두 응답해주세요.

	노인세대					청년세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고집이 세고, 폐쇄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거나 사회를 위해 고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오랜 경험과 연륜, 신선한 발상 등으로) 배울 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Ⅲ. 응답자의 경험

문9. 귀하는 얼마나 자주 다음의 상황을 경험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요즘 견보다 신경질적이고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이유없이 두려워진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사소한 일에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른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신경이 극도로 약해져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만사가 순조로울 것 같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손발이 떨리고 안절부절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머리가 아프고 목덜미가 무겁거나 혹은 허리가 아프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쉽게 무기력하고 피곤해진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마음이 안정되고 편하게 오래앉아 있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어지러워서 고생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졸도하거나 졸도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무리없이 숨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손에 쥐가 나가거나 저리서 고생을 한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소화가 안되어 고생을 한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①	②	③	④
(17) 내 손은 평소 심하게 땀이 나지도 않고 차지 않게 유지된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화끈거린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쉽게 잠이 들고 깊이 잔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꿈자리가 사납다.	①	②	③	④

252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45~64세 집단의 사회적 불안

문10. 귀하는 현재 얼마나 불안을 느끼십니까?

전혀 불안하지 않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 ①에 응답한 경우 문11로

☞ ②~⑤에 응답한 경우 문10-1로

문10-1. 불안 수준이 귀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내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예 무력감, 위축 등으로 일상에 장애 초래)		← 생활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 내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예 동가나 자극을 주어 나의 발전에 기여)					
1	2	3	4	5	6	7	8	9	10

문11. 귀하는 지난 10년간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건강	(1) 돈이 없어서 아프지만 참고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2) 병원비 때문에 빚을 내본 적이 있다.	①	②
돌봄	(3) 돌봄이 필요한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시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	②
	(4) 돌봄이 필요한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돌보느라 직장생활이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①	②
	(5) 돌봄서비스 이용료 등 돌봄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	①	②
주거	(6) 돈이 없어서 집세가 밀렸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7) 주거비 때문에 빚을 내본 적이 있다.	①	②
	(8) 주거비 때문에 낸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교육	(9) 돈이 없어서 학비(본인 또는 자녀)를 제때 내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적이 있다.	①	②
	(10) 학비(본인 또는 자녀) 때문에 빚을 내본 적이 있다.	①	②

문12. 귀하는 지난 10년간 다음의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1) 성별에 따른 차별	①	②
(2) 연령으로 인한 차별	①	②
(3) 장애로 인한 차별	①	②
(4) 외모로 인한 차별	①	②
(5) 학력(또는 학벌)으로 인한 차별	①	②
(6) 직업 및 고용상태로 인한 차별	①	②
(7) 소득 및 자산(재산)으로 인한 차별	①	②
(8) 지역(출신지 또는 거주지)에 의한 차별	①	②

문13. 아래 사건으로 인해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부모, 자녀, 형제 등)이 경제적 문제 또는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경제적 문제와 정서적 문제를 모두 경험한 경우 복수 응답 가능)

	있다		없다
	경제적 문제 (실직, 소득감소 등)	정서적 문제 (스트레스, 우울 등)	
(1) 1998년 외환위기	①	②	③
(2) 2008년 금융위기	①	②	③
(3) 2014년 세월호 사고	①	②	③
(4) 최근 코인 또는 주가 급락	①	②	③

문14.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부모, 자녀, 형제 등)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다음의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1) 건강 악화 또는 치료 중단	①	②
(2) 여가문화·권교중교활동 감소 및 사회적 고립	①	②
(3) 해고 등 일자리 불안, 소득 감소	①	②
(4) 가족돌봄 및 가사부담 가중, 가족해체나 가족 간 갈등 심화	①	②

문15.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된 것	부수적인 것

- ① 약물 복용 등 의료적 도움을 받는다.
- ② 심리상담을 받는다.
- ③ 수면을 취하거나, TV 시청 또는 PC나 스마트폰 이용을 한다.
- ④ 음연이나 음주 등 유흥, 파식/족식/미식 등을 한다.
- ⑤ 가족과 교류한다(가족과 대화를 하거나 만난다).
- ⑥ 기타 지인과 교류한다(친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만난다).
- ⑦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간다.
- ⑧ 취미/문화생활을 하거나, 쇼핑을 한다.
- ⑨ 종교활동을 한다.
- ⑩ 기타_____
- ⑪ 그냥 참는다.



IV. 사회적 관계

문16.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몇 명 있으십니까?

-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명 (* 없을 경우 0명 입력)
- (2)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명 (* 없을 경우 0명 입력)
-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명 (* 없을 경우 0명 입력)

문17.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소속되어 있으시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까?

	소속된 적이 없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한다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1) 정당, 시민운동단체, 노조,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①	②	③	④
(2) 종교모임	①	②	③	④
(3) 취미모임이나 동창모임 등 친목모임	①	②	③	④
(4) 주민참여나 활동, 학부모 모임	①	②	③	④

문18. 귀하는 다음의 각 활동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메신저(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등)나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 인스타그램 등)를 이용한다.	①	②
(2) 온라인 쇼핑이나 온라인 예약, 예매를 한다.	①	②
(3) 식당,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무인주문기계(키오스크)를 이용한다.	①	②



V. 응답자 스스로에 대한 인식

문19.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아챈다.	①	②	③	④
(4)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할 때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문20. 귀하는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58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45~64세 집단의 사회적 불안

문24. 국민의 노후 생활을 위하여 정부가 주로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순위까지 응답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노후 소득 지원
- ② 노후 취업 지원
- ③ 의료/요양 보호 서비스
- ④ 가사 및 돌봄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⑤ 문화/여가 서비스
- ⑥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 ⑦ 교통/주거 환경 조성
- ⑧ 기타 _____



Ⅶ. 가구 일반 사항

문25. 다음은 가족(동거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가구원 수	명
(1)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 (본인 포함)		
(2) 가족 중 노인 수 (해당 가족이 없는 경우 '0'명 기입) * 만 6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기준 1957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자		
(3) 가족 중 아동 수 (해당 가족이 없는 경우 '0'명 기입) * 만18세 미만으로 주민등록기준 2004년 6월 30일 이후 출생한 자		
(4) 가족 중 장애인 수 (본인 포함, 해당 가족이 없는 경우 '0'명 기입) * 등록장애인(1~6등급) 기준이며, 국가보훈처 등록장애인(7~15등급)은 제외함 → '0명'인 경우 (5)로 이동 → '1명 이상'인 경우 (4-1)로 이동		
(4-1) 장애인 수에 귀하가 포함되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가족 중 만성질환자 수 (본인 포함, 해당 가족이 없는 경우 '0'명 기입) * 만성질환이란, 3개월 이상 투병·투약하는 경우임 (지속적으로 투병·투약이 필요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투약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 → '0명'인 경우 (6)으로 이동 → '1명 이상'인 경우 (5-1)로 이동		
(5-1) 만성질환자 수에 귀하가 포함되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가족 중 실업자 수 (본인 포함, 해당 가족이 없는 경우 '0'명 기입) *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중인 자		

문26.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 ② 전세
- ③ 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
- ④ 월세(사글세)
- ⑤ 기타 (무상, 사택 등)

문27. 귀택의 재산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재산은 소유부동산(주택, 건물, 토지 등), 점유부동산(전세보증금 준 것, 권리금, 사업설비 등),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불입한 컷돈 등), 농기계 및 농축산물, 자동차, 기타 재산(운동클럽 등이 회원권, 기금속 등) 등을 포함함.

- ① 1천5백만 원 미만
- ② 1천5백만 원 ~ 5천만 원 미만
- ③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 ④ 1억 원 ~ 2억 원 미만
- ⑤ 2억 원 ~ 5억 원 미만
- ⑥ 5억 원 ~ 10억 원 미만
- ⑦ 10억 원 이상

문28. 귀하 또는 귀택에서 현재 받고 있는 정부지원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차상위지원, 근로장려세제	①	②
(2) 기초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①	②
(3) 학비지원	①	②
(4) 주거지원	①	②
(5) 의료지원	①	②
(6) 아동·노인 돌봄서비스	①	②
(7) 취업지원서비스	①	②



VIII. 응답자 일반 사항

문29. 우리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①	②	③	④	⑤

문30. 우리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20세가 되기 전 귀하께서는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①	②	③	④	⑤

260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45~64세 집단의 사회적 불안

문31. 귀하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보기
(1)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사녀 ④ 사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기타 * 가구주란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2)	교육수준 (졸업 기준)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 ③ 중학교 졸 ④ 고등학교 졸 ⑤ 대학 졸(전문대학 포함) ⑥ 대학원 이상 * 계학 및 중퇴는 한 단계 아래 학력 기재 (예 : 중학교 계학이나 중퇴는 ②초등학교 졸)
(3)	혼인상태	①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② 별거 ③ 사별 ④ 이혼 ⑤ 미혼
(4)	종교	① 종교 없음 ② 불교 ③ 개신교 ④ 천주교 ⑤ 기타
(5)	주관적 건강상태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6)	건강상태 변화	1년 전보다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나빠졌다 ② 조금 나빠졌다 ③ 변하지 않았다 ④ 조금 좋아졌다 ⑤ 아주 좋아졌다
(7)	이념적 성향	① 매우 보수적 ② 대체로 보수적 ③ 중도적 ④ 대체로 진보적 ⑤ 매우 진보적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3] 문항 16번, 24번 제거 시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		항목 수			
.913		22			
문항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항목이 삭제된 경우 크론바흐 알파	
1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 같다	79.74	116.746	.443	.911
2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나만 모르게 될 것 같다	80.40	114.719	.454	.911
3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라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가 어렵다	79.77	114.167	.562	.908
4	현재의 취업불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79.51	116.976	.480	.910
5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79.25	115.820	.555	.909
6	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고 연줄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79.49	113.234	.617	.907
7	직장, 학교 등 소속된 조직이나 모임에 적응하기 어려울까 봐 불안하다	80.56	113.412	.491	.910
8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79.77	111.409	.619	.907
9	우리 사회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79.64	113.037	.577	.908
10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보다는 편법이 더 잘 통한다	79.73	112.229	.632	.907
11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79.88	111.044	.686	.906
12	다른 사람과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다	79.91	113.277	.570	.908
13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하는 일을 믿을 수 없다	80.39	115.187	.431	.911
14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가끔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낀다	80.41	114.983	.479	.910
15	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80.39	113.615	.513	.910
17	우리 사회는 변하는 것이 많고 변화속도가 빨라서 적응하기 어렵다	80.19	115.766	.480	.910
18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뛰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79.64	114.937	.497	.910
19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집단이기주의가 심하다	79.67	114.751	.542	.909
20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을지 혼란스럽다	79.80	114.386	.563	.908
21	정부가 하는 일은 믿을 수 없을 때가 많다	79.70	111.757	.647	.907
22	정부의 위험/위기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	79.75	111.343	.621	.907
23	우리나라의 정치는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79.85	113.004	.498	.91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